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책임연구원 : 이창호 | 공동연구원 : 오해섭

연구보고(고유과제) 09-R17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책임연구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김태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글로벌화, 유비쿼터스 시대의 등장, 취업의 불확실 등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취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들을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주요 사회적 책무로 부상하고 있음.
- 본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목적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아동과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글로벌 환경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 또한 본원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청소년개발협의회(WARDY) 회원국을 초청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협력네트워크와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데 있음. 아울러 사전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 미지센터 등 국내 유관 기관과 글로벌인재개발방안에 관한 학술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의 인재개발전략과 국내의 경험들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주요 연구내용

- 우선, 국내의 인재개발전략을 살펴본 결과 미지센터는 국제이해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다문화이해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평화와 평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인권존중에 관한 프로그램, 세계화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표적인 해외봉사단체인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는 1989년 창설된 이래 연간 수백여명의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음. 국제워크캠프기구(IWO) 또한 청소년교류와 국제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의식을 함양하고 있음.
- 최근까지 호주의 청소년 정책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음. 하지만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글로벌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인재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다른 분야(복지나 건강 등)들을 통합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
- 일본 청소년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현격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직업 관련성 증진, 임금 및 직업 기회에 관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차이 축소, 기업 외부의 저렴한 공공 직업훈련의 확대 및 졸업생을 포함한 한층 더 광범위한 청소년에게 취업 안내 및 상담기회 부여 등 여러 수단들이 요구됨.
- 중국의 경우 국가 및 지방 정부 모두의 재정적 지원으로 설립된 다양한 청소년 센터는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선호도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요구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캐나다의 경우 가출청소년 등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연계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길거리를 전전하는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건설업관련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핀란드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최근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오히려 사회의 정체성 위기를 확대, 심화할 수 있음.

### 3. 정책제언

-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와 해외봉사활동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틀을 만들어 국제교류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함. 즉 청소년 국제교류의 사전교육과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교류활동이 참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한국인들의 문화간 감수성 또는 다문화주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도 이뤄져야 함.
- 국제교류의 기회가 영어에 비교적 능통한 일부 청소년들에게 국한되고 있어 저소득층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참가자의 일정 비율을 이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할애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소년활동에서 국제교류활동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시스템이 취약함. 따라서 국제관계의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간 청소년교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청소년단체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국가간 교류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청소년국제교류전문 인력 확보, 법·제도적 정비, 국제이해센터 건립과 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탐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장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효능적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6
II. 이론적 배경 .....	9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	9
2. 글로벌인재의 개념 .....	10
1) 기업에서의 논의 .....	10
2) 청소년 분야의 논의 .....	15
III. 국내외 인재개발현황 .....	21
1. 국내 사례 .....	21
1) 국제이해교육활동 .....	21
2) 해외봉사활동 .....	29
2. 외국 사례 .....	35
1) 호주 .....	35
2) 일본 .....	53
3) 중국 .....	65
4) 캐나다 .....	90
5) 핀란드 .....	108
IV. 글로벌 시대의 인재개발전략 .....	125
V. 결론 및 정책제언 .....	131
1. 결론 .....	133
2. 정책제언 .....	136
참고문헌 .....	142
부록 : 5개국 영문발표자료 .....	143



## 표 목차

<표 I-1> 청소년 글로벌역량 개발 전문가 연구포럼 일정 .....	6
<표 II-1>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모델 .....	11
<표 II-2> 글로벌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전략과 구체적 개발전략 ..	14
<표 II-3> 글로벌역량 지표 및 산출 근거 .....	17
<표 III-1> 주요연혁 .....	29
<표 III-2> 파견국가 .....	30
<표 III-3> 세계 주요 해외봉사단 .....	31
<표 III-4> 국제워크캠프기구의 국제활동프로그램 .....	32
<표 III-5> 오늘날 호주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한 몇 가지 사실 ..	42
<표 III-6> 청소년 :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탐구 .....	44
<표 III-7> 이점 척도에 대한 항목-총 통계 .....	79
<표 III-8> 청소년이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평균 및 중간값 .....	80
<표 III-9>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하는 7개 종류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 또는 불참의 부정적 효과에 해당하는 평균 및 표준편차 .....	81
<표 III-10> 참가한 특별교육 활동 종류(ATT) 및 그 이점 간의 이변량 상관 .....	82
<표 III-11> 독립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 및 특별교육 활동 참여의 이점 .....	83
<표 III-12> 특별활동참여종류에 따른 참여 이점 (부모와 청소년 비교) .....	85
<표 III-13> 특별활동참여종류에 따른 참여 이점 (부모와 청소년 비교) .....	86
<표 III-14> 국립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의 확인된 항목에 따른 평균 순위의 비교 .....	87
<표 III-15> 지난 주(2000,2001) 또는 지난 30일(2006)*간의 소득출처 .....	96
<표 III-16> 실업청소년의 분류체계 .....	119

## 그림 목차

[그림 II-1] 글로벌사회의 프로세스 .....	16
[그림 III-1] 청소년 수의 변화 .....	55
[그림 III-2] 총 연령 연간 수입 분포 .....	55
[그림 III-3] 연령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	57
[그림 III-4] 질병 종류에 따른 노동자 보상보험 청구 수 .....	57
[그림 III-5] 국가별 제조업 노동자 비율 변화 .....	60
[그림 III-6] 학력별 교육을 통해 직무 능력을 획득했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수 .....	61
[그림 III-7] ‘유연전문성’ 모델 .....	62
[그림 III-8] 청소년 노동 시장의 이미지 모델 .....	64
[그림 III-9] 지난달 합법적 취업을 통한 임금 수령 .....	97
[그림 V-1]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세스 .....	139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글로벌화, 유비쿼터스 시대의 등장, 취업의 불확실 등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와 재혼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청소년 성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으로 급속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국제교류의 확대가 예상되며, 노동시장 개방,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의 가속화로 인한 유비쿼터스 삶 즉, 첨단기술의 일상화는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고용 없는 성장과 고학력화로 청소년 취업의 불확실성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2008년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한국과 중국의 아동청소년교류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애한(愛韓)-애중(愛中) 청소년 1만명 양성에 돌입했다. 즉 양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매년 2,500명씩 총 1만명의 애한(愛韓) 및 애중(愛中) 청소년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과 2012년을 각

각 ‘중국방문의 해’와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2009년 한해 동안 1,000명의 청소년을 상호 초청키로 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글로벌 인재양성 인프라는 비교적 열악한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8억 8,500만 유로를 투입해 청소년들을 위한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젊은이와 청소년 기관과의 교류와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비영리,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단결심을 계발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교류와 청소년발의권을 통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참여, 창의성을 장려하고 있다. 캐나다국제협력단(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은 캐나다 젊은이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윤철경·유성렬, 2008).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적, 사회적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본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목적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아동과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글로벌 환경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본원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청소년개발협의회(WARDY) 회원국을 초청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협력네트워크와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아울러 사전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 미지센터 등 국내 유관 기관과 글로벌인재개발방안에 관한 학술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의 인재개발전략과 국내의 경험들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어 기업에서 주로 정의돼 온 글로벌 인재의 개념을 살펴보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란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돼 왔는지 검토한다.

국내의 인재개발현황은 국제워크캠프기구, 미지센터 등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논의된다. 이 단체들의 활동은 크게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글로벌역량증진과 해외봉사활동과 국제교류증진을 통한 글로벌의식함양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외국의 인재개발현황은 호주, 일본, 중국, 캐나다, 핀란드 등 5개국의 인재개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논의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사례는 세계적, 지역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을 책임지고 있는 다른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중국의 사례는 청소년센터 내 특별교육활동의 효과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의 사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길거리 및 노숙청소년들의 취업정책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의식,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외 인재개발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세계적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국내의 글로벌 인재개발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워크캠프기구, (사)한국 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 미지센터, 한중미래숲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개발 프로그램 및 국제이해증진교육방안 등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전문가 연구포럼을 개최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인재개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및 국제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국내의 인재개발현황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이어 외국의 인재개발현황 및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핀란드 등 5개국의 인재개발 현황을 파악했다. 외국 참가자 섭외는 본원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청소년개발협의회(WARDY) 회원국<sup>1)</sup> 중심으로 이뤄졌다.

〈표 I -1〉 청소년 글로벌역량 개발 전문가 연구포럼 및 국제회의 일정

일정	주제	일시 및 장소
2월 (1회)	국제워크캠프기구 및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활동 소개	- 일시 : 2월 20일 (금) - 장소 : 한국교총 2층 세미나실
4월 (2회)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및 한중미래숲 활동 소개	- 일시 : 4월 16일 (목) - 장소 : 미지센터
6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 국제회의	- 일시 : 6월 25일 (목)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이처럼 두 차례의 포럼과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 외 인재개발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청소년들의 인재개발을 위해 어떤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1) 2009년 현재 중국과 일본, 독일, 핀란드 등 11개국 22개 청소년연구기관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2. 글로벌인재의 개념
  - 1) 기업에서의 논의
  - 2) 청소년 분야의 논의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국가청소년위원회(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2030 청소년희망세상 비전과 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환경을 둘러싼 미래의 핵심트렌드 여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미래의 핵심 메가트렌드들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글로벌화, 취업불확실, 소수자부상, 첨단기술일상화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대신 노령화 속도는 빨라 노년층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심화된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소년들의 취업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소수자(여성이나 동성애자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첨단기술의 발전은 교육환경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도 크게 바꾸고 있다. 즉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학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게임의 일상적 이용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 변화 가운데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제적 교류의 확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청소년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행한 『2008 아동·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291명의 한국청소년들이 일본과 필리핀, 터기 등 23개 국가에 파견됐으며 불가리아, 멕시코, 터기 등 24개국 299명의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파견된 바 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청소년교류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7년부터 한·중·일 3국이 다자간 청소년교류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년 번갈아가면서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국제회의나 포럼, 해외체험활동, 국제청소년축제나 캠프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기회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 5월 조사한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1,106,88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가 575,657명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는 125,673명, 유학생은 77,322명이었다. 이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국내거주 외국인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글로벌 프렌드십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외국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소통기술을 익힐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국제적 이해와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청소년 육성과 인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국제적 교류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재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전 세계 120여개 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적인 청소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작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되면서 지역 활동 참여와 봉사활동, 국제교류참가 등 야외교육활동을 통한 청소년발달 및 인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로 단순히 공부만 잘 하는 인재보다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경험한 인재개발과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2. 글로벌 인재의 개념

### 1) 기업에서의 논의

글로벌 인재의 개념은 주로 기업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 정의돼 왔다. 글로벌화의 가속으로 기업들의 외국진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해외에 파견할 인력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표 II-1〉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모델

영역	항목	내용
글로벌 비즈니스 필요지식	글로벌화의 이해	- Globalization의 개념과 중요성 인식 - Global Leader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파악
	글로벌 경제 이해	- 세계 정세 및 경제 흐름 파악 - 글로벌 기업 경영 동향 파악
	이문화 이해	- 서구권 문화의 이해 - 아시아권 문화의 이해 - 신흥국가 문화의 이해
글로벌 비즈니스 필요기술	해외 비즈니스	- 해외 여행 및 출장 준비 - 해외 여행 및 출장 업무 능숙하게 수행
	커뮤니케이션	- 공식적 상호관계 구축 -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능숙하게 수행
	매너 및 에티켓	- 모임 성격에 맞는 식당 및 메뉴 선정 - 테이블 매너 및 에티켓 준수
	외국어	- 영어 활용 능력 - 제2외국어 활용 능력
	IT 활용	- 컴퓨터 및 각종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글로벌 비즈니스 필요태도	자문화 이해	- 우리나라 문화의 이해와 자긍심
	이미지 메이킹	- 상황에 적합한 이미지 연출 - 타인에게 긍정적 이미지 구축
	개방성과 유연성	- 다양한 사고방식과 관점 이해하고 차이 수용 - 불확실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정직과 열정	- 도덕적 가치 기분에 따른 생각과 행동 - 최고를 향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 충만

출처 : 박소연 · 송영수 (2008). 기업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분석. 『인력개발연구』, 10(3), 79페이지서 인용.

기업에서 말하는 글로벌 인재는 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소연 · 송영수, 2008). 박소연 · 송영수 (2008)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

로 글로벌비즈니스 역량모델을 <표 II-1>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글로벌비즈니스 역량모델은 크게 글로벌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영역에서는 글로벌화의 개념과 글로벌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글로벌 경제 이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기술영역에서는 능숙한 해외출장업무수행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 에티켓 준수, 컴퓨터 및 각종 디지털 미디어활용능력, 영어와 기타 언어에 대한 외국어능력이 요구된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태도영역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긍정적 이미지 구축, 개방성과 유연성, 정직과 열정을 포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의 인사교육담당자들과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인사교육담당자들은 글로벌비즈니스역량의 요소 중 정직과 열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글로벌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대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개방성과 유연성, 이미지 메이킹 순이었다.

권대봉(1998)은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재의 조건으로 민주시민, 기업조직시민,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주장한다(12~19쪽).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법정신, 원만한 가족관계, 의사소통능력, 자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포함한다.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질은 직장 운명공동체로서의 건강한 집단가치를 공유한 사명감과 책임감, 일반적인 경영관리 능력 등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시민은 정보를 이용한 부가가치창조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은 국제감각과 국제적 시야, 국제의사소통능력, 거래상대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 외국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국제경영관리능력을 포함한다. 이처럼 그는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민주시민의식,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국제의식의 함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세미(2005)는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모두 10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문제해결능력으로 이는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차근 차근 해결점을 찾아가는 지구력 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

는 창의력으로 이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언어·표현능력으로 이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짧고 명확하게 요점을 집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 이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일으킬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는다. 다섯 번째는 이미지 관리로 남들에게 비쳐질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컨트롤 하는 능력도 업무수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리더십으로 이는 나만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주위의 인재들이 최고의 가능성에 도전하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이끌어 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는 최고를 향한 추진력으로 현재 만족할 수 있는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마인드이다. 여덟 번째는 도전의식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꾸준히 도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홉 번째는 균형감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줄 아는 능력이 글로벌 인재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로 부상하고 있다. 열 번째는 다양성으로 유연함과 다양성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는 때 글로벌 프로페셔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표 II-2>는 조세미(2005)가 주장한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핵심전략과 구체적 계발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2> 글로벌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전략과 구체적 개발전략

핵심전략	개발전략
문제해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듣는 기술</li> <li>- 머릿 속에 집짓기 훈련</li> <li>- 멀리서 전체 그림보기</li> </ul>
창의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기</li> <li>- 뒤집어 생각해 보기</li> <li>- “모르겠다”는 답이 될 수 없다</li> </ul>
언어·표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끄러움을 없앴</li> <li>- 직접 부딪치며 배움</li> <li>- 짧고 명확하게 요점을 집어냄</li> </ul>
긍정적인 사고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습득</li> <li>- 긍정적인 언어습관</li> <li>- 자신감 있는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li> </ul>
이미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컨트롤</li> <li>- 의도한 대로 표현</li> <li>- 자신의 모습에 충실</li> </ul>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가이드라인 제공</li> <li>- 부하직원의 성취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li> <li>- 부하직원을 진심으로 배려</li> </ul>
최고를 향한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를 높고 세밀하게 설정</li> <li>- 현실적인 안목의 유지</li> <li>-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li> </ul>
도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개발 기회를 스스로 개척</li> <li>-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li> <li>- 실패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음</li> </ul>
균형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를 정함</li> <li>- 시간을 투자한 만큼 효과적인 결과를 얻도록 노력</li> <li>- 지금 하는 일을 즐김</li> </ul>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수용하는 자세</li> <li>-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힘</li> <li>-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신용 축적</li> </ul>

출처 : 조세미(2005). 『세계는 지금 이런 인재를 원한다』, 147~192쪽.

## 2) 청소년 분야의 논의

기업과 달리 청소년 분야에서는 국제활동프로그램참여, 해외봉사단 파견 등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바탕을 둔 글로벌 인재개발에 초점을 뒀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함양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에는 세계적 혹은 초국가적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 청소년 자신이 장래에 국제기구나 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 국가 간 교류를 통한 글로벌 프렌드십의 형성,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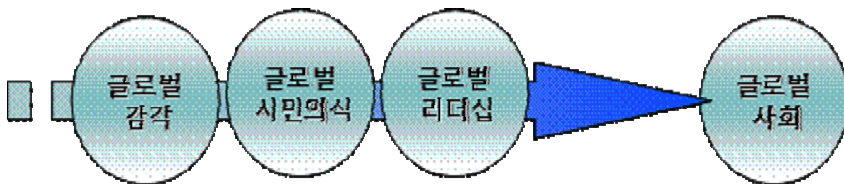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풍부한 국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모험심을 기르고 이로 인한 자신감의 고취와 개척정신 함양이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청소년 시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동적인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여, 타국 청소년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함양 또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에게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이다. 한국이 아닌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을 주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인간의 관계는 피부색과 국경을 떠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하게 된다. 청소년자원봉사단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촌의 다양한 민족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인류애의 함양,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땀 흘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의 국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글로벌 인재는 개인적으로 외국어능력, 타문화 적응능력, 리더십, 특정분야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청소년들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윤철경 외, 2008).

- 영어 및 현지 언어 사용능력
- 타문화와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 및 수용능력

- 타 문화권에서의 생활능력(에티켓, 인간관계, 향수병 극복 등)
- 리더십 능력(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팀워크, 자기주도성, 동기화, 자기관리 능력, 호기심, 도전의식 등)
- 전문분야 직무능력(해당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능, 컴퓨터 활용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

국제워크캠프기구 임진수 소장은 포럼에서 글로벌 인재란 글로벌 태도, 글로벌 경험,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규정한다. 즉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국제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러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야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시민의식,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어야만 글로벌 사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II-1] 글로벌사회의 프로세스

오해섭 외(2008)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글로벌 역량지표를 개발하였다(<표 II-3> 참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글로벌역량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은 국가간 교류에 대한 이해증진도와 글로벌역량 증진도이다. 글로벌역량증진도는 가치관의 변화, 글로벌마인드의 형성, 개인역량강화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표Ⅱ-3〉 글로벌역량 지표 및 산출 근거

구 분	평 가 지 표	산출근거
국가간 교류 이해증진도	교류국가의 전통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정도	문항별 중요도
	교류국가의 주요산업 및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문항별 중요도
	교류국가 국민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정도	문항별 중요도
	교류국가의 정치, 역사, 외교관계에 대한 이해	문항별 중요도
	문화감수성 척도1 (외국문화와의 접촉경험)	전문가 자문
	문화감수성 척도2 (외국문화에 대한 흥미도)	전문가 자문
	문화감수성 척도3 (교류국가의 언어구사력)	전문가 자문
	청소년국제교류행사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도	문항별 중요도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	문항별 중요도
글로벌역량증진도 - 가치관 -	글로벌 에티켓과 여행상식	문항별 중요도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	문항별 중요도
	문화감수성 척도 4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전문가 자문
	문화감수성 척도 5 (외국 친구와의 접촉)	전문가 자문
	세계적 문화유산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문항별 중요도
	교류국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	현장 인터뷰
	세계시민의식 확립	문항별 중요도
	자아존중감 척도 (자신의 가치, 긍정적인 태도)	전문가 자문
	유학 · 교환학생 등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	문항별 중요도
	진로의식 척도 (미래의식, 직업관, 진로확신도)	전문가 자문
	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에 대한 관심도	문항별 중요도
	한국의 지명도에 대한 이해	전문가 자문
글로벌역량증진도 -글로벌마인드-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	문항별 중요도
	국제활동에 대한 자신감	문항별 중요도
	문화사절단 및 민간대사로서의 자부심	문항별 중요도
	국가간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별 중요도
	외국회사 및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	현장 인터뷰
글로벌역량증진도 - 개인역량 -	판단력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리더십 형성	현장 인터뷰
	외국어 사용능력 향상 및 표현에 대한 자신감	현장 인터뷰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및 관리능력	현장 인터뷰
	문화 · 예술 등의 영역에서 개발한 취미와 특기	현장 인터뷰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구성원들과 협동기술	문항별 중요도
	각종 토론 및 회의 참가를 통한 발표능력 향상	전문가 자문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지식	전문가 자문

출처 : 오해섭 · 문경숙 · 권일남 · 김소희 (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131페이지서 재구성함.

국가간 교류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류국가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정도, 글로벌 에티켓과 여행상식,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 등으로 측정된다. 가치관은 세계시민의식, 자아존중감,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정도를 포괄하고 있는 측정지표다. 글로벌마인드는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 국제활동에 대한 자신감, 국가간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측정될 수 있는 영역이다. 개인역량은 외국어 사용능력 및 표현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리더십, 공동체활동을 통한 구성원 간의 협력 등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김소희 박사는 글로벌역량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리더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 등의 기본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 환경에 대해 면밀히 파악을 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지센터 홍광현 부장은 ‘글로벌’이란 용어는 국경과 민족, 언어, 문화를 초월한 개념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의미의 통합성과 창조를 의미하는 창의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역량’이란 민족과 언어,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과 더불어 비판하고 통합하는 능력일 것이다. 스펜서(Spencer&Spencer,1993)가 언급한 개인차원의 역량의 다섯 가지 요소인 동기, 특질, 자아개념, 지식, 기술 분야가 융합하여 좋은 결과물이 나오듯 글로벌 역량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다문화의 수용 능력 등이 결합하여 문화 창의적 자세를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지센터의 2009년도 슬로건은 ‘국제시민 양성의 인큐베이터’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국제사회에 필요하고 기여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의 다섯 가지 틀인 다문화 이해(Cultural Diversity), 평화로운 세계교육(Peace and Equity),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 인권존중(Human Rights), 세계화문제(Globalization)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글로벌 역량이며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의 틀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자극과 교육, 체험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역량강화의 내용인 셈이다.

### Ⅲ. 국내외 인재개발 현황

1. 국내 사례
  - 1) 국제이해교육활동
  - 2) 해외봉사활동
2. 외국 사례
  - 1) 호주
  - 2) 일본
  - 3) 중국
  - 4) 캐나다
  - 5) 핀란드



### III. 국내외 인재개발 현황

#### 1. 국내 사례

##### 1) 국제이해교육활동<sup>1)</sup>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평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등 국제이해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유네스코는 2001년 10월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치 포용 및 문화다양성 증진과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유네스코의 고등교육사업,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사업,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EFA: Education For All), 청소년 포럼, 다문화 포럼 등의 사업 안에는 글로벌 역량강화의 목적과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히 아세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내용과 목적은 어느 면으로 보아 ‘글로벌 역량’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국제이해교육의 영역은 총 다섯 가지로 다문화 이해(Cultural Diversity), 평화로운 세계교육(Peace and Equity),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 인권존중(Human Rights), 세계화문제(Globalization)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글로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제이해교육의 목적은 나라와 민족,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속의 인류가 평화롭게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및 윤리적 태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으로서 다양한 문화의 상대성과 보편적인 가치관을 함께 학습하는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sup>2)</sup>

청소년 글로벌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담론과 접근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

1) 이 내용은 글로벌역량개발전문가 2차 포럼 때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서 발표한 글이다.

2) 이삼열, 강순원, 한경구 외 (2003).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p.7.



이 지향하는 교육적 이해와 교육방법론이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만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교육의 결과물과 학회의 연구 자료들은 글로벌 역량의 이론적인 면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의 증진과 강화란 측면에서 미지센터<sup>3)</sup>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동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을 하고자 한다.

#### (1)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첫째로 글로벌역량의 요소로의 다문화 이해능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과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사업측면에서 살펴보자.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James A. Banks가 6가지 정도로 설명<sup>4)</sup>을 하고 있다. 다문화 이해 능력은 문화정체성확립을 통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 ① 자기이해-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
- ② 문화적·민족적 대안-민족·문화·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
- ③ 기능·태도 습득-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 습득(문화적 접근)
- ④ 차별감소-소수민족집단이 자신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차별감소
- ⑤ 전 지구적(Global)사회구성원-삶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읽기, 쓰기, 수리 능력제고(기술적 접근)
- ⑥ 시민 공동체(글로벌 공동체)구성을 위한 협력기능-글로벌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는 데 도움.

3) 미지의 세계라는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 활동, 교류의 중심지인 ‘서울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별칭이다.

4) James A. Banks 지음.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공역 (2008). <다문화교육 입문>(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pp.2~8.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잘 알고 있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와 같은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미래사회는 문화사업이 승패를 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과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글로벌 역량에 핵심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도시와 국가들도 미래 경제에 있어서 미래 사회는 문화를 어떻게 통합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Banks의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공동체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간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글로벌 역량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실례로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사대주의 때문에 구미·유럽권에 대한 문화, 언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 언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인지, 다문화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수직개념이 있는 것 같다. 마치 상류문화인 우리문화가 하류 문화인 소수문화를 동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흡수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가치관관 문화적 관점은 국제사회에 흐름과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지센터의 다문화이해증진 사업 중 세계문화유산통합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상이 일반인과 청소년층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문화유산통합이해교육’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주제어로 세계문화유산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우리 공동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또한 저 연령 청소년인 초등학교생이 주 대상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혹은 학급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어머니 나라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접근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편협되어 있을 수 있는 문화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로써 굴절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주류 문화자가 비주류 문화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 소속자

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수평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앞서 Banks가 언급한대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시민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력기능을 증진시키고 문화의 통합능력과 창의적 적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밖에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으로 한 달 동안 한 나라를 집중 조명하여 미지센터가 한 나라의 문화원 역할을 함으로써 각 나라의 문화, 언어, 음식, 전통 예술 등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대사관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주한외국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지센터를 일정한 국가의 문화원으로 탈바꿈하여 그 나라의 음식, 의상, 무용, 음악 등을 주제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거나, 해당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포함한 역사, 정치 등에 관한 강연을 실시하는 ‘대사관협력사업’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저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 (2) 평화와 평등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청소년 글로벌 역량 측면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이 평화와 평등에 대한 부분이다. 평화교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 ‘분쟁’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반전, 분쟁해결 등은 교육의 결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평화와 평등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삶, 역사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소유하게 된다. 문화상대주의적 가치관은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평화’와 ‘평등’이란 측면에서 미지는 국제활동설명회, 국제화상회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NGO의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국제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공존과 평화, 인권, 양성평등, 난민 등의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활동설명회를 2004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다.

IT기술을 접목한 국제화상회의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국제적 감각과 국제 이슈를 청소년들이 화상을 통해 토론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소개하는 사업이

다. 일반적인 문화이해부터 ‘북한의 핵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들이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방안과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계아 프로젝트’는 화상이라는 IT 기반의 기술과 사이버공간, 언어 자동 번역시스템을 이용한 초등학생 국제교류 사업으로 일본의 NPO 관계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911테러 당시 사고 비행기를 우연히 타지 않아 생명을 건지 두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이슬람문화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적대심은 어릴 적부터 문화적 이해와 교류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상공간과 화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감’을 자연스런 놀이와 만남을 통해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던 것이다.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아 프로젝트’는 언어의 차이를 배제하고, 그림 문자로 의사소통하게 함으로써 한국, 일본의 차이보다는 양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이 공통적인 무엇인가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화상으로 게임을 실시할 때도 국가별 대항이 아닌, 색깔로 구분된 팀별 대항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이를 뛰어 넘어 참가자들이 세계의 어린이라는 공통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

### (3)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2006년도 12월 지속가능(Sustainable)이란 단어가 미국의 언어분야 비영리 단체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GLM)에 의해 올해의 영어 단어로 선정됐다. 이제 글로벌 역량을 논하는 자리에 가면 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는 약방의 감초처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금의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그 성격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특별히 환경과 연관하여 개념이 더욱 명료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대 간 형평성, 양성평등, 사회적 관용, 문화 다양성,

빈곤 퇴치,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도시화,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이념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57차 유엔총회(2002년 12)에서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권고에 기초해 유엔은 2005 - 2014년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지정하였고, 유네스코가 그것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5)</sup>

미지센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서울시 자매도시 청소년들과 서울시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브로시스 프로젝트'(자매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9개의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모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스터디 캠프이다. 해마다 그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고 올 해로 4회 차를 맞이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태국에서 벤치마킹한 방콕자매도시 청소년 프로그램을 3월에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 (4) 인권존중에 관한 프로그램

UN 인권교육의 정의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기타 구분에 따른 사람들 간의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 우호,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형성에 기여하는 활동'(UNDHRE: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4)으로 표방하고 있다.

인권존중의 정신은 다문화 이해, 평화와 평등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국제사회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분야이다. 미지센터의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는 지구촌의 여러 이슈 중 난민과 인권, 그

5) 다음사이트를 참고. [http://www.unesco.or.kr/front/business/business\\_01\\_view.asp?articleid=277](http://www.unesco.or.kr/front/business/business_01_view.asp?articleid=277)

리고 나눔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부의 팽창은 이면에 가난의 팽창이기도 하다. 몇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제외 한 지구촌의 대부분에선 기아와 전쟁, 가난의 문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국제사회 문제와 인권, 가난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좁은 세계관을 교정하고 다른 세계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2007년도부터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국제 아트마일뮤럴프로젝트에서 진행하여온 희망의 운동화 프로젝트로 운동화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우간다와 방글라데시의 청소년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운동화에 담겨 전달되었다.

#### (5) 세계화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단일문화에서 다문화로의 변화, 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 문제가 한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2009년 4월 초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시작 된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계 20개국이 모여 방안과 협력을 이끄는 중차대한 정상회의이다. 20개국은 선진국 및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들의 모임으로 이 회의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위상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국제화의 문제는 이제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미지센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의견을 내는 국제회의 파견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제와 더불어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촌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경제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올해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모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에 한국 청소년들이 참석하였다. 2009년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기후회의 (Youth Climate Conference Asia)’는 유네스코쿠웨이트위원회가 주최한 국제

청소년 회의로서,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기후변화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3명이 한국 대표로 파견되었고 직접 한국 대표가 아시아 청소년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제회의 파견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① 초국가적인 문제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 고취
  - 범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내 규모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탈피
  -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 및 이해와 친선 도모
- ② 청소년의 국제 감각 고양 및 리더십 형성
  - 국제무대에서 세계의 관심사와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
  -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미지센터는 국제적 감각과 소통능력과 이해능력을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국제회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난해에는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정기총회, 제6차 홀로코스트와 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olocaust and Education), 제16차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총회(ICOMOS International Youth Forum & General Assembly), 제38차 세계민속축전기구 총회(CIOFF World Congress)에 청소년들을 파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리더 양성 사업은 청소년들(중, 고 재학생)이 20여 개의 개별 주제로 팀을 이뤄 국가를 탐방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주제에 따른 기관과 인물을 찾아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진단하고 조사·연구하게 되는데 사전교육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기반지식을 갖추고 국내 전문가의 교육과 안내를 받게 된다.

2007년에는 유럽의 농업정책, 남아공의 인종차별, 박물관 교육정책 등을

주제로 14개 팀이 우수한 조사 탐방결과를 내놓았다. 2008년에는 소방 방재 시스템과 도시디자인, 난민과 인권에 대한 조사 연구 등 19개 팀이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 2) 해외봉사활동<sup>6)</sup>

### (1)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활동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봉사단체로는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 Korea Overseas Volunteers Association)가 있다. <표 I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KOVA는 1989년 창설된 이래 연간 수백여명의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KOVA의 설립목적은 올바른 봉사활동문화와 제3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표 III-1> 주요연혁

1989. 4.	한국청년해외봉사단 (Korea Youth Volunteers) 창설계획 발표 * 집행기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0. 9.	제1기 4개국 44명 최초 파견
1991. 4.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91. 7.	7개국 37명 최초 파견(KOICA)
1995. 3.	국제협력요원/의사 파견 시작
1995.	‘한국해외봉사단’으로 개칭
2004.	파견인원 확대(220명 → 720명)
2004. 4.	팀제봉사단 파견
2004. 7.	NGO 봉사단 파견제도 도입
2004~2008	연간 800여명 파견
2009.	40개국 총 4,943명 봉사단원 파견
2009.	연간 1,000명 파견 예정,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재 32개국 1,304명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중

6) 이 내용은 글로벌역량개발전문가 1, 2차 포럼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국내외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열린사회로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파견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산업, 정보통신, 지역개발, 행정제도, 환경·여성 등 다양하며 직종은 컴퓨터교육, 한국어교육, 간호, 유아교육 등 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일반봉사단원의 경우 만 20세~62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파견국가는 아래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하다. 과거에는 아시아 중심이었으나 점차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표 III-2> 파견국가

아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중국, 태국, 피지 등
중남미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동	요르단 등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 르완다

KOVA는 활동회원간의 친목 뿐 아니라 해외봉사활동경험에서 쌓은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문화특강 등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KOVA는 주요 선진국들의 봉사단체와 비교할 때 역사도 짧고 연간활동 인원수도 적은 편이다.

〈표 III-3〉 세계 주요 해외봉사단

국가명	영국	미국	일본	국제연합(UN)
봉사단명	VSO (Voluntary Service Overseas)	Peace Corps	JOCV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사업성격	NGO	정부기관	정부산하	국제기구
감독기관	국제개발부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eace Corps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설립연도	1958년	1961년	1965년	1971년
파견·훈련	년 3회	수시모집, 파견현지훈련 3개월	년 3회 국내훈련 84일	수시파견 (분야별 등록제)
연간활동현황	1,382명	7,810명	3,620명	3,201명
활동기간	2년	2년	2년	3개월~6년
주요활동분야	교육, 보건, 농림수산	교육, 환경, 보건, 경제개발, 농업	교육, 보건, 농림수산, 기계, 가공	기술훈련, 인권, 재난구조 및 지역사회개발

## (2) 국제워크캠프기구 활동

국제워크캠프기구(IWO) 또한 청소년교류와 국제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국제워크캠프기구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준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개발에 힘쓰고 있다(아래 <표 III-4> 참조).

〈표 III-4〉 국제워크캠프기구의 국제활동프로그램

분 야	내 용	
자원봉사 활동	국제워크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회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자원봉사자 교류</li> <li>- 여러 나라 청소년이 참가하는 자원봉사와 체험, 교류</li> <li>- 해외 63개국 2,145명 파견</li> <li>- 유럽 1351, 아시아 585, 아메리카 139, 아프리카 70</li> <li>- 18개국 청소년 참가</li> <li>- 외국인 97 (18개국), 한국인 49, 캠프리더 24</li> </ul>
	MTV 장기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간 외국인 자원봉사, 문화교류, 학습활동 등 글로벌 교류</li> <li>- 유급이어도 외국인 영어교사가 오려고 않는 지방의 공부방에 배치</li> <li>- 연 14회 개최, 13개국 22명 참가</li> <li>- 4개 시도, 8개 기관과 협력 (경기, 충남, 전남, 전북)</li> </ul>
	주말워크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을 이용한 1박2일 지역 자원봉사</li> <li>- 지역에 기반한 NGO, 지역사회를 깊이 알고, 자원봉사 지원</li> <li>- 연 22회 개최, 316명 대학생 참가</li> <li>- 5개 시도, 8개 기관과 협력(경기, 인천, 강원, 충남, 부산)</li> </ul>
	YESia 청소년해외 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을 이용한 2주간의 중고생 해외자원봉사</li> <li>- 아시아 7개국에 142명 파견</li> <li>- 베트남, 인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li> </ul>
공존을 위한 활동	UNESCO 세계유산프로젝트 : 세계유산 보존 세미나,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보존활동 및 지역문화교류</li> <li>-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모여 2~3주간 자원봉사 및 세미나</li> <li>- UNESCO본부 세계유산센터와 국제자원봉사협회협력</li> <li>- 보건복지가족부 후원으로 항공료 등 지원으로 8개국에 23명 파견</li> <li>- 토고, 멕시코, 우크라이나, 이태리, 프랑스, 인니, 베트남, 태국</li> </ul>
	UPM 세계평화대행진 : 국제 평화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문화와 종교의 박물관, 인도에서 도보행진과 평화워크숍</li> <li>- 2005년부터 5년째 개최</li> <li>- 다국적 참가 프로그램으로 매년 한국 청소년 30명 참가</li> </ul>
	책날개를 단 아시아 : 아시아가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아시아 이주민과 자녀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고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공동체 캠페인</li> </ul>

분 야	내 용	
	되는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재단과 협력으로 책 구입, 운송 그리고 분류 및 배분활동</li> <li>- 아시아 7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태국, 베트남)</li> </ul>
훈련과 개발 활동	Asia-Europe Training for Trainers Semin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와 유럽의 청소년 실무자 대상 국제 트레이닝 세미나</li> <li>- 아시아유럽재단(ASEF)과 유네스코 국제자원봉사위원회 주최</li> <li>- 2003년부터 매년 개최, 한국에서 2003, 2006년 개최</li> </ul>
	Conference for Youth Volunte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과 자원봉사 교류를 위한 국제회의</li> <li>- 아시아와 유럽의 청소년, 자원봉사 실무자 대상</li> <li>- 아시아유럽재단(ASEF)과 유네스코 국제자원봉사위원회(CCIVS)주최</li> <li>- 2007년부터 매년 개최, 한국에서 2008년 개최</li> </ul>
	아시아유럽 청소년교류 (AEY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주제의 교류와 협력 도모</li> <li>- 아시아와 유럽의 청소년과 실무자 대상</li> <li>- 2001년부터 매년 개최</li> <li>- 아시아유럽재단 (ASEF)와 유네스코 국제자원봉사위원회(CCIVS)주최</li> </ul>

### (3) 한중문화청소년협회 활동

사단법인 한중문화청소년협회(약칭 미래숲)는 2002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로서 중국의 황사 및 사막화 방지 등 환경보전행사에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한중 양국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간 상호교류 및 이해를 통하여 건전하고 진실한 우의를 다지는 것을 기초로 긴밀한 양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및 우의림 조성 추진, 다방면에 걸친 동북아 지역 청소년 상호교류와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한중 양국의 미래지도자간 선린우호 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부 목표를 통하여 추진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숲은 ‘환경이라는 나무와 인재라는 나무를 키우는 곳’이라는 표어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 십년중수백년종인(十年種樹 百年種人)

미래숲의 목표는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인재를 심는다(十年種樹 百年種人)는 고사와 일치하기 때문에 작년 8월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이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서울숲에서 한중 양국의 청소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고사를 인용하여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양국의 청년대표와 함께 반송 한 그루를 심어 기념하였다. ‘즉 환경과 청년은 우리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미래의 자산’임을 양국 정상이 직접 몸으로 보인 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조성한 서울숲으로 후진타오 주석을 안내하여 한국의 환경정책을 소개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숲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녹색봉사단(Green Corps)은 매년 초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동북아 공통 이슈에 관심이 있는 우수한 대학(원)생 70여명을 선발 교육하여 중국의 사막화 지역에 가서 중국 청년들과 함께 식수활동을 함으로써 환경의 소중함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고 중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미래숲 녹색봉사단이 중국 사막지역에 나무를 심으러 가는 기간은 3월 말부터 5월 사이의 1주일이며 우리나라에 황사가 가장 많이 날아오는 봄철이며, 이 기간에 나무를 심는 것은 황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1주일간의 방중활동은 식수활동뿐 아니라 중국 학생들과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보호를 실천할 뿐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청년들과의 우정도 나누게 된다. 미래숲이 녹색봉사단을 통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친환경을 실천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인재’이다

녹색봉사단 지원자를 보면 대중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된 숫자보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녹색봉사단 프로그램이 지인들에게 권유할 만큼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녹색봉사단 전원은 활동 후 우리말과 영문 또는 중문(택 1) 에세이를 작성

함으로써 본인의 활동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우수작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활동 중에 만난 중국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으며, 11월에 중국우수대학생 대표단 방한시에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녹색봉사단은 친환경 마인드를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며 나아가 중국의 우수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2. 외국 사례<sup>7)</sup>

### 1) 호주의 청소년교육 :

글로벌 이슈의 등장에 따른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와 도전<sup>8)</sup>

본 연구는 세계적, 지역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호주의 청소년 정책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경쟁력과 경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본 논문은 청소년들이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있는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기의 진로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회변화의 주요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에 관련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글로벌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7) 아래에 제시된 외국학자들의 논문들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 국제회의 때 발표된 것이다. 논문의 원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8) 이 글은 Johanna Wyn교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있어 개인적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발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교육과 함께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다른 분야들을 통합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그들의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성과를 청소년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호주의 한 일간지는 최근 “청소년을 파괴시키는 정신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4명의 청소년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기사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오늘날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근 다른 일간지들에서도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비만을 청소년들의 새로운 건강문제로 강조해왔다. 호주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 및 문제접근방식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Wyn, 2009). 여러 선진국에서 이러한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오늘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최근 발간된 『청소년 건강과 복지: 교육과 복리의 문화정치학 Youth Health and Welfare: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and Wellbeing』(2009)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참여율 증가와 높은 수준의 국가 재정은 국민들의 보건수준의 향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난 20년간 호주 청소년들의 보건수준을 살펴본 결과, 비만이나 정신건강장애(불안 및 우울증 포함)에 관련된 새로운 건강문제가 청소년들 사이에 증가해온 반면 성적 전염병과 같은 질병들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연관성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본고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상태가 세계화의 진행과정과 연관된 사회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 교육과 건강은 이 분야에 대해 책임이 있는 여러 영역 내에서 보다 진지하

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세계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지역적 수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볼 수 있는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회변화의 결과에 대해 반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변화의 속도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배울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정보접근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에게 각자의 생활에서 또는 작업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계속해서 밀려드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방법을 배워 나가도록 기대한다. 동시에 오늘날 널리 퍼져있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고용현상 역시 살아남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최근 현대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과정으로 비롯된 견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매우 복잡해진 청소년기의 진로

업무속성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새로운 경제환경(Ball et al., 2001) 속에서 근무하며 “개인적” 선택(Furlong & Cartmel, 2007)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나타난 여러 위험들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의 변화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노동시장 출현이 갖고 있는 여러 위험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만들었다. 또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그들은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고 현재와 균형이 맞는 선택을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생인 동시에 직업을 갖게 될 직업인으로서 그들이 일생 동안 계속될 진로 설정을 중등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Stokes & Wyn, 2007).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고용 사이의 연관성은 점점 복잡해져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Wyn, 2006).



## 이전 세대에 비해 성인기를 일찍 맞고 있는 최근 청소년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의 청소년 연구자들이 지적인 바와 같이 성인기 전환 시점과 나이와의 연관성은 줄어들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뚜렷한 경계가 무너지면서(Dwyer et al., 2005)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일찍 성인생활의 새로운 생활패턴을 모방하게 되었다. 이를 유럽에서는 “새로운” 청소년(‘New’Youth) (Leccardi & Ruspini, 2006), 미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인기(‘Emerging’Adulthood)(Arnett, 2004), 영국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성인기의 “발명”(‘invention’of adulthood by young people)(Henderson et al., 2007)이라고 표현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모든 서구 국가의 청소년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데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최근의 평생 교육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청소년들에게 전에 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건강이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 청소년 정책은 탈공업화 경제에 기여할 적절한 기술과 성향을 가진 청소년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현대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훈련과정이나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다지고, 시민의식 활성화를 위한 바탕이 되는 인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은 특히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거나, 청소년 세계에도 주류가 있다는 개념, 즉 위험에 처해있거나 취약한 청소년은 도태될 수 있다는 사상에 동의하는 형태로 청소년 정책을 지배해왔다. 그 결과, 사회적 연대감과 복지,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관련된 사회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본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변화가 교육, 일, 가정생활이 갖는 의미와 속성, 그리고 건강과 삶의 복지를 영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Wyn, 2009). 최근 청소년 스스로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환경에서 학습을 해나가고, 일, 가정 그리고 여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찾고, 더불어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

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에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 연구자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기회이다.

다음은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발달, 특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간단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용적인 사업, 청소년 문제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 및 새로운 방향의 사례 탐구하면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청소년 연구자들에게 제시하는 과제와 기회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세계화가 청소년 복지에 미친 영향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도시 기반 경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 보장과 같은 사회구조의 안전성이 부실해지고 교육이나 고용체계간의 연관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생활한다. 노동시장 내부에서, 교육과 고용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관계 안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성인계층의 전통적인 상징과 공업국가 내의 전통적인 사회제도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동시에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성인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며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Furlong & Cartmel 2007 Wyn & Woodman, 2006 Beck & Beck-Gernsheim, 2002; Mizen, 2004).

사회변화는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이전 세대(특히 1945-1960년에 태어난 전쟁직후 세대)에 비해 다양한 가능성에 문을 열어 둔 현대 청소년에게 새로운 이슈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이를 "새로운 성인기(New Adulthood)" (Dwyer & Wyn, 2001)의 출현이라 칭하며, 성인들의 행동습관(예: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이른 성 경험)이나 삶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예: 다양한 진로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를 경험하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소년기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청소년기를 전통적인(혹은 옛날부터 기대된) 성인들의 삶의 양식, 즉 안정적인 직장, 결혼, 자녀, 주택구입 등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기 전, 인생에서 보다 "폭넓은"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이전 관점과 대비된다. 유럽의 청소년 연구자들은 "새로운 청소년(New Youth)"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삶의 양식(예: 30대의 결혼, 세대간의 상호의존, 평생교육과정에 입문)을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영국에서도 Henderson(2007) 등이 청소년기를 청소년들에 의한 성인기의 "발명(invention)"이라 주장하고, Furlong과 Cartmel (2007)은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 또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중심은 청소년들이 불확실한 시간을 통해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유동적이며 동시에 기업가적이고 여러 상황에 대처 가능한 능력을 발달시켜 그들만의 진로를 찾아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데 있다. 이러한 능력은 빈곤과 불안이 포함된 도시경제의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고용, 그리고 실업양상과 관계가 있다. 고용과 실업이 혼재하는 상황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서 '선택'을 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McLeod & Yates 2006; White & Wyn, 2007; Wyn & Woodman 2006). 이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일부 해법이 과거, 현재, 미래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일을 하는 의미 있는 삶 속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서술하는 해법에 비해 효과적임을 드러낸다(Wyn , 2007).

이러한 발달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유동성을 갖추며,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가이드 할 수 있는 개인적 해법을 발달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또는 그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와 학습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은 신중한 시간관리와 효과적인 개인관리를 요구한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 둘째, 그들의 인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모두 개인적인 책임이 되어 버렸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양호한 건강상태와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은 바람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 책임하에 있는 건강, 체력 그리고 복지의 표준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 종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은 ‘자신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 the Self)’를 참고하여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관리를 향한 오리엔테이션과 연관된 것으로 다양한 ‘성공의 법칙, 자기감시 시작, 자기 몸에 대한 관찰’ 및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압박과 기대를 젊은 여성들 사이의 높은 불안(Donald et al., 2000; Wyn, 2000; Harris, 2002) 및 청소년들의 자살(Fullagar, 2003)과 연관시켜 왔다.

###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한 모순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건강한 그룹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강에 관한 문제들, 가령 약물중독이나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환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이나 비만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해왔다(<표 III-5> 참조). 교육이나 복지수준의 향상은 건강상태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은 모순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높은 참여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수준이 청소년들에게 건강상태의 양호, 개선 대신 오히려 건강에 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이다(AIHW, 2007). 이러한 경향은 캐나다(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6) 및 뉴질랜드(Ministry of Health,

2002), 영국(National statistics, 2004)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조사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HIV/ AIDS, 또는 다산(多産)에 관한 문제가 청소년에 관한 주된 문제이다(Boyd, 2005). 청소년 연구자들이 국내,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건강상태를 조사해본 결과, 사회경제적 위치에 기반을 둔 건강상태의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모든 국가에서 청소년 건강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민감한 지표이다(Keleher, 2008). 예를 들면 호주 원주민 청소년들의 건강은 원주민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의 건강에 비해 극단적이고 만성적으로 악화상태에 있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에 처한 가정환경, 또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 역시 그들보다 특권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 청소년 연구자들의 도전과제와 기회

그 동안 호주를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 교육이나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변화,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이 자주 있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체계 변화는 현실에서 그것들을 둘러싼 세계의 변화보다도 훨씬 미미하다. 이것은 청소년 연구자들에게 앞으로의 과제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현재 교육 및 건강관리체계를 현대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방식과 정책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청소년 복지에 관한 제도적 업무방식을 바꿀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과제의 근원이 세계화와 관련된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과정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지역적 수준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보다 폭넓은 협력 속에서 청소년 연구자들이 a)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앞장서고, b) 교육, 보건, 청소년 등 각 분야의 경계를 넘어 제도적 변화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 <표 III-5> 오늘날 호주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한 몇 가지 사실

- 호주 원주민 청소년들의 사망률은 원주민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보다 4배가 넘고 남자 원주민 청소년의 사망률은 여자 원주민 청소년의 2배이다 (AIHW 2007).
- 마을의 안전은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심리적 안정상태 및 교육적 성과와 관련이 있다(Meyers & Miller, 2004 AIHW, 2007).
  - 감정 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36%가 가난하거나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 중 단 13%만이 감정 또는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
  - 사회적 지원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 비해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다.
- 청소년들 중 25%가 정신적 장애를 경험한다(AIHW, 2007).
-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확률이 25%인 데 비해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이 정신적 장애를 겪을 확률은 35%로 더 높았다(AIHW, 2007).
- 실업상태에 있는 또는 노동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적 장애를 겪을 확률이 더 높다(AIHW, 2007).
- 불법약물(12%)과 알코올(11%)이 남자 청소년들의 건강파괴에 가장 큰 원인이다(여자 청소년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까운 상대로부터의 강간으로 밝혀졌다) (AIHW, 2007)
- 알코올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밝혀졌는데 2007년을 기준으로 11세에서 24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의 27.3%,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의 19.6%가 그해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었다(Mission Australia, 2007).
- 25%의 청소년들이 2004년에서 2005년에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되었고 이것은 2001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며, 전체 청소년의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활동에 대한 지침을 권고 받았다(AIHW, 2007).
- 2007년 11세에서 24세 사이의 호주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모였으며(32.3%) 가족간의 불화(29.3%) 및 스트레스 관리(26.9%) 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Mission Australia, 2007).

### 개념에 대한 재정립: ‘청소년’에 대한 재고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시기에, 제도적인 관행들은 청소년들의 실제 삶보다 뒤쳐질 수 있다(Wyn & White, 1997; Cohen, 1997). <표 III-6>은 호주에서 대규모의 중등교육이 이루어진 공업화 시대와 대규모의 대학 및 전

문적인 교육이 증가한 탈공업화 시대에 존재하는 상이한 청소년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에 기반을 둔 경제에 기여하는 기존의 나이에 기초한 제도권 학습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탈산업화 사회에서 나이가 갖는 의미가 변화했음을 인정하는 쪽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을 정의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전시대와 같이 청소년기를 더 이상 성인기와 달리 뚜렷이 다른 단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표에서는 오늘날 청소년의 개념과 실제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전시대의 현실에 맞는 청소년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 III-6> 청소년: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탐구

산업화 시대 (1945년-1975년까지의 근대)	탈산업화 시대 (1976년 이후의 근대 후기)
과도기로서의 청소년 - 성인과 명백히 구별되는 단계	성인들의 관행을 넘나드는 청소년 -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경계 모호
사회의 미래로서의 청소년: 미래 희망이자 위협적인 존재	의사 결정권자 또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사이의 중개인으로서 현재에 기여하는 청소년
미래를 향한 청소년 - 성인으로 전환되어 가는 존재	참여하는 청소년 - 현재에도 존재하며 성인으로 전환되어 가는 존재
성인기 - 특정 도달지점	성인기 - 자신에 대한 재발견 및 자기계발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하는 상태
부족한 존재로서의 청소년(학생, 수동적 존재)	파트너로서의 청소년(공동학습자, 자기관리)
국가 책임하의 청소년(학생)	소비자로서의 청소년(고객, 선택권을 가진 자)
보편성 및 위험	다양성

출처: Wyn, 2009.

최근의 사회적 관행 및 상호관계가 대대로 내려오던 성인과 청소년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지금 청소년기를 정해진 행동양식이나 관습으로의 진입시기로 보는 것은 청소년문제를 점점 증가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수립자나 실행자에게 진지한 과제를 제시한다. 청소년들의 삶의 궤도의 다양성, 그들이 해야 하는 선택의 복잡성,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주위환경의 불확실성 등은 기존의 낡은 모습의 지배구조 또는 정책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불확실성의 증가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의 전통적인 진행과정 및 경로의 파괴는 현대 청소년들을 이끌고 지원할 적절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청소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청소년 연구자들의 과제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청소년 연구에 중요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a) 청소년들이 그들의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는 참여실습, b) 교육, 보건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다른 영역과의 긴밀한 협의, c)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청소년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달에 기반을 둔 실험적 증거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 지역의 대응 방안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a) 정책결정참여

각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청소년들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관 없이 진행되어 왔다. 프로그램 제작 및 정책을 개발할 때 청소년들을 관여시키는 것은 그들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중하



게 계획된 진행과정이나 정책,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을 관여시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발전되어 왔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성공할 확률이 높다 (Youth Affairs Council of Victoria, 2004a; Holdsworth et al., 2008). 청소년들의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실제로 그 계획들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동시에 청소년들이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력을 돕는 중요한 방안이다.

청소년들을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Youth Affairs Council of Victoria 2004a; 2004b; Wierenga et al., 2003). 일례로, 학생활동그룹(Student Action Teams)은 학습에 대한 설계 및 이행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1999년 이후 빅토리아의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지원해온 참여사업이다. 그들은 빅토리아 교육부, 빅토리아 사법부 및 빅토리아 건강진흥 재단 등 각 부문이 공동으로 협력하였다. 이 프로젝트 사례는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주위에 산책 및 조깅트랙을 만드는 것, 지역 교통상황을 조사하여 안전을 위해 학교주위에 교차로 설치를 지역사회에 건의하는 것, 교내에서 따돌림이 없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적절한 권장조치를 만드는 것 등이다(Holdsworth et al., 2003). 학생활동그룹의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학생들은 세가지 중요한 영역에 걸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과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목적의식을 갖는 것, 통제력을 갖는 것, 그리고 소속감을 갖는 것이었다(Holdsworth et al., 2003).

#### b)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

청소년 복지가 영역간, 기관간 그리고 관련 서비스 사이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은 강력한 리더십과 학교운영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Wierenga et al., 2003; Tett et al., 2003). 각 분야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는 통상

적으로 일부 분야가 통합되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갈라진 틈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복합적’인데 반해 사회서비스나 조직은 서로 긴밀하지 않고 각각 흩어져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Wierenga et al., 2003; Harris, 2005).

협력기관에 의한 각 분야간의 협력은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또 지역사회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10MMM”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학교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잘 드러나도록 했고, 사회 각 분야의 서비스가 건강이나 복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청소년과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청소년 건강 또는 복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벽 중의 하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예: 교육)과 예방(예: 정신적 건강문제나 질병에 대한 검사)이나 치료(예: 치료, 상담 및 의학적 관심)를 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특정한 서비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이다. 각각의 청소년들을 위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각 기관의 전문가들은 그들 분야의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 c) 전문적인 학습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복지를 다루는 사업에 관한 문헌에서는 종종 개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이 가진 청사진에 대해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추진하여 달성한 중요한 성과를 예로 든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조직이 똑같은 아이디어의 빈번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 단지 새로운 실행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불필요한 면이 있다. 가끔 프로그램 실행자들은 여러 분야에 걸친 통합적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정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예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자금이 중단되었을 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새롭고 전문적인 실습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참신한 지식창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여기에 연구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청소년들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서로 다른 사회 각 분야, 서비스 및 시스템의 효과적인 통합은 새로운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은 본인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각 분야를 넘나들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참여가 더욱 활발하고 여러 분야가 통합된 작업을 수행할 때 새로운 방안의 효과와 도전과제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 교사, 청소년 연구가, 상담자, 간호사, 일반적인 계획실행자 및 사회복지가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각각의 영역 안에서 따로따로 배우기 때문이다. 각각의 전문분야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는 서로 다른 전문용어들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각 전문분야의 경계를 넘어 함께 작업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의학, 간호, 교육, 사회분야, 청소년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함께 교육에 참가할 기회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효과적이고 잘 알려진 대응책들은 보건 및 교육 시스템이 지속적인 전문적 학습에 대해 대폭 투자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와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교사와 학교 관련 근로자들은 잠재적으로 청소년들의 복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모든 전문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변화하는 그들의 업무성격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지속적인 전문학습에 대한 투자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부 중요한 기대도 부응하지 못했다.

## 결론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전문가들은 갈수록 새로운 업무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을 만드는 의사결정자들은 새로운 글로벌 사회에 점점 맞지 않는 과거 해묵은 제도적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복지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청소년 연구가들을 위한 주요과제에 대해 글로벌 이슈와 도전과제를 지역적 수준에서 조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연구자의 과제와 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 처신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
- 청소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청소년 복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관련기관 및 여러 사회제도에 통합한다.

청소년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종종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표출되지만 갈수록 세계적 변화에 발맞춰 가는 2000년대 후반을 사는 청소년들이 겪는 새로운 현실과 아직까지도 1950년대 호주 공업 사회에 이바지 하였던 사회구조, 시스템, 개념에 기반을 둔 보건 및 교육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과 각 분야간 통합, 이 두 가지 분야는 제도적 변화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연구자들은 사회변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피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사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어 나감으로써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문가들은 사회 서비스와 조직간에 뚜렷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가 긴밀히 협력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청소년 복지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는 보건이나 교육분야에서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관간의 협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고용주들이 사회 각 분야 및 학문, 전문적 경계의 업무 구별을 넘어 통합을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인식하는 속도는 느리다.

전문가들은 전문가적 관점으로 훈련된 것에 의존해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보건과 복지에 가장 중요한 장애 중 하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예: 교육)과 예방(예: 정신적 건강문제나 질병에 대한 검사)이나 치료(예: 치료, 상담, 의학적 관심)를 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특정한 서비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

인한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바와 같이 청소년 개념과 제도의 재정립 필요성은 강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오래된 문제들 또한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호주에서 복지, 건강 그리고 교육성과가 가장 시스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은 어린 원주민 청소년과 빈곤,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제도적 갱신에 대한 과제는 사회적 소외, 소외의 진행과정(가난과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인종차별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전체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 참 고 문 헌

-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AIFS). 2006. Snapshots of Australian Families with Adolescents, AIFS: Melbourne.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7 Young Australians, Their Health and Wellbeing 2007, Cat no. PHE 87,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Canberra.
- Beck, U. and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Sage: London
-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6. Improving the Health of Canadians: An Introduction to Health in Urban Places, CIHI: Ottawa.
- Cohen, P. 1997, Rethinking the Youth Question, London: MacMillan.
- Dwyer, P. and Wyn, J. 2001. Youth, education and risk: Facing the future, RoutledgeFalmer: London.
- Fullagar, S. 2003. Wasted lives. The social dynamics of shame and youth suicide, Journal of Sociology, 39(3), pp. 291-307.
- Furlong, A., and Cartmel, F. 2007. Young People and Social Change, New Perspectives (second edition) McGraw Hill / Open University Press: Maidenhead.
- Harris, A. 2002. Young Australian Women: Circumstances and Aspirations, Youth Studies Australia, 21(4): 32-37.
- Harris, S. 2005. Professionals, partnerships and learning in changing times,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vol. 15, no. 1, pp. 71-86.
- Henderson, S., Holland, J., McGrellis, S., Sharpe, S., Thomson, R with Grigoriou, T. 2007. Inventing Adulthoods, A Biographical Approach to Youth Transitions, Sage: London.
- Holdsworth, R., Cahill, H., and Smith, G. 2003. Student Action Teams: Phase 2 - 2001-2002, An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and Impact, Research Report 22, Australian Youth Research Centre: Melbourne.
- Keleher, H (Ed). 2008. Understanding Health, A Determinants Approach (2ndEd), Oxford University Press: Melbourne.
- Leccardi, C. and Ruspini, E., (Eds). 2006. New Youth? Young people, generations and family life (Aldershot: Ashgate).
- McLeod, J. and Yates, L. 2006. Making modern liv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Mission Australia. 2007. National Survey of Young Australians 2007, Mission Australia:

- Sydney.
- Mizen, P. 2004. *The Changing State of Youth*, Palgrave: New York.
- National Statistics. 2004. *The Health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Londo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b.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 Smyth, J., and McInerney, P. 2007. *Teachers in the Middle, Reclaiming the Wasteland of the Adolescent Years of Schooling*, Peter Lang: New York.
- Sointu, E. 2005. The rise of an ideal: tracing changing discourses of wellbeing. *The Sociological Review*, 255-274.
- Tett, L., Crowther, J. and O'Hara, P. 2003. Collaborative partnerships in community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Policy*, vol. 18, no. 1, pp. 37-51.
- Thomson, P. and Holdsworth, R. 2003. Theorising change in the educational 'field': Re-readings of student participation 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6(4) 371-391.
- Wierenga, A, with Wood, A., Trenbath, G., Kelly, J., and Vidakovic, O. 2003. *Sharing a New Story: Young People and Decision-making*, Working Paper 23, Australian Youth Research Centre: Melbourne.
- Wierenga, A. 2005. Practitioner learning for inter-agency collaboration, *Journal of Community Work and Community Development*, 6 (Spring).
- Wyn J. 2000. The Postmodern Girl: Education, "success" and the construction of girls' identities, in *Researching Youth*, ed. J. McLeod & K. Malone, Australian Clearinghouse for Youth Studies, Hobart: pp. 59-70.
- Wyn, J. 2008. Educating for Modernity, in A. Furlong (Ed), *Handbook on Youth* (further details to be provided)
- Wyn, J. & Stokes, H. 2000. Young People in Rural Australia in the 1990s: Challenges and Community Action, in *The Dead Centre: Regional Australia in Crisis*, ed. I. Falk, Allen and Unwin, Sydney: pp. 32-41.
- Wyn, J. 2007. Learning to become somebody well: challenges for educational policy, *Australian Educational Researcher*, 34(3) 35-52.
- Wyn, J. and Woodman D. 2006. Generation, Youth and Social Change in Australia. *Journal of Youth Studies*, 9(4), 495-514.
- Youth Affairs Council of Victoria, 2004. *Consulting Young People about their Ideas and Opinions*, Youth Affairs Council of Victoria: Melbourne.

## 2) 일본의 청소년고용: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 전략<sup>9)</sup>

본 논문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네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1990대 초 이후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와 관련 있는 청소년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고, 다음으로는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의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을 강력한 ‘이중구조(dualism)’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현격한 차이를 일컫는다. 1990년대 초 이래,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는 감소한 반면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저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조건의 유례없는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변화 추세는 ‘프리터(freeter)’와 ‘니트족(NEET)’이라는 두 키워드로 설명되어 왔다. 이 두 키워드는 청소년 고용문제가 청소년에 기인함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필자는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즉, 경제변동과 일본 인구의 불균형한 연령 구성의 ‘불행한 조우’, 그리고 경제세계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수요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장기적이며 전세계적인 변화’, 마지막으로 ‘일본 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라는 최소 세 가지 원인은 인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 내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직업 관련성 증진, 신규 졸업생의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 관행 폐지, 임금 및 직업상 기회에 관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차이 축소, 기업 외부의 저렴한 공공 직업훈련의 확대 및 졸업생을 포함한 한층 더 광범위한 청소년에게 취업안 내 및 상담기회 부여 등 여러 수단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이중구조(dualism)’를 가진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은

9) 이 글은 일본의 Yuki Honda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다 유동적이고, 공평하며, 공개적인 시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의 복지(well-being) 및 사회 지속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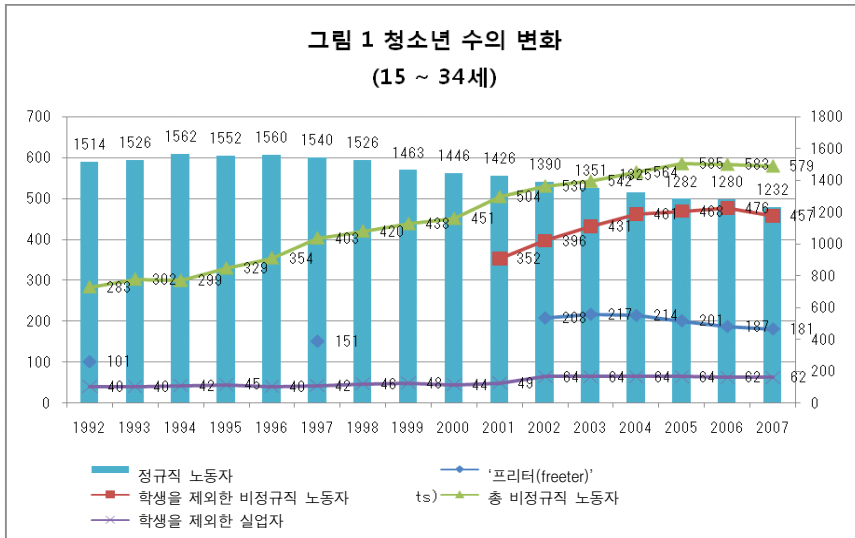
## 서론

본 논문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네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1990대 초 이후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와 관련 있는 청소년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고, 다음으로는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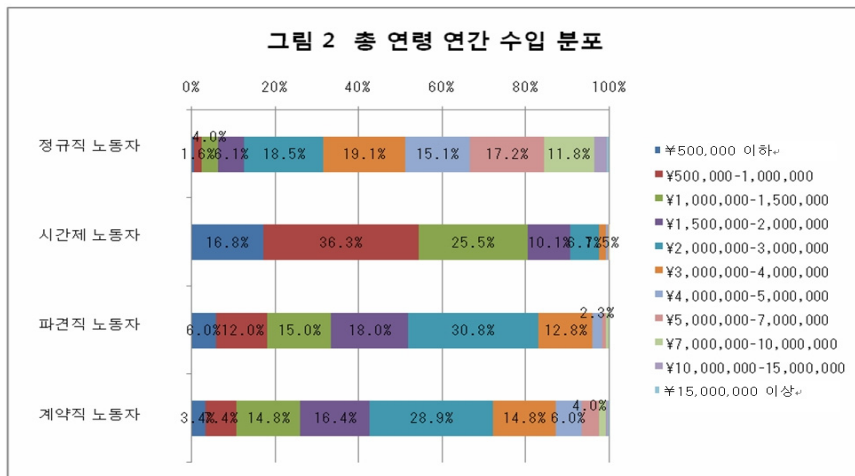
최근의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을 강력한 ‘이중구조(dualism)’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현격한 차이를 일컫는다 (OECD 2009). ‘정규직 노동자’는 일생동안은 아니더라도 항구적인, 전임 노동자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간제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및 파견직 노동자로 구성된다. 1990년대 초 이래,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는 감소한 반면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저하게 증가해왔다([그림 III-1] 참조). 2007년 당시 15~24세 청소년 노동자의 30%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에 속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조건의 유례없는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는 명백한 고용불안과 빈곤을 겪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좁다는 사실은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불안과 절망을 증대시킨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극도로 낮으며([그림 III-2]),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계속 비숙련의 장래성 없는 직종에 배치된다. 또한 빈번한 이직을 요구 받기 때문에 직장 동료와의 우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림 Ⅲ-1] 청소년수의 변화

출처: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총무성



[그림 Ⅲ-2] 총 연령 연간 수입분포

출처: 2008년 백서, 후생노동성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3명 중 한 명은 어려운 생활상태에 직면해있지만, 노동문제로 인해 소요사태를 겪은 프랑스와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사회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지 현재 많은 일본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모의 수입과 저축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80%의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부모의 재정지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몇 십 년 후 부모세대가 사라지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근로자의 상당수가 ‘공공 생계보호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사회는 머지않아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와의 긴장관계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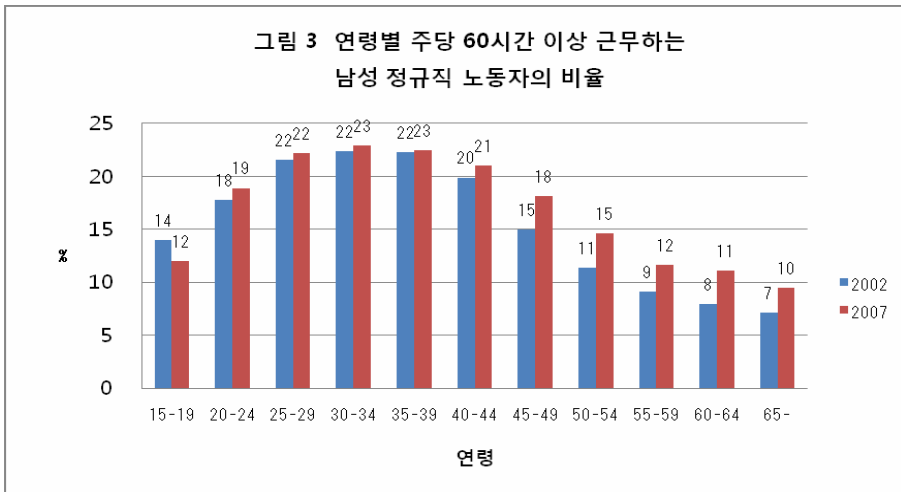
비정규직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일주일간 결근하는 경우 일자리를 잃기 쉽다. 이는 특히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명백히 나타난다. 이들은 일주일만 일을 쉬어도 집세를 못 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주거를 상실, 청소년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매일 밤을 인터넷 카페에서 보내는 ‘네트카페난민(net cafe refugee)’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도 이전과 같은 특별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정규직 채용이 급감했다.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업무량은 증가했으며, 그 결과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업무량과 함께 근무시간도 늘어났지만([그림 III-3]), 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전 세대가 향유한 근속연수에 근거한 임금상승을 보장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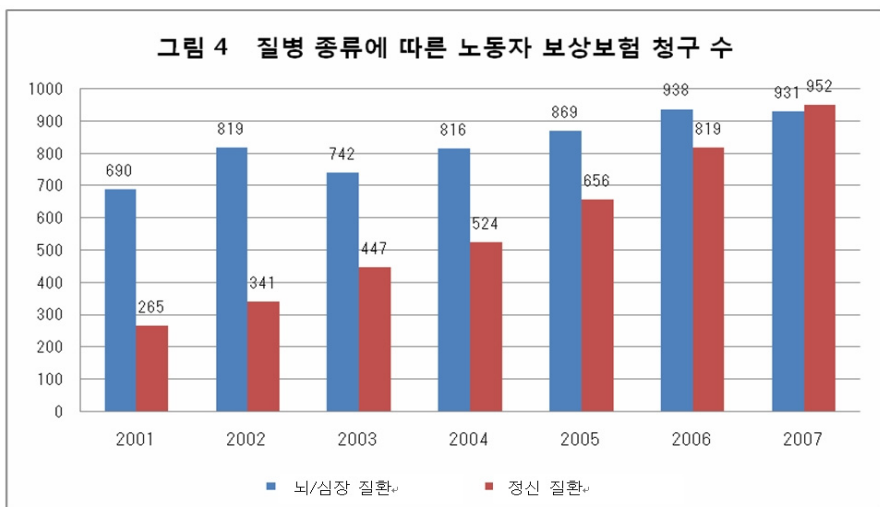
성과급제의 도입, 직장 내 고용형태 다변화, 동일 연령군 청소년 채용 감소 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점 더 동료들간 동지애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대신, 적대적 관계 증대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III-4]).

정규직 및 비정규직 청소년 노동자 모두가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하얀 지옥(white hell)과 검은 지옥(black hell)의 공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에는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제 역할

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체가 악순환의 원인인 것이다.



[그림 Ⅲ-3] 연령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출처: 2007년, 고용 구조 기초 조사, 총무성



[그림 Ⅲ-4] 질병종류에 따른 노동자 보상보험 청구 수  
출처: 후생성

## 청소년에 대한 담론 변화

본 논문은 두 번째로 청소년에 대한 담론이 최근 수 십 년간 변화해온 방식을 논하고자 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변화 추세는 한 구직광고 잡지 편집자가 고안한 키워드인 ‘프리터(freeter)’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프리터’란 비전속 시간제 노동자를 의미한다(Honda, 2005). 1980년대 말 프리터라는 용어가 부상할 당시에는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청소년’이라는 의미를 내포했다. 그러나 1990년 대 말에는 프리터는 ‘게으르고 의존적인 청소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2000년대 초 본 용어는 그 의미가 ‘병적으로 아무데도 가지 않는 청소년’으로 다시 한 번 변화했다. 프리터라는 용어 이미지의 이러한 변천으로 인해, 사람들은 청소년 고용문제가 청소년의 탓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2004년 이래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교육을 받는 학생도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안하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의 머리글자를 딴 ‘NEET(니트족)’라는 용어가 일본 전역에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혼다 et al. 2006). 일본에서 니트족이라는 용어는 본 용어가 처음 고안된 영국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다.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니트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상태의 청소년은 그 범주에서 배제된다. 이는 ‘일할 의욕을 결여한 청소년’이라는 니트족의 이미지를 유발했다. 대부분의 일본 니트족이 노동자층이나 하류층이 아닌 중산층 출신이라는 통념도 이러한 틀에 박힌 생각을 심화시켰다. 일본에서 니트족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광범위한 연령군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그 결과 니트족은 8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도 나왔다. 이는 일본 청소년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심화시켰다.

대중매체는 일본 내 니트족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 대중매체가 니트족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니트족이라는 것을 청소년의 심리학적 문제로 간주한다. 둘째,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키코모리(hikikomori)’와 니트족 간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셋째, 종종 부모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넷째, 니트족을 패배자로 낙인찍고, 경멸적인 용어로 그

특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중매체는 본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종종 과학적 근거 없이 단언한다.

니트족이라는 부정적 용어에 대립되는 ‘닌겐료쿠(ningenryoku)’ 즉, ‘인간능력(human competence)’라는 용어가 예기된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1990년대 말 이후, 인간능력이라는 용어는 대중매체 및 정책문서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인간능력의 사용은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능력 같은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특성과 상호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 문제는 그들의 인간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니트족에 관한 경험적 자료는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일할 의지가 없는 청소년으로서의 니트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옳지 않다. 대부분의 니트족은 다양한 가족 내외적 활동에 참여하는, 일할 의지가 있거나, 즉각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일부 니트족들은 비활동적이지만, 이는 그들의 정신적 문제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및 직장에서의 괴로운 경험, 중퇴의 경험, 부모의 사망과 같은 사회적 요소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확산시킨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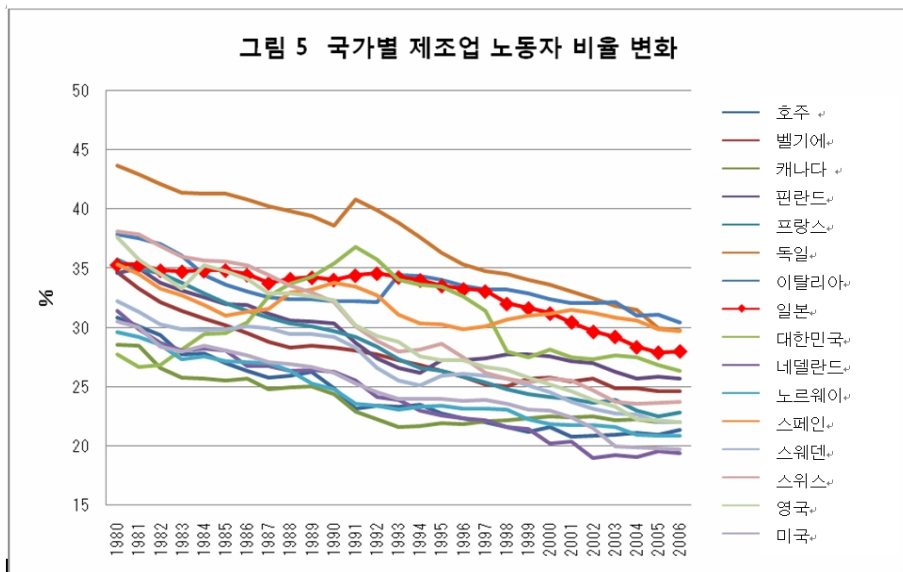
### 청소년 노동 시장 변화의 원인

동 논문에서 세 번째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과 기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경제변동과 일본 인구의 불균형한 연령 구성의 ‘불행한 조우’를 들 수 있다. 일본 인구 내에는 거대한 연령 집단이 존재하는데, 한 집단은 1940년대 말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이고, 다른 한 집단은 1970년대 초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1990년대 ‘거품경제’하에서 일본 기업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거품이 붕괴된 후, 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정리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법으로 인해 이들은 일본 기업의 막중한 부담이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1차 베이비붐

세대는 50대가 되었고, 그들의 인건비는 최고조에 달했다. 기업에 가중된 이러한 이중고는 기업의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 신규 채용을 막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게 했다. 오늘날 노동인구의 연령 불균형은 점차 증대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출생한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의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은 계속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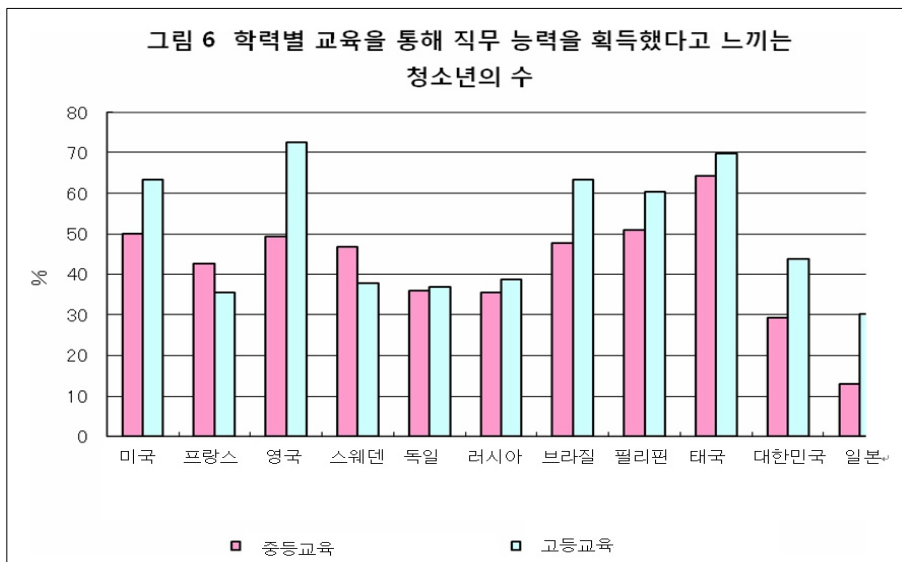
또 다른 근로 형태 변화 이유로는 경제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 수요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장기적이며 세계적인 변화’이다. 모든 선진국은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개편해왔다([그림 III-5]). 제조업은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경향은 값싼 인건비로 ‘적시에’ 동원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확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계속적이고 점진적 변화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심각한 전세계적 도전과제를 낳고 있다.



[그림 III-5] 국가별 제조업 노동자 비율 변화

출처: OECD, 노동력 통계(Labor Force Statistics)

세 번째 요소인 ‘일본 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는 청소년 노동자의 상황을 일층 악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일본 학교는 교육이 직업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하는데 주저해 왔으며([그림III-6]), 신규 졸업생의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 역시 일본 특유의 관행이다. 학교 교육의 직업 관련성 결여로 인해 청소년은 그들의 시장 가치 및 고용주와의 협상력을 상실한다. 신규 졸업생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 관행으로 인해, 학교 및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구직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이후 거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필자는 ‘일본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가 변해야 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본 논문의 마지막 주제인 일본 청소년의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취해야 할 수단으로 이어진다.



[그림 III-6] 학력별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획득했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수

출처: 제 6차 세계 청소년 조사(World Youth Survey), 1998년,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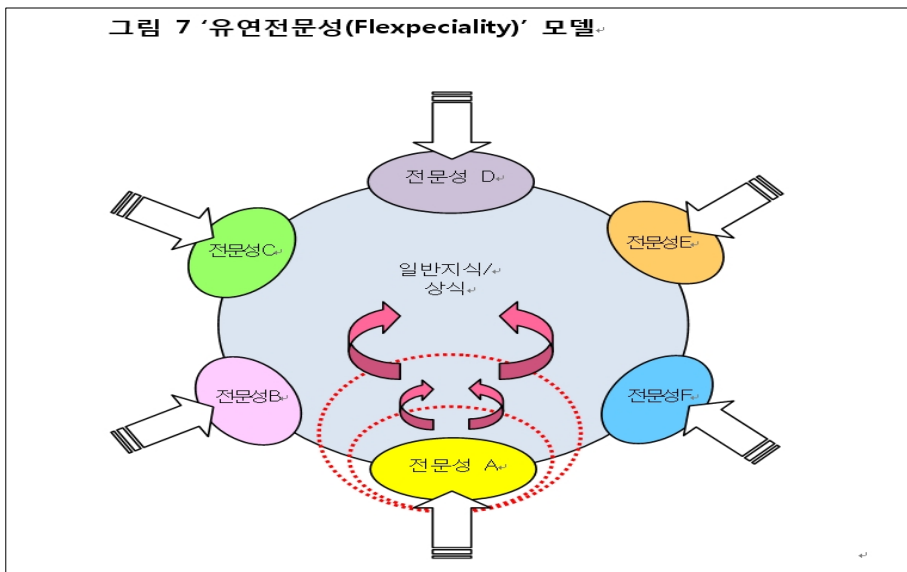
## 필요 조치

‘일본 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변화 및 일본 청소년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필수적이다.



첫째, 교육이 기업의 직업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 및 대학의 직업 관련 교육 콘텐츠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에 극히 드문 기술전문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환경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직업관련 교육 콘텐츠는 각각의 전문영역의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충분한 유연성을 수용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유연전문성(flexpeciality)’이라는 개념은 교육을 통해 향상된 역량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그림 III-7]).

둘째, 신규 졸업생에게만 개방된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및 졸업 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사람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가 될 기회는 적절한 역량, 경험 및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졸업 직후 정규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리하게 대우받는 현 상황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7] 유연전문성모델

셋째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이 일정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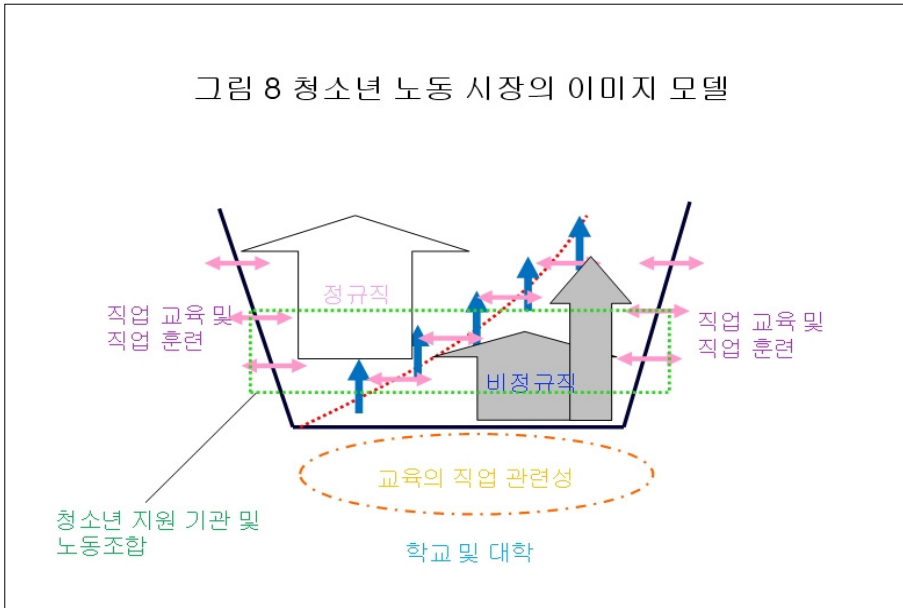
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인상되어야 한다. 필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계하는 과도기적 노동시장 창출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 과도기적 노동시장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다 짧은 노동시간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층 더 안정적인 노동조건과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기업 외부의 직업훈련 기회가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 데, 이는 기업 내부 직업 훈련 예산이 최근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조차 더 이상 그들의 직능수준 향상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직업능력 증대 기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에서 매우 한정되어 있는 기업 외부의 보다 저렴한 공공직업훈련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실업자 및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훈련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광범위한 청소년에게 취업안내 및 상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취업안내 기회는 재학생에게만 한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안내 및 상담 기회는 졸업생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로 다양한 원조와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을 늘릴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노동조합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고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아래 [그림 III-8]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이미지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sm)'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력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듯하다. 말할 나위 없이 청소년 노동시장의 개혁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단호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의 복지(well-being) 및 사회 지속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림 8 청소년 노동 시장의 이미지 모델



[그림 Ⅲ-8] 청소년노동시장의 이미지모델

## 참고문헌

- Honda, Y., 2005, "'Freeters': Young Atypical Workers in Japan," Japan Labor Review, Vol. 2, No. 3.
- Honda, Y., Naito, A., and Gotoh, K., 2006, "NEET" tte Iuna! (Don't Say "NEET"!), Kobunsha.
- OECD, 2009, Jobs for Youth: Japan, OECD.

### 3) 중국의 청소년의식:

#### 청소년 센터 내 특별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sup>10)</sup>

##### 1. 서론

지난 10년에 걸쳐 청소년 연구가, 조사자, 교사, 정부관리 그리고 일부 부모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는 있지만, 청소년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 학교가 어디에나 있다는 그 점에 기대서는 안 된다. 때문에 청소년 발달을 장려하는데 있어 방과 후 활동의 역할은 청소년 발달이라는 주제를 다룬 많은 학계 논문에서 전에 없이 강조되어 왔다(Eccles and Gootman, 2002; Larson, 2000 Eccles and Barber, 1999; Barber et al., 2001; Mahoney et al., 2002.)

사회학, 여가 연구, 스포츠 심리학 및 청소년 발달을 통해 특별교육활동 참여가 주는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 특별교육활동은 관련 연구 결과 대부분에서 드러나듯 그렇지 않은 활동의 경우보다 청소년 발달에 보다 분명 유익했다. 체계적이거나 구조화된 활동 참여는 성취, 학교 참여 및 학교 만족을 포함한 학문적 성과와 연관되었다(Eccles and Barber, 1999). 자존심 증가 및 우울증 감소를 포함해 참여와 정서적 조정 간에 연계가 있음이 기타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Barber et al., 2001; Mahoney et al., 2002). 일부 청소년 발달 연구자들이 정기적인 참가일정, 성인 직원에 의한 기능 계발 강조 및 의미 있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회처럼, 청소년의 긍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별교육 활동에 적합한 체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명시한 반면(Eccles and Gootman, 2002), 일부 다른 학자는 또

10) 본 연구는 중화전국청년연합회(2008GH330) 및 중국 청소년센터 연합이 저자에게 제공한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도움을 주신 Dong Nan, Hu Xin-zhi, Zhou Xiong, 그리고 Ji Nan에게 감사를 전한다. 본 논문에 관한 서신 주소는 Lu De-ping, Academy of Youth Development, China Youth University for Political Science, No 25, West Third Ring North Road, Beijing 100089다. 전자메일 주소는 depinglu@sina.com다.

구조화된 특별교육활동이나 과도한 일정의 특별교육 활동 배치가 청소년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Coleman 1961, Mahoney et al., 2005, 2006).

본 논문의 취지는 중국 환경 내의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구조화된 특별교육활동의 부정적 영향과 이점 모두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학령에 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초기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했지만, 이들의 공공 이미지는 시장 지향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지난 20년에 걸쳐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센터는 발전하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이유 또한 밝혀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센터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가는 언제나 시설, 공간 및 예산 같은 청소년 센터의 객관적 조건 측면과 관계된 이유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센터 운영의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의 반응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별교육활동에 관여하면서 발생한 장점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또는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들 청소년 센터의 전반적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 2. 연구방법

### 참가자

9세부터 14세(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N=299, 281, 288, 230, 307, 121) 1,544명과 1,116명의 부모(아버지 460명, 어머니 656명), 350명의 청소년 센터 강사(전일제 강사 및 시간제 강사 각각에 대해 N=129 및 221), 및 282명의 행정직원(청소년 센터 이사, 행정직원, 기술자 및 물류관리 직원 각각에 대해 N=37, 101, 71, 73)으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를 유의선출법으로 수집했다. 나이 어린 청소년, 청소년 센터 직원, 청소년 센터 강사 및 부모 각각에 대해 정량조사의 보충으로써 반구조화 면접, 좌담회 및 참여행동 연구 같은 일부 정성법이 활용되었다.

## 기법 및 절차

네 세트의 질문지를 개발하여 2008년 4월 말과 6월 말 사이에 북경(중국 북부), 광둥(중국 남동부), 곤명(중국 남서부), 랴주(중국 북서부) 및 우한 (중국 중부 또는 양쯔강 해안)의 중국 다섯 개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 청소년 센터 강사 및 청소년 센터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이 질문지를 자가보고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다섯 도시를 대표한다.

본 논문은 청소년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 참여의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을 다룬 조사 자료 및 비교의 시각에서 본 부모에 관한 조사 자료를 참조해 분석해야 한다. "특별교육 활동 참여 척도의 이점" 및 "특별교육활동 참여 척도의 부정적 효과"가 개발되었고 이것은 청소년의 청소년 센터 특별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그 역할을 하였다. 이 두 척도는 또한 공통참조 평가를 위해 부모에 대한 조사에서도 반복되었다.

청소년 센터의 기초적 상황, 특히 정치, 문화, 거주 측면에서의 위치, 정부 후원 예산 및 정규 직원이 주는 장점과 함께 이들 센터의 구조화된 특별교육 활동 시행의 이점은 아마도 청소년의 청소년 센터 특별교육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상황적 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일제 및 시간제 강사를 포함한 청소년 센터 행정직원과 강사에 대한 설명적 조사 자료로 상세히 전개될 것이다.

## 독립변수

성별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 및 활동 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이점과 부정적 영향에서의 청소년 성별 차이를 예측하기 위해 이분 척도(1=남성, 2=여성)가 사용되었다.

학년 5개 도시의 학령에 달한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르는 6개 학년을 평가하고, 이 학년 변수는 청소년

년 특별활동 참여 발자취를 예측하고, 청소년 센터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특별교육 활동의 참여 결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측면에서 학령에 달한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 별 반응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확인된 거주지 종류 이 변수는 "도시"와 "이주민"으로 이분되는데, 이 둘은 시민을 등기 있는 시골 거주민과 도시 거주민으로 분류하는 이중 시스템에 긴밀히 관련된다. 중국에서 지난 20년에 걸쳐 경제 개혁의 결과로 많은 농부가 도시로 이주했고, 그들은 자녀를 그들의 직장이 있는 도시에 입학시켰다. 이러한 자녀의 대다수는 실제로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의 거주지 등록은 이중 법적 체계에 의거해 도시 거주민으로 분류되었다(예컨대 많은 도시 거주민에 의해 칭해지는 바와 같이 "이주민"). 이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거주민만큼 교육과 복지 같은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도시의 공공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되는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이들 두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청소년 센터에 대한 기초 지식 (4점 척도: 1=전혀 모름, 4=잘 알고 있음) 이 변수는 4점 척도로 평가되어, 청소년의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정보 인식 정도 및 그들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와 그러한 기초적 지식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되는 특별교육 활동의 종류 5개 도시에 소재한 청소년 센터의 이사 및 국립 청소년 센터 연합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청소년 센터 제공의 다양한 특별교육 활동을 7가지 종류로 분류했고 ("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 "과학 교육", "예술 공연", "스포츠", "수작업 및 사회 복지",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및 "기능 경시"), 그러한 분류는 사전 검증 피드백을 거치는 내내 청소년 센터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청소년 연구자의 동의를 얻었다.

특별교육 활동 참여 "참여" 및 "비참여"의 양분적 범주를 사용해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 참가 당시의 기초적 청소년 상황을 평가했다.

## 종속변수

특별교육 활동의 이점 15개의 항목 (1.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의 획득", 2. "더 많은 동년배와의 유대", 3. "표현능력의 강화", 4. "대인 간 소통 능력의 강화", 5. "자기확신 강화", 6.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시간 조정", 7. "보다 효과적인 학업 수행", 8. "팀워크 인식의 강화", 9.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10. "학업 압박의 완화", 11. "애국의식 증대", 12.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13. "독립적 일상생활 능력의 강화", 14.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15. "스포츠 능력 및 신체 활력의 강화")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해, 이를 신뢰도가 매우 높고(청소년의 경우 크론바하의 알파 =.941, 부모의 경우 =.970) 항목들 간의 관련성(참조. 표 1)이 적절한 청소년 및 부모 모두를 상대로 실시했다.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부정적 효과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1. "과제할 시간의 감소", 2.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 감소 3. 시험점수 저하, 4. 학교공부에 대한 집중력 감소)를 개발해 이를 신뢰도가 높은(크론바하의 알파=.821)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구 국가와 중국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서구 학자(Mahoney and Stattin, 2000, Eccles and Barber, 1999)가 개발한 대부분의 조사 기구에서 종종 목격되었던 약물남용, 음주 및 기타 반사회적 행동 같은 비행요인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교육 목표는 학교 환경에서든, 가족의 영역에서든 장기간의 국립대학 입학시험의 압박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크게 집중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그러한 부정적 결과만을 평가한다.



### 3. 결과

#### 참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청소년 센터가 제공하는 7종류 활동("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의 경우 404/31.2%, "과학 교육"의 경우 390/31.4%, "예술 공연"의 경우 462/36.2%, "스포츠"의 경우 411/32.7%, "수작업 및 사회복지"의 경우 382/30.6%,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14/40.9%, "기능 경시"의 경우 345/27.6%)에 대한 청소년 참여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5개 도시의 청소년 센터 대부분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먼저 5개 도시의 청소년 센터는 대개 주거지(69.4%), 문화 및 교육이 집중된 지역(58.6%), 및 정치적 중심 지역(자치 도시 차원에서 34.3%, 행정구 차원에서 36.2%)에 위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필수적인 문화 교육적 지원의 제공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적당히 크고 부대시설이 충분하다 (5점 척도로 평가될 때 공간의 경우  $M=3.88$ , 시설의 경우  $M=3.87$ ). 확실히 청소년의 낮은 참여율을 야기하는 요인은 다방면에 걸쳐 있고 청소년 센터에서 발견된 그러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기타 인과요인과 결합된다. 그러나 청소년 센터에는 청소년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 센터 특별교육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8개의 대표적 이유에 대한 평균 비교를 통해 3가지 원인이 밝혀졌다. 하나는 청소년 자체(예. "참여할 시간이 줄어들음")에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예. "부모의 비동의") 도출되었으며, 기타 이유들은 청소년 센터에 거의 돌려졌다 (예. "그러한 활동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음",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함", "참여로 인한 이점이 덜함", "활동에 따른 지불", "활동에 맞는 기능의 불충분") (<표 III-8> 참조).

기타 주된 원인으로는 "제한된 공간", "혁신적 종류의 활동 감소", "새로운 활동 요소의 감소", "청소년의 참가하고자 하는 동기 감소", "학교의 학업진도와의 충돌", "국제적 교신의 기회 감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떨

어짐"이 포함된다. 이 11개 난제 가운데 지극히 제한적인 예산이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가 당면한 최대 문제(86%)였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청소년 센터에서는 대개 학교 교육을 학문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관계된 다양한 집중 프로그램이나 이익추구 프로젝트에 의존한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청소년 센터 설립 당시의 공공서비스 목표는 본질적으로 이익 추구 목적으로 변모되었고, 이는 많은 상업적 실체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는 시장의 어떤 변화에도 유연적이거나 대응적이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든, 또는 실행과정에서든 그러한 학업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기업에 대항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다. 덧붙여, 이들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는 관리직 직원과 전일제 강사가 나이는 많으나 배움이 모자란다는가, 전일제 강사와 시간제 강사의 비율이 불균형적이라든가(전일제의 경우 36.6%, 시간제의 경우 63.4%), 교사진 성별 구조에 있어 여교사의 비율이 높다든가(여성 72.5%, 남성 27.5%) 하는 일부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이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 활동에 대한 많은 청소년의 참여 동기나 욕구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표 III-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과제의 압박에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참여할 시간의 줄어듦"과 같은 이유와 가족 관련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모의 비동의" 같은 이유와는 상관없이, 거의 주된 이유는 청소년 센터 그 자체("그러한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활동에 대해 잘 모름", "참여로 인한 이점 감소", "특별교육 활동 공간에서 너무 멀리 있음", "활동에 적합할 정도로 숙련되어 있지 않음")에 귀착될 수 있다.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은 참여한 청소년보다 자신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참가한 적 없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ANOVA 검정 후(<표 III-10> 참조),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한 이들과의 비교에서, 참가한 적 없는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7개의 특별교육 활동 종류(5점 척도, 1=완전히 불찬성, 5=완

전히 찬성)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영향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세 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서로 다른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또한 국립대학 입학 시험의 주요 목표를 향한 학문적 추구가 학령에 이른 청소년 일상적 삶의 주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교육 활동 참여는 종종 이런 학문적 추구에 하나의 마찰요인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그럼으로 인해 점차 많은 청소년이 거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호구”에 있는) 확인된 주거 종류는 대부분의 특별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OVA 검정 결과에 따르면, 활동 참여 기회에 있어, “도시 청소년”과 “이주민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스포츠”를 제외하고 기타 여섯 종류의 특별교육 활동과 함께, 도시 청소년은 참여율(“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의 경우  $F=24.497$ , “과학교육”  $F=25.938$ , “예술 공연”  $F=27.552$ , “수작업 및 사회복지”  $F=6.213$ ,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F=9.200$ , 및 “기능 경시”  $F=7.178$  for,  $p<.05$ )에 있어, 이주민 청소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계선상의 아동(대부분의 이주민 아동이나 청소년을 취약한 집단의 범주에 분류하는 경우)에게서 발생하는 박탈의 형태로써 해석될 수 있다. 즉, 이주민 아동은 도시의 공식 교육 시스템(도시 학교 입학에 미치는 많은 제도적 장애)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공공 청소년 센터가 제공하는 그러한 특별교육 활동처럼 비공식 교육에서도 배제된다.

### 재고된 이점들

이번량 상관분석의 결과(<표 III-10> 참조)를 보면 “예술 공연”(AT13) 및 “스포츠”(AT14)라는 특별교육 활동의 종류가 갖는 효과가 청소년에 의해 이점 범위에서 가장 광대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무려 14개의 이점이 이 두 가지 종류의 활동과 강하게 상관되었다), “과학교육(AT12)” 및 “기능 경시(AT17)”가 갖는 효과는 기타 특별교육 활동의 경우보다 그 폭이 더 높았다.

또한 4개 종류의 이점("더 많은 지식과 기능의 획득 (이점1)", "대인간 소통 능력의 강화"(이점 4), "사회적 적응 능력 강화 (이점12)", 및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이점 14)"이 7개 종류의 특별교육 활동에서 기인한 이점으로 간주되었다. 깊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청소년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활동의 종류는 대부분 참가했던 그러한 청소년과 동일하지 않았고 또한 청소년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소년이 대부분 빈번하게 참여했던 활동 종류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참여율 40.9%)였지만, 그 이점 범위는 총 15개의 이점 중에서 유의한 상관 수준에서 10개 종류의 이점으로만 확대되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에게 있어 흥미로운 특별교육 활동과 이들에게 유익한 활동 간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별, 학년 및 청소년 센터에 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한 기타 독립 변수는 상이한 정도로 특별교육 활동 참여의 이점과 관련성이 있었다. "스포츠 능력 및 신체 활력 강화", "애국적 의식 강화" 및 "팀워크 의식 강화"를 제외하고,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다른 수준으로 이점을 더 강하게 인식했다. ("더 많은 지식 및 기능 획득"의 경우  $F=7.596$ , "더 많은 동년배와의 유대"  $F=14.129$ , "표현능력의 강화"  $F=14.433$ , "대인 간 소통 능력의 강화"  $F=16.681$ , "자기확신 강화"  $F=15.894$ , "보다 효과적 방식의 시간 조정"  $F=7.585$ , "보다 효과적인 학업 수행"  $F=6.492$ ,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F=10.245$ , "학업 압박의 완화"  $F=12.548$ ,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F=13.640$ , "독립적 일상생활 능력의 강화"  $F=10.930$ ,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F=46.729$ ,  $p<.05$ )

다양한 학년에 따른 이점 인식의 차이는 매우 비관적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이 경우 고학년은 저학년보다 대부분의 이점을 덜 강하게 인식했고 그러한 부적 상관은 무려 7개 종류의 이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11> 참조) 이 사실은 청소년 센터의 많은 특별교육 활동이 장기간동안 청소년의 유치 능력이 떨어질 것임을 예측한다. 다시 말해 초기의 청소년기 동안 많은 청소년은 특별교육 활동 참여 대신 학업성취로 자신의 임무나 흥

미를 전환시켰다. 진짜 문제는 특별교육 활동 참여가 초기 청소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청소년 시기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변화가 너무 일찍 찾아왔다는 점이다.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이점 인식과 정적으로 상관되었다(<표 III-11> 참조). 청소년 센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특별교육 활동 참여로 인한 이점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 때문에 청소년 사이에서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정보의 전파는 보다 확장되고 더욱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는 그러한 높은 비율의 청소년이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 활동에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로 인한 이점 인식과 관련해 또한 청소년과 그 부모 사이의 분명한 의견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한 대부분의 참가 이점에 대한 평가는 그 자녀가 한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표 III-13> 참조). 반면, 부모의 평가는 청소년의 사회 지향적 이점에 대한 인식보다 더 긍정적이었다("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애국의식 증대", 및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이런 결과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을 청소년만큼이나 유익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반영했고, 그러한 해석이나 이해조차 청소년의 다양한 평가차원과 비교할 때 일부에만 한정된 차원에 기초한 것이었다. 청소년의 참여는 실제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는 청소년의 참여 동기 및 행위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국립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입증

국립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 항목에 대해 청소년 및 부모 각각에 의한 평가 또한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큰 견해 차(<표 III-14> 참조)를 적절히 반영했다. 프로그램 항목 선호도에 대한 순위 평가 비교에 따르면 부모의 항목 선택의 관건은 매우 강한 사회 지향성인 반면, 청소년은 유흥이나 모험에 긴밀히 관계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청소년에게 가장 선호된 일부 항목에는 무엇보다도 "산림체험", "우주체험 실험", "만화 수집"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해 낮게 평가된 것들이다. 대조적으로 "환경보호 교육", "국가보안 교육" 및 "국가상황 분석" 같은 사회적 지향의 항목은 부모가 매우 높게 평가했다. 청소년 및 부모간의 이러한 분명한 차이는 매우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청소년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4. 논의 및 정책적 함의

우리의 논의가 청소년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 상황에 관련해 청소년 센터의 그러한 활동 참여를 통해 인식된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정책적 함의와 연계된 논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먼저 국가 및 지방 정부 모두의 재정적 지원으로 설립된 다양한 청소년 센터는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행정직원이 이런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주로 예산부족 때문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을 가장 많이 참여토록 한 청소년 센터 특별교육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그 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재미와 이점에 있었다. 반대로 이들 요인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청소년의 경우와는 꽤 차이가 있다. 정책 입안자는 청소년이 요구하는 바와 성인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덧붙여 정부가 지정한 일부 이념 관련 교육 활동은 이점과 재미 측면에서 청소년의 선택에 크게 반대되었다. 공공재 서비스의 한 기능으로서 청소년 센터는 정책과 실행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 발달에 끼치는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성과가 우리가 조사했던 모든 이점 가운데 가장 불분명했음이 우리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에클스, 프레드릭, 바버 그리고 마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학자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나타난 학문적 성취와 특별교육 활동의 상당한 분리성은 특별교육 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유익하지만, 청소년 발달의 모든 차원에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서구 환경이든, 중국 환경이든 청소년은 자신의 사회성과 또래관계의 측면에서 특별교육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중국의 청소년 발달 정책은 미국과 유럽의 국가의 정책과는 다소 상이한 노선을 걸어야 하며, 중국의 경험은 또 기타 국가의 참고 대상으로 나름의 유용성을 갖는다. 요약하자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폄하하는 태도가 아닌 합리적이고 각 문화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 참고문헌

- Barber, B. L., Eccles, J. S., and Stone, M. R. (2001). Whatever happened to the jock, the brain, and the princess? Young adult pathways linked to adolescent activity involvement and social identity. *J. Adolesc. Res.* 16: 429-455.
-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Free, New York.
- Eccles, J. S., and Barber, B. L. (1999). Student council, volunteering, basketball, or marching band: What kinds of extracurricular matters? *J. Adolesc. Res.* 14: 10-43.
- Eccles, J. S., Barber, B. L., Stone, M., and Hunt, J. (2003).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 Soc. Issues* 59: 865-889.
- Eccles, J. S., and Gootman, J. A. (eds.)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National Academy, Washington, DC.
- Eder, D., and Parker, S. (1987). The cultural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gender: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peer-group culture. *Soc. Educ.* 60: 200-214.
- Fredricks J. A. and Eccles J. S. (2005): Developmental Benefits of Extracurricular Involvement: Do Peer Characteristics Mediate the Link between Activities and Youth Outcomes? *J. Youth Adolesc.* 34:507-520
- Fredricks J. A. and Eccles J. S. (2006): Is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Beneficial Outcomes?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Dev. Psychol.* 42:698-713
- Holland, A., and Andre, T. (1987).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secondary school: What is known, what needs to be known? *Rev. Educ. Res.* 57: 437-466.
- Larson, R. W. (2000). Towards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 Psychol.* 55: 170-183.
- Lerner, R. M., and Steinberg, L. (eds.) (2004).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Wiley, Hoboken, NJ.
- Larson, R. W., and Va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 *Psychol Bull.* 125: 701-736.
- Mahoney, J. L. (2000).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s a modera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patterns. *Child Dev.* 71: 502-516.
- Mahoney, J. L., and Cairns, R. B. (1997). Do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tect against early school dropout? *Dev. Psychol.* 33: 241-253.



- Mahoney, J. L., Larson, R. W., and Eccles, J. S. (eds.) (2005). *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School and Community Programs*. Erlbaum, Mahwah, NJ.
- Mahoney, J. L., Scheweder, A. E., and Stattin, H. (2002). Structured after-school activities as a moderator of depressed mood for adolescents with detached relations to their parents. *J. Community Psychol.* 30: 69-86.
- Mahoney, J. L., and Stattin, H. (200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The role of structure and social context. *J. Adolesc.* 2000: 113-127.
- Mahoney, J. L. (2000).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s a modera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patterns. *Child Dev.* 71: 502-516.
- Mahoney J.L., Harris A. L., and Eccles J. S. (2006): *Organized Activity Participati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the Over-Scheduling Hypothesis*, Social Policy Report, 20:3-31
- Youniss, J., Yates, M., and Su, Y. (1997). Social integration: Community service and marijuana use in high school seniors. *J. Adolesc. Res.*



















〈표 III-14〉 국립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의 확인된 항목에 따른 평균 순위의 비교

	청소년에 의한 평균 순위	부모에 의한 평균 순위
산림체험	1	18
우주체험실험	2	15
여름 캠프	3	7
야외 생존 훈련	4	5
만화 수집	5	20
머리 쓰는 게임	6	8
전자 게임	7	22
다양한 과학 실험	8	2
매체 체험	9	17
작곡 경연	10	6
생물학적 표본 수집	11	11
국제적 교신	12	13
자원봉사 체험	13	9
사회적 사명 경험	14	12
국가 보안 교육	15	4
과학적 도구 설계	16	14
환경보호 교육	17	1
국가 상황 분석	18	3
군 훈련	19	10
시 암송	20	16
오페라 부르기	21	21
총	22	19

## References

- Barber, B. L., Eccles, J. S., and Stone, M. R. (2001). Whatever happened to the jock, the brain, and the princess? Young adult pathways linked to adolescent activity involvement and social identity. *J. Adolesc. Res.* 16: 429-455.
-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Free, New York.
- Eccles, J. S., and Barber, B. L. (1999). Student council, volunteering, basketball, or marching band: What kinds of extracurricular involvement matters? *J. Adolesc. Res.* 14: 10-43.
- Eccles, J. S., Barber, B. L., Stone, M., and Hunt, J. (2003).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 Soc. Issues* 59: 865-889.
- Eccles, J. S., and Gootman, J. A. (eds.)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National Academy, Washington, DC.
- Eder, D., and Parker, S. (1987). The cultural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gender: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peer-group culture. *Soc. Educ.* 60: 200-214.
- Fredricks J. A. and Eccles J. S. (2005): Developmental Benefits of Extracurricular Involvement: Do Peer Characteristics Mediate the Link between Activities and Youth Outcomes? *J. Youth Adolesc.* 34:507-520
- Fredricks J. A. and Eccles J. S. (2006): Is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Beneficial Outcomes?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Dev. Psychol.* 42:698-713
- Holland, A., and Andre, T. (1987).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secondary school: What is known, what needs to be known? *Rev. Educ. Res.* 57: 437-466.
- Larson, R. W. (2000). Towards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 Psychol.* 55: 170-183.
- Lerner, R. M., and Steinberg, L. (eds.) (2004).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Wiley, Hoboken, NJ.
- Larson, R. W., and Va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 Bull.* 125: 701-736.
- Mahoney, J. L. (2000).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s a modera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patterns. *Child Dev.* 71: 502-516.

- Mahoney, J. L., and Cairns, R. B. (1997). Do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tect against early school dropout? *Dev. Psychol.* 33: 241-253.
- Mahoney, J. L., Larson, R. W., and Eccles, J. S. (eds.) (2005). *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School and Community Programs*. Erlbaum, Mahwah, NJ.
- Mahoney, J. L., Scheweder, A. E., and Stattin, H. (2002). Structured after-school activities as a moderator of depressed mood for adolescents with detached relations to their parents. *J. Community Psychol.* 30: 69-86.
- Mahoney, J. L., and Stattin, H. (200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The role of structure and social context. *J. Adolesc.* 2000: 113-127.
- Mahoney, J. L. (2000).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s a modera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patterns. *Child Dev.* 71: 502-516.
- Mahoney J.L., Harris A. L., and Eccles J. S. (2006): *Organized Activity Participati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the Over-Scheduling Hypothesis*, Social Policy Report, 20:3-31
- Youniss, J., Yates, M., and Su, Y. (1997). Social integration: Community service and marijuana use in high school seniors. *J. Adolesc. Res.*

#### 4) 캐나다의 청소년고용: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 전략<sup>11)</sup>

적당한 소득은 아동기, 청소년 및 청년기 동안의 건강과 빈곤에 관계된 사회적 결정요인의 하나로 조기 사망을 포함해 일생의 건강 불균형에 연결된다. 생활을 유지시키는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기도 하지만, 길거리 및 노숙 청소년에게는 적절한 취업에 이르기까지 장벽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들의 노동경험을 다룬 연구는 얼마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실시한 길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사회적 정책 및 취업 정책 현황을 설명하는데 있다. 14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에 실시된 길거리 청소년에 관한 세 건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취업 경험을 문서화하는데 있다.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평가뿐 아니라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인 환경 및 건강상의 장애물을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길거리 청소년이 지속적 취업 상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공하는데 있다.

서부 캐나다 전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길거리 청소년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부족한데다가 생활비 증가 및 최소임금의 정체에 직면한다. 이들이 직면한 장벽에는 안정적 주택의 부족, 직업훈련 및 노동경험 기회에 대한 제한적 접근뿐 아니라 불충분한 교육, 십대부모이기도 한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충분한 보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도 포함된다. 이런 장벽에도 불구하고 세 명 중 거의 한 명 꼴로 지난 달 합법적 근로를 보고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시간 이상을 일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경험의 기회가 있었던 청소년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며 세 건의 모든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사회가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직업훈련과 직업체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안전하고 충분히 여유 있는 임시보호소와 함께 취업지원은 모든 도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11) 이 글은 Elizabeth Saewyc 교수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권고되는 서비스 다섯 가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2001년 후반대의 청소년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 또한 구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5%).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취업에 이르는데 있어 일부 장벽을 해결하는데 일조하도록 제공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청소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서비스 종류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은 이에 접근하는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사회에서의 필요 수준은 이용 가능한 지원의 수준보다 여전히 훨씬 높다. 캐나다의 날로 악화되는 최근의 경제와 증가하는 실업률을 고려할 때 이런 큰 차이는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 서론

청소년에 있어 주요한 발달과정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현장으로의 이행 및 젊은이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의 성취다. 적당한 소득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이고 (Marmot & Wilkinson, 1999), 아동기, 청소년기 및 청년기 동안의 빈곤은 조기 사망을 비롯해 일생동안의 건강 불균형과 관련된다. 사회적 다양성 및 시장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취업 기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교육, 특정한 기술훈련, 부모의 지원 및 안정적인 주택 또한 취업의 획득 및 지속 능력에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 (Gaetz & O'Grady, 2002). 캐나다의 전반적인 인구집단에서 청소년은 고등학교 시기에 시간제 취업을 시작해, 소매판매, 식품서비스, 세탁 또는 기타 반숙련직에 관계된 일자리에서 최소임금으로 일한다. 2008년 캐나다 최서단 주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우 12세에서 19세에 이르는 학생 가운데 41%가 지난 해 유급 시간제 근무를 했다고 보고했다(Smith, Stewart, Peled, Poon, Saewyc,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기술학원, 직업학교 또는 대학에서 후기 중등교육에 참여해 훈련이나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후 전일제 취업으로 이행하면서 취업을 시작하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 안정적 주택 그

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길거리 청소년, 노숙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은 생존을 위한 적절한 소득이나 임시보호소 없이 지내기도 한다. 위탁보호를 받거나 범죄활동으로 인해 수감되었던 청소년의 경우처럼 정부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성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19세가 되면서 스스로 취업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과 지원을 청소년기 동안 아마 받지 못했다. 적절한 교육이나 시장성 있는 기술 없이 시설 출신이라는 낙인이 이미 찍힌 상황에서 그러한 청소년은 자신이 주변화되어 있음을 깨닫고 돈을 벌고자 지하경제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Gaetz & O'Grady, 2002). 이들은 마약거래, 절도 또는 성착취 같이 불법적 활동에 개입하기도 한다 (Saewyc, MacKay, Anderson & Drozda, 2008). 거리공연(모금을 받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연주함), 걸레질(모금을 목적으로 교차로에서 자동차 창을 청소하는 일), 또는 길거리 구걸 등 남는 잔돈 구걸(Gaetz & O'Grady, 2002; Smith, Saewyc, Albert, MacKay, Northcott,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7; Saewyc, Brunanski, Bingham, Hunt, Northcott, Smith,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등을 통해 생계를 꾸리기도 한다.

캐나다의 길거리 청소년 및 노숙 청소년의 수를 추정한 내용은 길거리 개입의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길거리 청소년은 1) 과거 일부 시점에 집을 떠났던 적이 있던 청소년(가출을 한 것이든, 내쫓긴 것이든 두 경우 모두 이든), 2) 단기 보호시설이나 버려진 건물에 살면서 현재 집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확실한 청소년, 3) 성노동, 구걸이나 마약거래를 일삼는 등 "길거리" 생활방식에 관계된 청소년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길거리 청소년은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하기도 한다. 또 길거리 개입 정도와 위탁보호 알선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 약 40%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18세 이하)은 공공학교 (Smith et al., 2009)의 1%에 불과한 유사한 연령의 학생과는 대조적으로 정부 보호(Smith et al., 2007)를 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일단 보호시설을 나간 청소년 가운데 약 15%는 노숙자가 되고 또 다른 30%-40%는 첫 2년 동안은 거주지가 불안정하게 된다(Kushel, Yen, Gee & Courtney, 2007; Rutman, Hubberstey, Feduniw & Brown, 2006).

그러나 캐나다의 길거리 및 노숙 청소년 가운데 취업경험, 취업 관련 요구사항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장벽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들은 노동시장과 주거상황 모두의 일시성 때문에 정부 노동 통계에서 정상적으로 추적될 수 없다. 토론토에서 실시한 360명의 노숙 청소년을 다룬 한 연구에서 이들의 다양한 소득원 및 공식, 비공식 유급노동 모두를 규명했다. 이들의 소득출처는 사회적 지위, 교육, 현재의 주거상황 및 신체적, 성적학대에 대한 노출이 서로 별개로 연계되었다.(Gaetz & O'Grady, 2002) 캐나다 전역에서 진행된 길거리 청소년에 대한 다른 조사들은 교육, 취업부분 보다 오히려 건강에 주요한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실시 되었다.(Lloyd-Smith, Kerr, Zhang, Montaner, & Wood, 2007; Roy, Haley, Leclerc, et al., 2001; Shields et al., 2004).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선 2000년 이후 맥크레리 센터 조사에서 이 주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길거리 청소년에 관한 각기 다른 세 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조사에는 생활 및 건강에 관계된 경험에 관한 질문 외에도 고용, 교육, 소득원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계된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그런 만큼, 이들 연구는 서부 캐나다의 특정 주거상황 및 취업정책의 맥락에서 길거리 청소년의 경험을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첫째 2000년 이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길거리 청소년의 노동 및 구직 시도의 배경이 된 사회 및 취업정책을 설명하고, 둘째, 같은 기간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여러 도시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및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경험을 제시하고 셋째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인 환경요인 및 건강 장벽과 아울러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길거리 청소년의 지속적인 일자리 보전에 일조하도록 개발되었던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

###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배경

2001년 자유당 정부는 BC 주의회를 장악하고 지난 8년 동안 집권 세력을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길거리 청소년의 구직활동의 배경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경제적, 정책적 변화가 많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정책 변화 일부는 실제로 노숙 및 길거리 청소년의 수 증가, 저임금 가구의 소득 안정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의 증가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가구비율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Klein Griffin Cohen, Garner, Ivanova, Lee, Wallace, & Young, 2008; Snow, 2008). 예컨대 2008년 말까지, 이 기간은 2004년 이후 20억 달러를 초과하는 정부잉여금과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에 속했다. 동시에 BC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 정부 가운데에서 아동이 있는 빈곤층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BC 전역에서 5명의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 1명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것을 최근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First Call).

취업 배경에는 또한 공통점 없는 개별의 상황 및 정책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구직 (기회)가능성은 캐나다의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2001년에서 2008년까지 높았다. 그러마 BC의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바뀌지 않아 시간당 8달러인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매 해 2%내지 3% 사이로 증가했다(Klein et al., 2008). 동시에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노동 허용을 위해 15세에서 12세까지 취업 연령을 낮추었고, 새로운 "훈련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고용주가 고용한지 처음 500시간이 되는 동안 시간당 6달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훈련임금이 신규 십대 노동자 고용의 동기책으로 권고되고는 있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훈련임금을 수령한 대다수의 노동자는 25세 이상, 종종 신규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일부 고용주는 500시간을 마쳤을 때 고용을 종료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안정적 취업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며 이것은 다시 사람들의 취업 및 일자리 보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8년 실시된 광역 밴쿠버 지역의 가장 최근의 홈리스 카운트에서 임시보호소에 거주하는 13%의 노숙자가 전일제 취업을 보고했지만, 여전히 주거상황은 여의치 않았다(Social Planning & Research Council of BC, 2008).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는 2000년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평균 임대료가 2001년과 2007년 사이 적어도 22% 증가했고(Snow, 2008; Klein et al., 2008), 임대 공실비율은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측에 속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총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에 소비하는 인구의 수는 일종의 주택 보급현황에 관한 측정으로써 3가구 중 거의 1가구 꼴로 이 정도를 소비하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다(Snow). 실제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 중에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되느냐에 대한 국제적 비교에서, 4개의 캐나다 도시가 주택의 구매여력이 심각한 시장에서 상위 25위에 올랐는데 이들 도시는 모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속한다(Cox & Pavletich, 2009). 주택 구매여력이 심각하게 불가능한 시장 가운데에서도 밴쿠버 주택은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시에서의 주택, 영국의 런던이나 아일랜드의 더블린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나 멜버른 아울러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주택보다 구매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상황은 곧 길거리 청소년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발달상 이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배경이 된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길거리 청소년을 다룬 세 건의 조사는 본 논문의 분석 자료이다. 맥크레리 센터 소사이어티가 2000년 처음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전역의 6개 도시에서 12세에서 19세에 이르는 5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다(Murphy, Poon, & Weigel, 2001). 2001년에는 밴쿠버 시에서 180명의 길거리 청소년(19세에서 24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그 뒤를 이었다(Laye & Murphy, 2002). 그 후 2006년 BC 전역의 지역사회 9곳에서 12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총 7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Smith et al., 2007).

이 세 건의 조사에서는 각각 참여적 접근을 사용해, 연구 파트너로서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 출신의 청소년 노동자 및 길거리 유경험 청소년 모두를 참여케 했다. 이 질문지는 지역사회의 연구 파트너와 함께 개발 및 정비되었고, 취업, 교육, 꿈과 미래의 희망뿐 아니라 생활

경험, 건강 및 위험 행동에 관한 140개에서 200개의 질문을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질문은 각 조사에서 반복되었지만 청소년 및 지역사회 파트너가 확인한 새로운 문제 또한 추가되었다. 이 조사는 문맹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조사 팀 구성원이 크게 읽음으로써 진행되었다. 연구 질문지는 청소년에 의해 익명으로 작성되었다. 해당 조사 연구는 매년 주요 조사자들로 이뤄진 학술적 제휴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또는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의 윤리 검증을 받았다.

<표 III-15>는 2000년과 2006년 그리고 2001년 청소년기 후반기의 청소년이 보고한 다양한 소득원을 나타낸다. 각 조사에서 세 명의 청소년 가운데 거의 한 명이 사회적 지원이나 부모로부터의 지원 같은 기타 합법적 소득원 뿐 아니라 지난 주나 지난 달에 합법적 고용에 의해 일을 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5명 가운데 한명과 나이 든 길거리 청소년 중 거의 절반이 구걸, 거리공연, 걸레질, 또는 성매매를 일삼음으로써 길거리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청소년의 거의 절반가량이 마약거래나 절도 같은 불법적 출처의 소득을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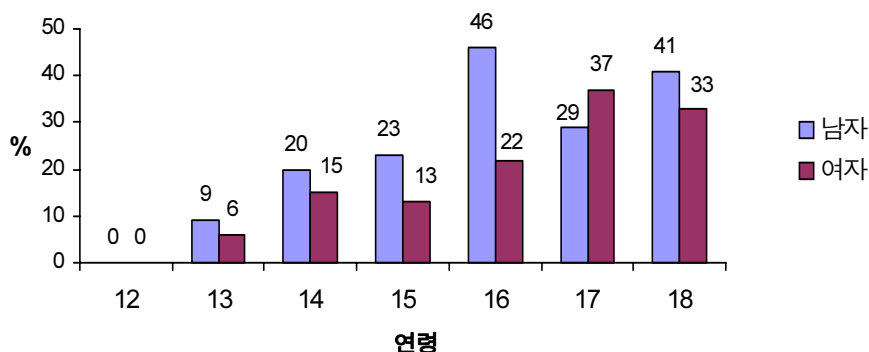
<표 III-15> 지난 주(2000, 2001) 또는 지난 30일 (2006)\*간의 소득출처

소득 종류	길거리 청소년 (2000) 12-19 세 (N=523)	길거리 청소년 (2001) 19-24 세 (N=180)	길거리 청소년 (2006) 12-18 세 (N=762)
합법적 일자리	29%	33%	30%
사회적 지원/아동 복지	29%	62%	21%
부모	51%	21%	43%
구걸/거리공연	30%	32%	20%
걸레질 (돈 구걸을 위한 거리에서의 자동차 창문 걸레질)	8%	12%	4%
성노동/ 음식, 쉼터, 돈, 의복을 위한 성매매	6%	18%	6%
마약거래	41%	40%	24%
절도	24%	23%	14%

\*청소년은 한 가지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길거리 청소원 가운데 합법적 고용이 다른 조사에 나타난 길거리 청소원에 관한 종전의 보고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전반적으로 2001년 조사부터 청소년기 후반대의 길거리 청소원의 83%가 합법적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고 55%는 일정 시점에서의 전일제 취업을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는 나이 어린 청소년 중에는 40%가 지난 석달간의 합법적인 시간제 또는 전일제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06년 지난 달에 합법적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중에서 52%가 주 당 20시간 또는 그 이상, 또 다른 32%는 5시간에서 19시간을, 그리고 16%만이 주당 5시간 이하의 노동을 보고했다.

지난 달의 합법적 취업을 통한 임금 수령  
(길거리 청소년 2006)



[그림 Ⅲ-9] 합법적 취업을 통한 임금수령

연령, 성별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심지어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에 있어서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2006년에서 조사된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지난 달에 합법적 노동을 통한 소득을 보고한 12세의 청소년은 한 명도 없으며 13세는 거의 없는 반면, 17세와 18세의 청소년 세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고용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그림 Ⅲ-9] 참조). 어떤 연령에서든 남성이 합법적 노동을 통한 소득을 보고할 가능성이 다소 더 높았다(남성 35% 대 여성 25%,  $p<.001$ ). 이성애자로 확인된 청소년(36%)은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27%),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는 청소년(10%)보다 합법적 취업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최근의 주택현황은 합법적 일자리를 통한 소득에 크게 연관되지 않았다. 현재 집이 없거나 위탁보호에 있는 청소년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지난 달 부모와 함께 살았던 청소년만큼이나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 취업 장벽

어린 노숙 및 길거리 청소년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알려진 장벽이 많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택의 불안정성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이 없는 청소년은 대다수의 취업 신청서를 위해 주소가 필요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잠자고, 씻고,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없다면 적절한 휴식도,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외양 전사도 불가능할 수 있다(Gaetz & O'Grady, 2002). 2000년과 2006년 두 해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71%가 지난 해에 불안정한 거주지에 살았다고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부모와 산 적도 있지만 보호소나 여관, 불법 가옥, 텐트와 자동차에서도 거주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거주했던 대다수의 청소년이 포함된다. 200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청소년기 후반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76%가 지난해 보호소, 쉼터, 길거리의 버려진 건물("불법 가옥"), 또는 카우치 서핑 등 임시 또는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기거했다.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중 일정 시점에 보호소에 기거하거나 거리에서 노숙을 했으며 66%는 밴쿠버에서 거주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6%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충분한 돈이 없어서, 22%는 집주인이 그들에게 집을 임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13%는 술과 마약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 외에도, 동시에 부모이기도 한 청소년은 종종 안전하고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자신의 임금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2001년 나이 든 길거리 청소년 중에서 26%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보

고했다. 2000년엔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13%가 자녀가 있고, 2006년엔 16%가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보고했다.

교육은 길거리 청소년의 적절한 취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잠재적 장벽이다. 읽는 것 같은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포함해 이렇다 할 기술이 없다면, 청소년의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임시 비숙련 노동에 한정될 수 있다. 길거리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보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일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2001년 청소년기 후반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25%만이 당시 재학 중이었던 반면, 또 다른 29%는 고등학교를 마쳤다. 그러나 2000년과 2006년 나이 어린 청소년 가운데 2/3가 당시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업을 했고(70% 및 66%), 이 가운데 학교를 다녔던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참여했고 45%는 일반 학교에 참여했다.

###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평가

가장 최근의 2006년 조사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자신의 지역사회에 있었다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그런 서비스들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또 자신의 지역사회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요청 받았다. 2000년과 2001년의 초기 조사에선 지역사회가 필요로 했던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다. 2001년에서 조사된 청소년기 후반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또한 구직에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구직을 돕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의 종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의 경우 청소년의 취업은 특정 지원 서비스의 접근 여부에 관계되었다. 청소년 세 명 중 한명 정도만 직업훈련 서비스에 접근했다고 보고했고(33%), 32%는 노동체험 프로그램에 접근했다. 열 명의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이 그러한 서비스를 자신의 지역사회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직업훈련이나 직업체험을 이용했을 때 이들 대다수는 그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말했으며 그들의 취업양상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에 직업훈련을 이용했던 청소년의 경우 그런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청소년과 비교해 고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았다(42% vs. 28%  $p<.01$ ). 비슷하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고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39% vs. 28%,  $p<.05$ ). 그러나 취업은 알코올 및 마약 상담, 마약치료, 청소년 의료 기관, 임시보호소 또는 학교 프로그램 같은 기타 종류의 서비스 접근에는 관계되지 않았다.

이 모든 세 건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직업훈련과 직업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안전하고 충분한 보호소와 함께 취업지원 또한 모든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권고되는 서비스 다섯 가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2001년의 청소년기 후반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다수의 청소년 또한 구직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85%). 구직 시 어떤 종류의 지원을 원하는지를 물었을 때 43%가 지속적인 교육을, 35%가 직업체험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21%가 직업탐색 지원 및 이력서 작성을 답했다.

불안정한 주거상황, 제한된 교육 및 지원 서비스에의 접근 부족 같은 취업의 잠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었다. 2001년 청소년기 후반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31%가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했고, 2000년에는 초반기 청소년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36%가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했다. 2006년에는 미미하게 낮은 비율의 청소년(26%)이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14%는 기술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통해, 또 12%는 대학 진학을 통해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5년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06년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이 일자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48%).

### 장벽 완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길거리 청소년의 적절한 취업에 놓인 만만치 않은 사회 경제적 배경, 청소년이 당면한 장벽과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

스를 고려할 때, 그런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할까? 주 정부 차원에서는 길거리 청소년을 위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보호소에서 그런 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 몇 가지 정책이 있다. 예컨대 정부 보호를 받고 있는 16~18세의 청소년은 임시 주거지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임시보호소,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아울러 생활능력을 키우고 목표를 세우며 청소년을 학교에 재입학토록 지원하며,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독형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한 임시 주거 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보통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수의 청소년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주 전역에 걸친 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지난 몇 년 간 일부 임시 주거 프로그램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임시 주거의 대안책으로 위탁부모의 알선이 있지만, 청소년, 특히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청소년을 받아들일 만한 위탁부모의 수는 제한적이다. 2006년의 조사에서 조사된 절반 이상의 길거리 청소년이 캐나다 토착 원주민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캐나다 원주민, 이누이트, 또는 메티스에 속하지만(Smith et al., 2007), 대부분의 원주민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원주민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위탁보호를 맡을 수 있을만한 원주민 가구가 태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Saewyc et al., 2009). 16세에서 18세의 일부 10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사항은 재학 중이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식 및 주거를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일종의 청소년 협약이다. 이런 접근은 이미 생활능력을 갖고 최소한의 감시로도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약물 사용문제가 있거나 성착취를 당할 수 있거나 또는 수년 간 혼돈의 상황에서 살아온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성인의 지도와 정서적 지원이 없다면 독자적 생활은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정부 보호를 벗어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보호 하에 놓인 청소년은 특히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금전적, 정서적



인 지원을 받고, 19세가 넘어가면 생활능력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연령에 따른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도 되지 않고 능력도 없을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새로 마련한 시범 정책에서는 보호 속에 있는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계속적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이행과정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업 장벽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기술연계 프로그램(Skills Link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능력 계발과 성공적인 구직 및 유지를 위한 직업체험을 돕기 위해 개별화된 접근법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자격이 되는 청소년은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면서 임금을 받고, 그 후 취업 후 처음 몇 달 동안 계속적인 멘토링 제공과 함께 보조금이 지원되는 취업알선을 제공 받게 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기술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재정을 지원 받은 바 있는 두 개의 프로그램은 길거리 청소년 및 위탁보호를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블레이드러너, 그리고 성착취를 당한 청소년의 성매매 탈출, 이들의 생활 안정, 기타 시장성 있는 능력 획득 및 구인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피크 프로그램이다. 블레이드러너 및 피크 프로그램 이 두개의 프로그램은 기술 연계의 요건을 다소 차별적으로 달성하려 하며 이는 아래에 설명해있다.

### 블레이드러너(Blade Runner) 프로그램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은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정부보호를 거치거나 아니면 지원이 되는 취업과정에서 건설업 관련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어려운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첫 과정은 다양한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간 당 최소임금을 받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 경우의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수에

맞춰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료 증명서를 제공한다. 예컨대 청소년은 작업현장 안전, 응급치료, 식품안전관리 및 다양한 종류의 장비 조작에 필요한 훈련의 관계된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건물 시공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건설직 취업을 시작하면서 멘토링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정서적 지원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과 제휴해 이러한 기회를 청소년에 제공하기 위해 건설노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은 나나이모의 청소년 서비스 협회 상무이사 스티븐 아넷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의 7개 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도시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을 14년 간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60% 이상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 시행 일 년 후 전일제로 고용되고 있으며, 절반은 여전히 2년 후에 고용되는 실정이라고 한다(Arnett,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3, 2009).

피크(Peak) 프로그램은 남녀 성노동자와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비슷한 수준의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 이들이 영구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성매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길거리 청소년의 경우보다 훨씬 심한 취업장벽에 부딪히는데, 그 방식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Gaetz & O'Grady, 2002; Saewyc, MacKay, Anderson and Drozda, 2008). 즉 이들 청소년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외상성 삶의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또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세운 약물남용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더 많다. 이들이 일하는 환경은 이들을 위협한 상황에 내몰아 폭력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Saewyc et al., 2008), 또 그것이 청소년의 초보적인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어, 가장 불확실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도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 노동으로 인해 크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것이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로부터의 차별뿐 아니라 수치심과 낮은 자긍심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청소년이

어떻든 취업에 관련된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막강한 취업 장벽을 고려할 때, 피크 프로그램에는 스킬스 링크 펀딩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길거리 청소년 중 이런 취약한 하위집단이 필요로 하는 바를 해결할만한 독특한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이 프로그램의 운영직원은 모두 (중전에 성적으로 착취를 당했고 그 자신이 성매매에 관계된) 경험 있는 사람들인데, 이는 참여자와의 신뢰구축과 유대관계형성에 중요했다. 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연결시키고, 이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침과 점심식사가 제공되었고 운영직원 및 기타 피훈련자와의 연대 형성이 지원되었다. 6개월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끝나 갈 무렵, 프로그램 수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500달러의 성과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의 첫 석 달은 생활 기술, 직업적응, 훈련 및 수료, 직업탐색 코스 및 성공적 취업을 막을 수 있는 성노동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상 문제 해결(알코올과 기타 약물 치료를 받도록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후 석 달은 청소년의 흥미와 기술에 맞춰 개별화된 보조금 지급형 취업 알선과 함께 취업할 때까지의 지원을 위해 이 시기에 정기적인 멘토링 서비스도 이뤄진다. 임시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긍정적이었지만,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단기적이어서 일부 청소년이 요구하는 보다 까다로운 사항은 해결할 수 없었고 이들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취업으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은 여러 해가 지난 후 재정 지원이 끊겨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 결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길거리 청소년 및 주변화된 청소년은 이전의 강력한 경제성장 시기 동안에도 정체된 최저임금수준과 거주지역에서의 극히 어려운 주택구매 여력이라는 사회 경제적 배경을 포함해, 성공적인 취업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 취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일조하고자 했음에도, 이들 대부분은 청소년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경우에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은 현재의 유효한 지원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악화와 실업률 증가에 비추어 이런 간극은 지속적으로 벌어질 소지가 있다.

## References

- Cox W, Pavletich H. (2009). 5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 2009. Ratings for Metropolitan Markets. Belleville, IL: Demographia, and Christchurch, NZ: Performance Urban Planning. Accessed April 2009 at [www.demographia.com](http://www.demographia.com).
- Currie S, Foley K, Schwartz S, and Taylor-Lewis M. (2001). Bladerunners and Picasso Café: A case study evaluation of two work-based training programs for disadvantaged youth. Ottawa: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 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2008 Child Poverty Report Card. Vancouver, BC: Author. Accessed March 2009 at [www.firstcallbc.org](http://www.firstcallbc.org).
- Gaetz S & O'Grady B. (2002). Making money: Exploring the economy of young homeless work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6, 433-456.
- Klein S, Griffin Cohen M, Garner T, Ivanova I, Lee M, Wallace B, & Young B. (2008). A poverty reduction plan for BC. Vancouver: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Accessed April 2009 at [www.policyalternatives.ca](http://www.policyalternatives.ca).
- Kushel MB, Yen IH, Gee L, & Courtney ME. (2007). Homelessness and health care access after emancipation. *Archives of Pediatric & Adolescent Medicine*, 161, 986-993.
- Laye A, & Murphy A. (2002). *Between the cracks: Homeless youth in Vancouver*. Burnaby, BC, Canada: The McCreary Centre Society.
- Lloyd-Smith E, Kerr T, Zhang R, Montaner JS, & Wood E (2007). High prevalence of syringe sharing among street involved youth.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 1-6.
- Marmot MG & Wilkinson MG. (1999).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rphy A, Poon C, & Weigel M. (2001). *No place to call home: A profile of street youth in British Columbia*. Burnaby, BC, Canada: The McCreary Centre Society.
- Roy E, Haley N, Leclerc P, et al. (2001). Risk factors for hepatitis C virus infection among street youths.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65, 557-560.
- Rutman D, Hubberstey C, Feduniw A, & Brown E. (March 2006). When youth age out of care—Bulletin of Time 2 Findings.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Victoria.

- Saewyc EM, MacKay L, Anderson J, & Drozda C. (2008). *It's Not What You Think: Sexually Exploited Youth in British Columbia*. Monograph,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SBN #: 978-0-9810280-0-2.
- Saewyc EM, Brunanski D, Bingham D, Hunt S, Northcott M, Smith A,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Moving Upstream: The Health of Aboriginal Marginalized and Street-Involved Youth in BC*. Monograph, Vancouver: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978-1-895438-88-8.
- Shields SA, Wong T, Mann J, Jolly AM, Haase D, Mahaffey S, Moses S, Morin M, Patrick DM, Predy G, Rossi M, & Sutherland D. (2004).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Chlamydia infection in Canadian street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4, 384-390.
- Snow D. (2008). *A Roof Over Our Heads 2008: Affordable Housing and Homelessness Policy in Canada*. Calgary, AB: Canada West Foundation. Accessed April 2009 at [www.cwf.ca](http://www.cwf.ca).
- Smith A., Saewyc E., Albert M., MacKay L., Northcott M.,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7). *Against the Odds: A Profile of Marginalized and Street-Involved Youth in BC*. Vancouver, BC: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 978-1-895438-83-7.
- Smith A, Stewart D, Peled M, Poon C, Saewyc E,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A Picture of Health: Highlights of the 2008 British Columbia Adolescent Health Survey*. Vancouver, BC: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978-1-895438-89-5.
- Social Planning and Research Council of BC (December 2008). *Still on Our Streets...Results of the 2008 Metro Vancouver Homeless Count*. Vancouver: Greater Vancouver Regional Steering Committee on Homelessness. Accessed April 2009 at <http://www.metrovancouver.org/planning/homelessness/Pages/Resources.aspx>.

## 5) 핀란드의 청소년의식:

###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sup>12)</sup>

오늘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소년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한층 불안정한 상황과 미래에 직면해 있다. 몇몇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Bradley & van Hoof 2005; Ichiyo 2008) 많은 청소년에게 취업기회, 특히 영구적인 직장을 구할 기회가 점차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은 더 이상 미숙련의 사회경제제도상의 하층민이나, 고립 혹은 쇠퇴하는 지역 거주민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실업, 저직급배치(*under-deployment*), 하향이동의 문제는 상당한 불안과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관리직 및 전문직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Bradley & van Hoof 2005; Pahl 1996).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미국, 유럽국가 및 많은 아시아 국가의 노동자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심한 피해를 입는 계층의 대다수는 청소년이다. 올해 5월 핀란드 전체 실업률은 약 9%에 달한 반면, 청소년의 실업률은 24%로 상승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청소년 실업에 대한 노동당국의 조치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개념이 적어도 어느 정도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높은 청소년 실업을 기록했던 1990년대의 경기침체기보다 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은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소규모지만, 매우 눈에 띄는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 단체 활동과 노동시장 내 청소년의 지속적 고용 불안정이라는 현상을 낳는다.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소년 세대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회의주의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있다. 1990년대에 심한 불황을 겪은 이래로 많은 청소년들이 단기 고용 계약만을 맺어왔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일시적 실업의 지속

---

12) 이 글은 핀란드의 Jaana Lateenma에 의해 작성되었다.

을 경험하고 있다. 핀란드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거대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과거의 불황으로부터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분야는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부나 지방자치정부는 단기 계약직만을 고용해왔다. 그래서 이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회의주의 및 일부의 경우 냉소주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현 경기침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프리케리아트 세대’에 대한 논쟁으로 본 논문을 시작한 후, 과거 몇 십 년과 현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유럽 특히 핀란드의 청소년 실업상황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업유형 뒤에 숨어있는 다양성과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모델(interpretation model)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때 진행 중인 연구 과제(핀란드 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의 재정후원을 받는 Work Precaria 프로젝트, [www.Nuorisotutkimus.fi/Work-preca](http://www.Nuorisotutkimus.fi/Work-preca) 참조)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수집한 실증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아직 자료 수집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료에 대한 해석 역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임을 미리 밝혀둔다.

### ‘프리케리아트 세대’ 논쟁

‘프리케리아트’(불어로는 라 프레까리떼 ‘la precarite’)에 대한 논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성격을 띤다. 프레까리떼 혹은 프리케리아트라는 용어 (그리고 핀란드어인 *prekariaatti*를 포함한 많은 동의어)는 이탈리아에서 유래했으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프리케리아트라는 용어는 시간제 근무(part-time) 및 계약직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는 ‘불안정한( 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합성어로, 이 용어는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 precarious worker)를 새로운 사회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 역시 라 프레까리떼( la precarite)라는 용어가 원래 타인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불안정한( precarious)’에서 파생되었다고 지적한다(Korhonen et al.



2009, 13).

핀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유로-메이데이(Euro-MayDay)’ (Ross 2008; Hoikkala et al. 2006 참조) 및 일본의 ‘인디스 메이데이(Indies MayDay) 같은 시위를 통해 (Ichiyo 2008 참조) 인지도가 높아진 반(反)프리캐리티 운동(anti-precarity movement)은 ‘프리케리아트’에 대한 공개 토론회 및 최근 생겨난 사회학적 분석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운동은 주로 성년 청소년들이 주도한다. 때로 프리케리아트라는 용어는 비공식 혹은 한정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근무하면서 더 이상 정규직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jobber’라는 새로운 세대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정의의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점은 프리케리아트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포드주의식 임금노동을 더 나은 삶의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 고용 혹은 비표준 채용이라는 요인은 첨단지식 분야를 지향하는 ‘창의적 계급’뿐 아니라 소매 및 저가 서비스 제공 노동자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예: Ross 2008) 그러므로 프리테리아트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구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예술가, 음악가, 작가 같은 ‘창의적인 계급’의 경우 일자리나 임금에 있어 불안정성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교육, 마케팅 분야, 심지어 간호사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다(Ross 2008, Precarias a ala deriva-group 2009; Peltokoski et al. 2009). 핀란드 등의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많은 청소년층이 ‘프리케리아트’를 구성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의 프리케리아트는 이민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Ross 2008).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핀란드에서 직장 불안정화는 특히 청소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성별로 보자면 남성 노동시장보다는 여성 노동시장에서 발생한다(Miettinen 2007).

핀란드에서 단기 고용 계약은 과거의 경기불황 이후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핀란드 공공 분야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patkatyot*(핀란드어

에서 매우 짧은 것, 몽당연필 혹은 단숨을 의미하는 ‘patka’와 핀란드어에서 일이라는 의미의 tyo(t)을 합성한 신조어이며, patka 노동시장 등의 가능한 파생어가 존재한다) 같은 신조어를 활용해 논의해 왔다. 이 말은 기사들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으로, 정치 담론뿐 아니라 공식 노동시장에서 사용되었다. 핀란드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은 관련 논쟁에 프리케리아트(prekariaatti)라는 용어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프리케리아트’는 매우 이질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프리케리아트에 관한 공개 토론 및 사회학 논쟁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핀란드에서 이러한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단기취업계약만을 맺어온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patkatyolaiset가 ‘프리케리아트’와 같은 의미인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 있다. 핀란드 프리케리아트 운동이 발표한 최근의 성명에 따르면 이 둘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Korhonen et al: “The declaration of the Precariat: from shit-work to barricades”, 2009).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광범위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얻는 일자리는 기간을 고정시킨 계약에 근거하거나 아예 계약조차 맺지 않는 불안정한 직장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일자리를 좋아하는 청소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지만(Sell 2007; Korhonen et al. 2009), 적어도 핀란드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토론의 주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에서의 자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Miettinen 2007 참조).

### 청소년 실업과 현재의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 실업률은 현재의 경기후퇴가 닥치기 여러 해 전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등의 여러 유럽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왔다(van Hoof & Bradley 2005). 핀란드에서 청소년 실업은 1990년대 초 발생한 과거 경기침체 이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핀란드가 특히 심각한 불황을 겪었음을 의미하는 이른바 ‘핀란드의 특수상황’

이 초래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핀란드의 대외무역에 있어 각별한 중요성을 가졌던 이웃국가 소련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더 많은 정보는 위키피디아(WIKIPEDIA) "1990년대 초기 경기후퇴(early 1990s recession)" 참조).

핀란드 경제는 1990년대 후반에 겪었던 침체에서 빠져 나와 오늘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청소년 실업률은 다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 약간 호전되었으나, 현재 다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소년에게 다시 한 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09년 5월 27일 현재 전체 실업률은 9%인 반면 청소년 실업률은 24%라는 데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현 상황 해석

현 경기침체 와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소년의 분위기 및 생각/감정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과거 경기침체기와 다른 상황을 조성하는 요인이 적어도 두가지가 있다. 핀란드인의 집단적 기억에는 불과 15년 전에 발생했던 과거 불황에 대한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핀란드인이 가족이나 친구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실업자를 두고 있을 정도였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고통의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적어도 불황의 그늘에서 살았다(Lamsa 2009 참조). 이러한 과거가 현 경기침체 환경 및 새로운 사회적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이들 청소년의 감성 경쟁력(emotional compete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누구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핀란드 청소년은 일정한 직업을 찾는 일이, 특히 청소년들 자신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몇 년간 고용 불안정 문제가 핀란드에서 큰 화두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직업의 가치

에 대한 의심의 여지없는 관념이 희미해져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신교도들의 사고방식이 사라져간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편 영구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좋은 직장을 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꽤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지나친 공부의 결과로 핀란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기력이 쇠진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받는 극도의 압박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현상이다. (핀란드의 여학생들이 학업성적이 남학생보다 좋다는 것은 주지할 만하며, 여성이 남성과 함께 나란히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핀란드 사회에서 가정주부들의 모임이 활성화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직업과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 사이에 새로운 분열을 조성한다는 것은 꽤 명백하다.

## 기존 연구

지난 경기침체기 동안 핀란드 청소년의 직업관에 대한 양적 조사(예: Julkunen-Malmberg-Heinonen 1996) 및 질적 조사(Helvet et al. 1997, Paju 1999)가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근로지향(work orientation) 등을 주제로 한 조사도 지난 경기침체기와 현재의 경기침체기 사이에 진행되었다(예: Myllyniemi 2007). 핀란드 주변국에서도 청소년의 근로지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북유럽 지역 내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로지향을 보여 왔다. 90년대 중반에 핀란드의 남녀 모두 매우 높은 노동참가율을 보였으나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핀란드 근로 청소년, 특히 십대 청소년의 수는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핀란드 청소년의 교육 기간 연장 및 높은 실업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Julkunen & Malmberg-Heinonen 1998, 98-99).

1990년대부터 이미 사회발전, 새로운 기회 및 유연성으로 인해 의무와 직업윤리, 복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Sernhede 1996). 북유럽 국가들에서 행해진 일부 연구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 스웨덴의 한 연구는 3세대를 대상으로 직업관에 대해 조사했는데, 3세대 중 가장 늦게 출생한 1960년대 생에게 있어 직업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Almas 1997 according to Julkunen and Malmberg-Heinonen 1998). 핀란드에서 수행된 일부 질적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직업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핀란드의 지난 세대들과 같이 삶의 가치의 유일한 무대로 여기지는 않는다(예: Kortteinen 1992). 1990년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직업을 갖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유럽 지역 청소년의 90% 이상이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Julkunen and Malmberg-Heinonen 1998, 99).

핀란드인의 근로지향에 대한 최근 질적 연구에서, 근무를 의문의 여지없는 미덕으로 여기는 이른바 신교도 윤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핀란드 문화에서 다소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세대들, 특히 전후 세대는 과도하게 일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Siltala 1992; Kortteinen & Tuomikoski 1998) 이후의 청소년 세대는 보다 선택적인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 중 일부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 뿐이다(Sell 2007). 이와 관련해 특정 하위문화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ibid.).

이런 의견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세대가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단일한 대응전략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유럽 내 실업 청소년의 대응전략은 ‘구직포기’와 ‘필사적 구직활동’이라는 대조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Goede et al. 1996의 예 참조).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실업 청소년 사이에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필자는 오늘날 노동당국이 잘 만들어진 활성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고와 감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동시에 청소년

년들이 적극적이고 ‘기꺼이 수용된’ 것 이상을 수행하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의 불황 이래 핀란드의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탈피해 변모해왔다(Kildal 2001). 그 결과 수동적인 대처보다는 능동적인 정책, 유인보다는 제재, 권리보다는 의무로의 혁신이라는 흐름이 생겨났다(ibid.).

핀란드에서 ‘당근과 채찍’ 정책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 취업 및 학업 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당근’ 전략은 지금까지 핀란드 내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25세 이하의 실업자가 중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반적으로 16세에 종료하는 기초교육 과정 후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 의무적으로 학업에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만일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상태에서, 노동당국이 중등교육 수료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이들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후에는 전적으로 실업자 지위를 상실하며 결국 실업자 지위에 동반되는 모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률은 과거 핀란드 경제불황의 결과로, ‘청소년 학업을 장려하고’ 더불어 불명예스러운 청소년 실업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요소에 기초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 (90년대 핀란드 불황기와 비교했을 때) 실업 청소년 사이에 새로운 대응 전략이 부상하는 징후가 있는가?
- 그것들은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은 미덕이라는 관념, 실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업 정책과 대표적인 실천도구들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 방법론과 연구자료

필자는 휴직상태가 지속되는 청소년에 대한 실증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핀란드 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의 재정후원을 받는 연구 과제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Work-preca’ 과제, [www.nuorisotutkimus/work-preca](http://www.nuorisotutkimus/work-preca) 참조). 2008년에 시작된 본 연구 과제는 실증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의

목적은 핀란드 각지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며 현재의 경기침체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내의 불안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 세대(17세~29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 연구를 막 시작할 당시 핀란드에도 경기침체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이로 인해 동 연구의 부분적 수정이 요구되었다.

핀란드의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실증자료를 취합한다. 동료 연구자들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질적 면담조사자료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필자는 핀란드 지방에서도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필자는 표본추출 없이 조사를 진행해 왔다(N=810, 이 중 716명은 원 목표집단인 16세 초과 30세 미만에 해당). 본 조사는 올해 5월 7일에서 25일 사이에 온라인 상에서 실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 핀란드 노동부 홈페이지([www.mol.fi](http://www.mol.fi))에 링크된 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지에 답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 홈페이지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며, 때로는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이용자수는 주당 수 천명에 달한다.

본 조사의 질문 초점은 취업과 실업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꿈·두려움, 청소년들의 교육과 그 난점 대 용이점, 자신들의 교육수준에 맞는 직업을 발견한 경험·실업기의 감정과 행동양식·직장에 따라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의 이주 준비상태 등에 맞춰져 있다. 당연히 기본적 배경정보에 관한 질문도 있다. 질문지는 질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개의 개방형 질문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답식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5월 25일 자료수집을 끝마쳤을 당시에는 본 논문의 주제에 가장 타당한 몇몇 변수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몇 부의 질적 응답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으나 수일 내에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하지만 필자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 자료 중 일부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동 연구과제의 몇몇 초기 발견

실업 청소년들의 대응전략과 생활양식은 그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 즉 근면한 근무태도를 미덕으로, 태만을 거의 범죄 혹은 수치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방식 또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여와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 연구 자료에도 반영된 것같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오늘날의 실업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다. 노동당국의 조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모든 규칙과 제안을 따르는 데 열심인 경우부터 회의적이거나 심지어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 온라인 조사 응답자 중 3분의 2는 여성이며, 3분의 1은 남성이다. 표본은 16세에서 29세사이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21세에서 29세 사이이다. 응답자의 출신지는 핀란드의 5개 광역행정구역전체이다. 교육배경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부터 직업훈련, 기술전문교육 그리고 대학 학위(석사수준)로 다양하다. 필자는 질적 응답자료에 기초하여 특히 대학을 마치자마자 현 경기침체와 실업상황에 직면한 대졸자들이 매우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현 경기침체 이전에 이미 취업과 실업을 경험한 *patkatyalaiset*도 있는 듯하다. 여기서 필자는 필자의 연구 과제에 가장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5개의 태도진술 질문들에 대한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응답자의 40%가 영구적인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60%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현 세대에게 있어 직장의 영구성 대 한시성이라는 질문에 대해 적어도 두 종류의 태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프리케리아트 및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분석이 쉬워질 수가 없다. 실업의 공포에 대한 태도는 실체가 불명확한 동시에 다양하다. 42%는 "기초소득만 있으면 실업상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반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비율은 고작 58%에 불과하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같다면 영구적 직장이 아니라도 실업 보조금을 받기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진술에 39%는 반대, 61%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진술한 진술에 대한 응답과 매우 유사한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중 일시적 실업상태를 고수하는 이들이나 처음으로 실업상태에 빠



진 이들에게는 근로의 미덕과 그와 반대의 이미지인 미고용 상태에 대해 두 개의 상반된 태도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근로의 미덕이라는 사회윤리가 좀 더 강하지만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또한 우리 연구과제에서 동료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을 토대로 분류체계를 세워볼 수 있었다. 이는 본래 ‘아노미’와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머튼(Merton)의 전통적 분류체계와 유사하다(Merton 1938). 필자는 머튼의 분류를 부분 수정하였다. 이러한 착상, 즉 필자의 수정안은 새로운 것으로 본 논문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나, 이것이 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능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하간 이 분류방식으로 필자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 청소년 집단에 대한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분류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미덕으로서의 근로에 대한 태도, 혹은 실체가 불분명한 목표로서의 직업과 이를 성취하거나 거부하는 수단의 관점에서 이러한 분류체계를 세웠다.

머튼의 전통적 분류체계에서 문화적으로 결정된 목표(머튼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공 목표’)라는 항목은 ‘보수를 위한 근로’로 대체되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결정된 수단들은 ‘직장을 찾거나 취업능력을 유지하는 수단 혹은 양자 모두를 위해 공식적으로 수용된 수단으로 변경되었다. 후자에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재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 과거의 훈련내용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 노동당국이 제공하는 모든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필자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머튼의 전통적 분류체계로부터 유래한 구조와 기본 용어 및 ‘반응 유형’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필자의 연구 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참신하다 할 수 있겠다.

〈표 III-16〉 실업청소년의 분류체계

문화적으로 결정된 목표 (임금을 위한 근로)	구조적으로 결정된 수단 및 역할행동(구직을 위한 노력, 노동당국의 규칙준수)	분류유형
+	+	순응자
+	-	혁신가
-	+	의식주의자
-	-	회피주의자
+/-	+/-	모반자

+ = 수용      - = 거부

+/- = 구조적으로 결정된 목표 및 수단 거부와 새로운 목표, 수단으로의 대체

#### ‘순응자(CONFORMIST)’

이들은 문화적으로 결정지어진, 또한 당국에 의해 세워진, 목표를 수용하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재훈련과정을 거치고 보다 많은 교육(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아마도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까지)을 받음으로써 취업능력을 관리한다. 또한 이는 모두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한 취업이 용이하도록 자기자신을 유지하고, 능력을 배양하려 한다. 필자의 조사자료에서 대다수는 이 그룹에 속한 듯하다. 개방형 응답자료에는 수백장에 달하는 이력서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필사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의 경험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훈련과정, 근시일 내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신규 교육, 언어와 그 밖의 과정에서 자신의 취업능력을 개발했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취합된 자료로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직장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찾는 이들임을 감안할 때, 주로 순응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혁신가(INNOVATOR)’

일자리를 찾는 실업 청소년 중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전일제 일자리를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술 프로젝트 같은 무급의 일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청소년들은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정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가치는 자신을 표현하거나 창조적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Sell 2007 참조).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은 노동당국의 조치나 제재를 ‘필요악’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규칙과 규범부터의 회피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창조적일 일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두고 일을 혐오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직업 선택에 있어 까다로울 뿐이다. Work-Preca연구 과제에서 Anna Sell은 일시적 휴직상태를 고집하는 문화 지향적 청소년들의 전술한 정신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Anna Sell은 헬싱키 대도시권에서 이들 청소년들과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했다(Sell 2007도 참조). 필자의 조사 자료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몇몇 청소년들이 있는 듯하며 이들은 보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강한 근로유인이 있음을 강조한다.

### ‘의식주의자(RITUALIST)’

본 논문에서 의식주의자는 표류자/ 뜨내기라고도 묘사할 수 있다. 의식주의자는 노동당국의 조치를 받아들여, 제공된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수동적이며 심지어 체념한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의식주의자 그룹에서는 교육과정 혹은 견습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일뿐 아니라 그 어떤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중 일부는 창조적인 취미와, 언젠가 이 취미와 관련된 직업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꽤 막연하거나 꿈에 부푼 산만한 비전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필자의 연구 과제에서 Marjaana Kojo는 (Kojo & Sell 2009 참조) 청소년들과 질적 면담(qualitative interviews)을 실시했다. 핀란드에 경기침체가 도래하기 전 청소년 실업문제가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당시 그는 노동당국에 의해 조직된 트레이닝 워크숍 (training workshop)에 방문, 위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경제 활황기 노동정책의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은 주로 노동 시장 구조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이유로 취업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매우 힘든 유년기, 불황 혹은 기타 유사한 문제를 경험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혹여 있더라도, 낙천적이지 않았다. 필자의 조사 자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직 분석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

#### ‘회피주의자(RETREATIST)’

구직이라는 목표와 직업을 얻기 위해 노동당국에 의해 부가된 ‘강제적인’ 수단까지 모든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회피주의자들은 사회에서 벗어나, 술, 마약 혹은 도박 등에 심각하게 중독되곤 한다. 회피주의자들은 노동당국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식품이나 기본적 필수품을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약간의 수입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회피주의자들 또한 회색시장이나 그와 유사한 시장에서 일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들이 필자의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조사 중 개방형 질의 응답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자신의 인생관리라는 측면을 걱정하고, 실업이 계속되면 되는데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한다고 대답했다. 일부의 경우 매일 마약을 하거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재미있게 보이지 않아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청소년 실업률이 계속 지속되고 현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중독 문제를 가진 회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 날 것 이다. 핀란드에서 과거 경기침체기에 이러한 ‘상황’은 전개되었다(Paju & Vehviläinen 1999의 예 참조).

## ‘모반자(REBELS)’

보수를 위한 직업을 절대로 지향하지 않고 대안적 삶을 살길 원하는 프리케리아트 그룹이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찾는 일은, 이러한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의 삶의 목표에서 길잡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때때로 이는 소비문화 및 매우 낮은 삶의 질을 수용하거나 심지어 감사하는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모반자 그룹은 노동당국의 규칙과 지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필자의 연구 과제에서 Anna Sell은 이런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을 인터뷰했다(2007; Kojo & Sell 2009). 본 분류체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혁신가’와 매우 유사하다.

## 논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 현 상황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교육이 미래 직업을 보장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조치’는 해결책이라기보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목적과는 정반대로 노동시장 당국이나 심지어 제도로서의 국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청소년 세대 사이에서 비판이 증대될 수 있다. 이는 전 사회의 정체성 위기를 확대, 심화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 세대에 더욱 더 심한 아노미(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제창한 고전적 사회학 정의를 사용)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 기원을 둔 급진적 프리케리아트 운동은 이미 이러한 아노미 상황을 조장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법칙을 따르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은 도둑질하는 것, 대중교통을 표 없이 타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 시스템이 불공평하며, 그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용인 될 수는 없더라도 불행히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필자의 연구 자료를 개략적으로 훑어보더라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준법정신이 있는 듯한 순응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조차 아노미 상황이 부상하고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반 이상의 응답자가 다른 종류의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몰래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몰래 일하는 것은 위험한 범죄는 아니지만, 핀란드법에는 저촉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점점 탈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이며 정책수행의 정당성과 당국의 권위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채찍과 당근을 가졌지만, 채찍만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적극적 노동 정치학’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신화 그리고 먼 미래에나 겨우 닥칠 것처럼 말하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실업 청소년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연구자들의 의무가 아닌, 정치가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임무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 VI. 글로벌 시대의 인재개발전략





## IV. 글로벌 시대의 인재개발전략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이다.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체험학습을 통한 사회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시도이자 다양한 글로벌 문화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정의, 인권, 평등, 환경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의 책임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포럼자료집). 실제로, 미지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리더양성사업 등 미지센터 프로그램이 참가청소년들의 다문화감수성을 발달시키는 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글로벌역량개발전문가 2차 포럼 참조). 2006년 4월 한중미래숲 5기 방문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한 학생도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국제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래숲 활동을 계기로 사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의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에코-투어리즘을 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 다양한 국제 경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생관과 직업관을 바꿔 놓을 수 있으며 특히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인재개발전략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참가 기회 제공

앞서 국내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 국제 경험을 쌓는 것은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고정 관념의 불식과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재개발전략이다. 사실, 국제교류의 기회는 영어에 비교적 능통한 일부

청소년들에게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참가자의 일정 비율을 이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할애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위에서 논의한 대로,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지센터의 다양한 활동사례에서 나타나듯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세계적 관점의 교육, 문화간 이해에 대한 교육, 세계문제 및 이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세계 시민교육이다(김현덕, 2008). 이는 청소년들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길러 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대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이 필수적이다.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내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국제적 시야와 관점을 갖는다면 글로벌 환경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참여의 보장

청소년들이 그들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호주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은 직접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조사해 정책당국에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며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추진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청소년문제를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 4) 가출, 노숙청소년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길거리로 쫓아져 나오는 가출, 노숙청소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캐나다의 취업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해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출, 노숙청소년들을 사회와 연결시킨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살폈듯이,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프로그램은 길거리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면서 임금을 받는 제도이다. 취업 후에는 멘토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노조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노동조합, 청소년지원기관이 상호 협력해 가출, 노숙청소년들의 취업을 돕는다는 면에서 캐나다의 사례는 가출, 노숙청소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5) 비정규직 청소년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앞서 살폈듯이, 혼다 유키 교수는 일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강력한 이중구조라고 언급하면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간 현격한 차이가 청소년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핀란드 사례에서 논의된 ‘프리케리아트’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09년 청소년실업률은 24%로 상승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2007년 15~24세 청소년 노동자의 30%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에 종사했다. 혼다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으로 경제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변화를 꼽고 있다. 즉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사업으로 재편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출현하면서 값싼 인건비로 적시에 동원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세계경제환경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기업 외부의 공공직업훈련기회 제공, 취업안내 및 상담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세계경제구조의 재편으로 국내에서도

비정규직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쏟아져야 할 것이다.

## 6)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발달

최근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활동이 강조되고 있다(천정웅, 2009). 이 관점은 청소년을 연령구분에 입각한 발달적 시기로 보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세대로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잠재성, 자산, 자원을 가진 존재로 본다. 중국의 예에서처럼,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인 청소년센터가 이익추구를 위한 활동에만 매달린다면 청소년의 다양한 잠재역량을 개발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재개발을 위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들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활동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덕목이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청소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7) 글로벌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앞서 호주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글로벌화의 진전은 정신건강이나 비만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호주 청소년들의 25%가 정신적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4명 중 1명의 청소년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고 청소년복지와 보건, 교육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V.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 할 것 없이 글로벌 시대 청소년들의 인재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나라마다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사례간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해 외국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발전과 위기 등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의 인재개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지센터는 국제이해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다문화이해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평화와 평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인권존중에 관한 프로그램, 세계화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해외봉사단체인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는 1989년 창설된 이래 연간 수백여명의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국제워크캠프기구(IWO) 또한 청소년교류와 국제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가령, 캐나다의 경우 가출청소년 등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연계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길거리를 전전하는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건설업관련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현격한 차이)에 직면해 점차 비정규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취업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의 직업 관련성 증진, 임금 및 직업 기회에 관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차이 축소, 기업 외부의 저렴한 공공직업훈련의 확대 및 졸업생을 포함한



한층 더 광범위한 청소년에게 취업안내 및 상담기회 부여 등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핀란드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로 최근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오히려 사회의 정체성 위기를 확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청소년 인재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인프라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sup>1)</sup>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영어 실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어실력은 있지만 글로벌 환경에서 제대로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협상을 하고, 전략적 관계를 끌어낼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의 현장 참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해 외국어를 사용할 때 말의 설득력이나 협상에서 주도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제교류활동의 참여는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청소년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08 참조).

국제워크캠프기구 염진수 소장은 국제활동 프로그램과 글로벌 인재육성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싶어 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개발과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킴으로써 글로벌 인재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글로벌 인재육성에 앞서, 글로벌 실무자와 기관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제 프로그램을

1) 제1회 글로벌역량전문가 연구포럼 김소희 박사 토론문에서 인용함.

하려면, 사전에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만약에 자체 구축이 어렵거나 초기단계라면 기존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으로 해결 가능하다. 셋째,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체험과 창의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령,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sup>2)</sup>나 영국의 Gap Year<sup>3)</sup>, 미국의 고교동아리활동처럼 청소년들이 중고교시절부터 다양한 직업체험과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방안들이 궁극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교육열과 사교육비 지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고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교류의 참가는 자칫 시간의 낭비나 입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핀 대로, 글로벌 시대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양성은 시대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시급한 사업이다. 청소년기 국제교류와 해외봉사활동의 경험으로 인한 글로벌비전의 형성과 시야 확대 등 국제교류로 인한 이점들을 지속적으로 학교 교사나 학교장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과과정 내에도 세계시민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 등의 이름으로 교과가 개설돼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국제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제반 이슈들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2) 아일랜드의 중학교는 2학년제이다. 그렇다고 고등학교가 4학년제는 아니다. 우리와 같은 3학년제로 운영된다. 아일랜드의 학생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1년을 '전환학년'(Transition Year)이란 기간으로 보낸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향후 자신의 진로 판단과 실용적인 체험 학습을 위해 교과교육을 접고 직업체험, 여행, 봉사 및 사회활동 등 1년 동안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김형주 칼럼에서 인용).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에 따라 농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 해당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며 바닷가 섬나라에서 해양생물을 연구할 수도 있다. 현재 영국 내에서는 다양한 갭 이어(gap year) 프로그램 알선업체와 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 2. 정책제언

앞서 논의한 국내외 인재개발 현황을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해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중장기적 청소년글로벌 인재개발 정책 강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활동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국제교류활동이 청소년활동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수요도 높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시스템이 취약하다. 현재 청소년교류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는 정책개발보다는 정부 간 청소년교류업무의 실행부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인재개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국가가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대형 국제교류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국제교류 사업은 성격상 고비용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와 해외봉사활동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틀을 만들어 국제교류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즉 청소년 국제교류의 사전교육과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교류 활동이 참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문화간 감수성 또는 다문화주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박주희·정진경, 2008). 미국에서는 일찍이 문화간 감수성발달이론에 기초하여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가 개발돼 다문화주의와 문화간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문화의식정도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척도들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 2) 세계 글로벌 인재개발을 위한 청소년 장차관회의 개최

청소년국제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인재개발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국가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은 동북아 혹은 세계 청소년장차관 회의와 같은 최고지도자 혹은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것이다.

유학, 여행, 취업 등 국가간 청소년 교류와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 청소년장차관 회의를 통해 국가간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각 국은 글로벌 인재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글로벌인재 개발 추진주체간 기능 및 역할 분담

중앙정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추진 주체별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전문 인력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자율권 보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분담에 포함될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해섭, 2004).

첫째, 중앙정부가 청소년국제교류정책 입안 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최대한반영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특성과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중앙정부가 충분히 반영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및 관련 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분담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예산을 시군구 단위에 편성하여 자체적인 추진이 가능케 해야 한다. 예산 지원 방식에 있어 중앙정부가 특정사업 혹은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포괄적인 예산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최근 들어 지방 균형발전과 국가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온 사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아래 현실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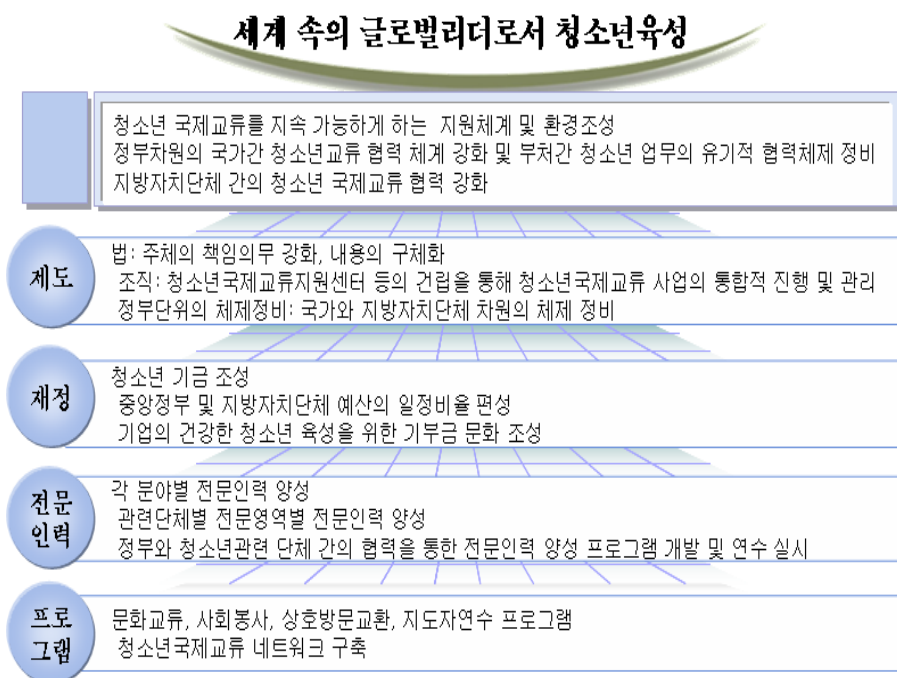
셋째, 중앙정부는 중장기적인 사업구상과 단계적인 추진전략과 같은 전반적인 기획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및 지역 특성과 민간단체의 설립취지에 적합한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 4)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구축

현재 국가간 청소년교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청소년단체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국가간 교류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국은 [그림 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청소년국제교류전문 인력 확보, 법·제도적 정비, 국제이해센터 건립과 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청소년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청소년교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개발 및 예산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지원 확대 ③ 학계

및 청소년지도자 교류활성화 ④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의 간편화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림 V-1] 청소년글로벌 인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영역

## 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확대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탐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장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효능적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대구한의대청소년문제연구소 자료집, 2009).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127개 회원국들과의 활발한 국제프로그램교환과 국제기구와의 유기적 연계로 인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개발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자료집).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글로벌역량개발 활동정책 활성화 및 프로그램인증제 확대

요즘 청소년들은 전통적으로 주입식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적응력과 암기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는 반면, 21세기가 요구하는 뭔가를 직접 할 줄 아는 능력은 더욱 신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들을 산업사회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정책 담당기관과 실천 현장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활동을 제대로 개발하고 운영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자율화, 다양화, 전문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줄 아는 실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출신학교보다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지를 더 고려한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백순근, 2009).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은 단순히 체험하고 끝나는 일시적인 활동위주보다는 뭔가를 실질적으로 ‘할 줄 아는 능력’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7) 청소년 글로벌역량개발과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우리 사회가 여러 영역에서 통합화를 경험하고 있듯이 학교교육과 학교밖의 청소년활동이 함께 걸치는 공유부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1년부터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될 예정이다. 즉 초·중등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

상,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이 잘 확보된다면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글로벌 세계에 대한 이해, 각 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권대봉(1998). 글로벌인재의 조건. 서울: 박영사.
- 김현덕(2008).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의 역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115-145쪽). 서울: 동녘.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30 청소년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대우한대학교청소년문제연구소(2009.05.29). 글로벌 청소년포럼 및 지역정책토론회 자료집.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05. 22).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개발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2009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춘계학술대회.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 오해섭·문경숙·권일남·김소희(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오해섭(2004).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연구-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 윤철경·유성렬(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희 외(1999). 청소년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모형개발.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병술(1999). 21세기 한·일 지방자치단체간의 청소년교류 활성화 전략.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세미(2005). 세계는 지금 이런 인재를 원한다. 서울: 해냄.
- 천정웅(2009).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활동: 역량개발의 이론, 정책, 실천. 대우한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주관 ‘글로벌 청소년포럼 및 지역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 연구.



## 부 록



## 부록 : 5개국 영문 발표 자료

### Global Issues, Local Responses: Challenges for Youth and Education Policy

Johanna Wyn (Professor, University of Melbourne)

A recent headline in an Australian newspaper announced: "mental illness ravaging nation's youth", with one in four young people battling with a mental illness. Although the headline was rather sensational, it drew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significant minority of young people today are struggling to be well. Other recent headlines have highlighted drug and alcohol abuse and obesity as new health concerns in the young population. In Australia and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Canad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New Zealand (Wyn, 2009)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current services and approaches are not adequate to meet the expanding group of young people who are not well. The emergence of young people's health as an issue in developed countries presents a paradox that warrants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draws extensively on my recent book *Youth Health and Welfare: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and Wellbeing*, 2009.

The paradox lies in the fact that traditionally, increased level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high levels of national wealth are associated with improvements in the health of populations. Over the last 20 years, this association has been challenged as new health issues such as obesity and a range of mental health disorders (including anxiety and depression) have been on the rise amongst the young population and older health issues such as sexually transmissible diseases have proved to be enduring. I argue that the status of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is directly related to social change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processes and that these developments deserve to be taken more seriously in the jurisdictions that have responsibility for youth and especially the dominant two: education and health. Indeed, focusing on the area of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provides an illustration of how local solutions are being sought for problems that are generated by global processes of change.

Young people have little choice but to respond to and work with the effects of social change on their lives. The pace of change has meant that new skills need to be learned, frequently and new circumstances regularly adapted to. Digital technologies have enhanced our capacity to access information and have created the expectation that individuals will learn how to use successive waves of new applications and forms of new technologies in personal life and in work settings. At the same time, the widespread emergence of flexible and precarious employment has meant that individuals need to be able to regularly learn new skills and take up new options in order to survive.

There is a convergence of opinion that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rocesses of late modernity have meant:

1. Greater complexity of pathways through youth. Changes in the nature of work have meant that young people must make their own routes through education and work in new economies (Ball et al. 2001) and negotiate new sets of risks in the form of 'personal' choices (Furlong & Cartmel, 2007).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risks of changing skill requirements and the emergence of flexible and precarious labour markets means that young people feel the need to hold their options open and to make decisions that enable them to balance being in the present with an orientation to the future. In many countries a majority of young people are both workers and students, establishing a pattern in secondary school that they will continue throughout life (Stokes & Wyn, 2007). The links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are also increasingly complex and unpredictable (Wyn, 2006).

2. Adulthood is achieved incrementally and earlier than for previous generations. The relevance of age as a marker of transition to adulthood is therefore reduced and new patterns of adult life are forged relatively early, breaking down clear distinctions between youth and adulthood (Dwyer et al., 2005), as noted by youth researchers in many countries. For example, in Europe a ‘new’ youth has emerged, (Leccardi & Ruspini, 2006); in the United States, Arnett (2004) has identified ‘emerging’ adulthood and in the UK Henderson et al. (2007) explore the ‘invention’ of adulthood by young people. Paradoxically, in all Western countries, youth researchers note the increased length of time that young people spend in education, and the trend towards life-long education.

These developments offer unprecedented opportunities to some young people, but at the same time they present considerable challenges that have an impact on their health and wellbeing.

Contemporary youth policies are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young people who have the appropriate skills and dispositions to serve post-industrial economies. In late modernity, national investment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young people is seen as a key to developing human and social capital as a basis for sustaining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as well as for ensuring social inclusion and active citizenship.

Traditionally, the first of these preoccupations has dominated youth policies, especially in the form of a preoccupation with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nd with the idea that there is a mainstream, with which ‘at risk’ or vulnerable youth can be aligned. The constellation of issues that relate to social inclusion, wellbeing and active citizenship have a relatively minor role. I argue that contemporary social change has fundamental implications for the nature and

meaning of education, work and family life and in the experience of health and wellbeing (Wyn, 2009). As young people themselves seek to learn in both formal and informal settings, to combine work, family and leisure in new ways, a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health and wellbeing,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our approaches to youth policy. For youth researchers, this presents both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In the following section I provide a brief reflection on the implications of processes of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on young people's liv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wellbeing. Next I present some findings on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and then discus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is presents to youth researchers, exploring examples of new directions and approaches to research and practical initiatives that aim to promote young people's wellbeing at the local level.

###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young people's wellbeing

Young people face the challenge of making their lives in the new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and urban-based economies. They are doing this against the backdrop of a decline in the stability of social structures such as family, work and social security and a loosening of the links between structures such as education and employment. Changes in labour marke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in workplace relations have altered the significance of the traditional markers of adult status and of traditional institution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There is evidence that most young people negotiate these challenges actively and positively, and as they do so, they craft adult identities that differ from previous generations, form new social relationships and make new uses of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Furlong & Cartmel 2007, Wyn & Woodman 2006, Beck & Beck-Gernsheim 2001, Mizen 2004).

Social change has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significant new opportunities and also new issues for young people, leading to different possibilities than were open to previous generations (especially the post-war generation that was born in 1945 - 1960). For example, in Australia there is evidence of the emergence of a 'new adulthood' (Dwyer & Wyn, 2001) which involves early engagement with adult practices (e.g. student workers, earlier sexual experience) and a shift in approaches to life (e.g. keeping options open, being compelled to make choices, assum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even for things that are not in one's control). This approach contrasts with earlier views that proposed that the period of youth had become an 'extended' phase of life, before eventually settling into the traditional (or perhaps expected) pattern of 'adult' life - secure job, marriage, children and buying one's own home. In Europe researchers see the emergence of a 'new youth' (Leccardi & Ruspini, 2006) which is reflected in distinctive new patterns of life (e.g. marrying in one's 30s, inter-generational inter-dependence, beginning a process of life-long engagement with education). In the UK, where it is agreed that youth transitions have undergone significant transformations, Henderson et al (2007) explore the 'invention' of adulthood by young people and Furlong and Cartmel (2007) argue that young people must actively shape their identities against a backdrop of changing expectations and possibilities.

These chang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ducation, because they change the nature of what young people need to learn and what they need to become in order to thrive. At the centre of the changes is an increased expectation that individuals will navigate their own way through uncertain times, developing the capacity to be self-aware, flexible, entrepreneurial and responsive. These capacities are especially relevant to pattern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the service sector of urban economies in which poverty, insecurity and hybrid forms of existence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re a central part of the context from which young people construct their 'choices' in life. An



extensive body of research documents the emergence of these new demands on young people (McLeod & Yates 2006; White & Wyn, 2007; Wyn & Woodman 2006). These studies also reveal that some narratives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s in locating the narrator within a meaningful storyline in which the thread of past, present and future achieve a workable biography (Wyn 2007).

These developments have two important implications for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Firstly, the requirement to have options, be flexible and develop individual narratives that can guide life choices places stress on individuals. At a very basic level, managing one (or more) part-time jobs as well as studying requires careful time management and effective personal control. The constant focus on positioning the present so that the (uncertain) future is managed places a lot of pressure on young people. Secondly, managing to be well has become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for good health and overall wellbeing is seen not only as a good thing, but a moral obligation. Failure to reach the standards of health, fitness, and wellbeing that are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is often accompanied by guilt. Both of these elements can be summed up by reference to the 'project of the self' which involves an orientation towards self-management within various 'codes of success, and engaging in self-surveillance and monitoring one's body' and performance in all areas of life (Beck and Beck-Gernsheim, 2002: 140). Indeed,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linked these pressures and expectations with the high rates of anxiety amongst young women (Donald et al., 2000; Wyn, 2000; Harris, 2002) and with youth suicide (Fullagar, 2003).

### The youth health paradox

In Australia, although young people are the healthiest group of the population, some health issues, such as drug abuse and sexually transmissible diseases have proved to be enduring and new issues, such as mental health and obesity have

emerged (see Figure 1). This development seems paradoxical, given that according to health population scientists, increases in educational levels and wealth are linked to increases in health status. Instead of experiencing improvements in the health of young people, unprecedented level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by young people, as well as relatively high levels of wealth, have been accompanied by the emergence of health issues (AIHW, 2007). This trend is reflected in the statistic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Canada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6),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2002) and the UK (National Statistics, 2004).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ssues of HIV/AIDS and of reproductive health are the dominant health issues regarding young people (Boyd, 2005). Within countries and between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research reveals that inequalities in health outcomes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emerge as a key concern. Indeed, in all countries young people's health is a sensitive indicator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Keleher, 2008). In Australia for example, the health of young Indigenous people is dramatically and chronically worse than for their non-Indigenous counterparts. Young people who live in families and communities that are characterized by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poverty also have poorer health than their more privileged counterparts.

Figure 1: Some facts about young people's health in Australia today

- The death rate fo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young people is just over 4 times that for non-Indigenous young Australians, and for young Indigenous males is twice that for young Indigenous females (AIHW 2007)
- Safe neighborhoods are associated with bette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ducational achievement of young people (Meyers & Miller, 2004, quoted in AIHW, 2007: 94)
  - 36% of young people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lived in families with poor or fair family cohesion, compared with only 13% of those withou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 People without social support have higher rat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than people with social networks
- 25% of young people experience a mental disorder (AIHW, 2007)
- Young people who had not completed secondary school had a higher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 (35%) than those who had completed secondary school (25%) (AIHW, 2007)
- Young people who were not employed and not in the labour force were also more likely to suffer a mental disorder than other young people (AIHW, 2007)
- Illicit drugs (12%) and alcohol (11%) contributed to the greatest ill health for young males (for young females the greatest ill health was accounted for by intimate partner violence) (AIHW, 2007)
- Alcohol was identified as an issue of significant concern to young people by 27.3% of young males aged 11–24 and by 19.6% of young people aged 11–15 in 2007 (Mission Australia, 2007).
- 25% of young people were categorized as obese or overweight in 2004–5 an increase from 2001, and less than half of young people were meeting recommended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IHW, 2007)
- Body image was the most significant issue to young Australians aged 11–24 in 2007, (32.3%) followed by family conflict (29.3%) and coping with stress (26.9%) (Mission Australia, 2007)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Youth Researchers

Although there are frequent calls for the renewal, transformation and reform of education and health systems in Australia and many other countries, in reality these systems have changed far less than the world that surrounds them. This present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youth researchers. They have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n evidence base that will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new approaches and practices that move away from the out-moded models (and institutional processes) that are themselves in crisi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it is possible to identify new directions that acknowledge the need to change the ways that institutions work in the interests of young people's wellbeing. However, although the source of many of these challenges and problems can be linked to complex social and political processes that are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the solutions are generally found at the local level. In practice, this means that, in partnership with schools and the community sector more broadly, youth researchers have a role in a) leading conceptual renewal and b) supporting institutional change across the jurisdictions of education, health and the youth sector.

### Conceptual renewal: rethinking youth

In a time of rapid social and economic change, institutional practices can lag behind the reality of young people's lives (Wyn & White, 1997; Cohen, 1997). Figure 2 provides a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young people are positioned within two distinct periods. The first is the industrial era, within which mass secondary education in Australia was framed. The second is the post-industrial era, which has seen the rise of mass tertiary education.

Figure 2 emphasizes the shift from age-based approaches to learning that informed institutions that served industrially-based economies to those that acknowledge the changing meaning of age within a post-industrial society.

Figure 2: Youth: tracing conceptual renewal	
Industrial (modernity 1945–1975)	Post-industrial (late modernity 1976– )
Youth as transitional period – a separate stage from adulthood	Youth intersects with adult practices – blurring of lines between youth and adult
Youth as future of society: both hope and threat	Young people contribute in the present as decision-makers and as entrepreneurs
Youth framed by futurity – as becoming	Youth framed by participation – as being and becoming
Adulthood – a point of arrival	Adulthood – a state of constant transition involving re-invention & self improvement
Youth as being in deficit (pupils, patients)	Youth as partners (co-learners, self-managing)
Youth as responsibility of the state (student)	Youth as consumer (client, choice-maker)
Mainstream and at risk	Diversity

Source: Wyn, 2009.

In one sense, youth is now more difficult to define, and cannot be contained with the older categories that defined as a distinctive stage differentiated from adulthood. This figure highlights the need to match thinking about what youth means today with the realities of how young people experience their lives – and to move away from conceptions that were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of a previous era.

It is increasingly problematic to see the period of youth as a period of life involving normative behaviors and practices when social practices and

relationships have blurred the traditional lines separating youth from adult. Yet this presents a serious challenge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The diversity of young people's trajectories, the complexity of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uncertainty that surrounds their lives makes control through older styles of governance (and policies) increasingly difficult. Increases in uncertainty and fragmentation of traditional processes and pathways do not lessen the need to have systems in place to support and guide young people. However, responding to young people's real needs and developing systematic processes to enhance their wellbeing now presents the challenge of acknowledging diversity. The challenge for youth researchers is to promote the positive role that young people play in society as young people.

There are three areas of institutional change in which youth research is crucial: a) participatory practices involving young people in decision-making about their learning and wellbeing; b) collaborative arrangements between education, health and other jurisdictions responsible for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and c) new approaches to professional learning. In each of these areas, effective responses to young people's needs require the development of a sound evidence base on which to develop policy and programs. The examples below are drawn from research into local responses to global issues.

#### a) Participatory practices

Institutions devalue young people when they enact policies and programs 'in young people's interests' that have been developed with no authentic connection to what young people think, say they need and would benefit from. Involving young people does not mean that their views are accepted at face value or taken uncritically. Carefully constructed processes, policies and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decision-making processes involving young people and these are the most likely to be successful (Youth Affairs Council of Victoria, 2004a;

Holdsworth et al., 2008). Strategies that are designed to support young people's wellbeing are more likely to work if young people themselves are confident that the processes will work. Consulting with young people is an important way to ensure that professionals are informed about the nature of the problem from young people's view and that young people have an understanding of how the strategy will work.

Organiz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in the methods they use for involving young people in decision-making (see Youth Affairs Council of Victoria, 2004a; 2004b; Wierenga et al., 2003). Student Action Teams are a participator initiative that has been supported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Victoria since 1999 to involve young peopl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learning. They are an example of an inter-sectoral collaboration involving the Victoria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 Victorian Department of Crime and Justice and the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Examples of projects include building an environmental walk and running track for student and community use surveying local traffic conditions and petitioning the local council to provide a traffic roundabout near the school to improve safety and research on bullying within the school, reporting on the results and making recommendations for action (Holdsworth et al., 2003: 19-20). The evaluation of the Student Action Teams found that young people benefited from being actively engaged in their learning through three key dimensions: having a sense of purpose having a sense of control and a sense of belonging (Holdsworth et al., 2003: 45).

#### b) Inter-sectoral collaboration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young people's wellbeing can be more effectively promot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sectors, organizations and services, but this requires strong leadership as well as the support of school

management (Wierenga et al., 2003; Tett et al., 2003). Support for the idea of inter-sectoral collaboration generally comes from the acknowledgement that without some form of inter-sectoral collaboration young people in most need are likely to ‘fall through the cracks’. It is also widely acknowledged that in young people’s lives, problems are ‘joined up’ and that services and organizations are too fragmented (Wierenga et al., 2003; Harris, 2005).

Collaboration by agencies can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with their communities. A program called 10MMM for example, worked with a local school to draw young people into a regular radio program. This made young people more visible in their communities and enabled services to find a common focal point for connecting with young people around health and wellbeing issue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arriers to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is the gap between universal programs (e.g. education) and specific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address prevention (e.g. test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or disease) and treatment (e.g. therapy, counseling, medical attention). A liaison worker who can bridge this gap in the interests of individual young people is an important resource, enabling all services to operate more effectively.

### c) Professional learning

Literature on initiatives that address young people’s wellbeing in educational settings often conveys the hopes that individual leaders have for their programs and illustrates the significant achievements of individual initiatives,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sense of ‘reinventing the wheel’ as organization after organization ‘discovers’ new practices that are often repetitions of the same ideas. From time to time practitioners acknowledge how difficult it is to do collaborative practice and many acknowledge the impediments to creating sustainable change once the pilot program or project funding ceases. This



reflects a lack of investment in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bases for new professional practice. This is an area where researchers have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Effective collaboration across the different services, jurisdictions and systems that have responsibility for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will depend on the generation of new professionals who are able to work across disciplines, communicate across sectors and recognize the challenges and benefits of new ways of working that are both more participatory and more collaborative. The nature of professional learning is itself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new practices. In the main teachers, youth workers, counselors, nurses, general practitioners and social workers learn their professional skills in isolation from each other. Different professional languages, taken for granted within each profession, make it difficult for professionals to work together across these professional boundaries and there are few if any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s in medicine, nursing, education, social work and youth work to engage in learning with each other. Effective and informed responses to global issues that impact on young people's lives requires a commitment by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to invest significantly in the ongoing professional learning of their staff and perhaps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change. Teachers and school-based workers potentially have the most important role of all professionals in shaping young people's wellbeing, but with some significant exceptions these systems have not made the level of investment in ongoing professional learning that would generate new knowledge to meet the changing shape of their profession.

## Conclusion

Professionals who are interested in young people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develop new ways of working, and policy decision-makers seek to develop new

approaches that move away from out-moded institutional models of practice that are increasingly out of step with new global realities. This presentation has identified key challenges for youth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achieving institutional renewal that supports young people's wellbeing - addressing global issues and challenges at the local levels. It argues that the challenges are to:

- understand and value the role that young people play in society as young people
- recognize and value diversity and
- integrate processes that promote wellbeing into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e argument for conceptual renewal and institutional change draws attention to the gap that exists between new realities being lived by young people in the late 2000s, often expressed at in local ways, but increasingly responding to global processes of change, and the institutions of health and education that are still based on systems, structures and ideas that served the industrial society of Australia in the 1950s. Two dimensions in particular have emerged as areas of institutional change: involving young people in decision-making an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Youth researchers have an especially significant role at this time, drawing on their understanding of global processes of social change and working at the local level to address specific problems.

Professionals who work with young people have identified the need to work collaboratively in order to join the gaps that are evident between services and organization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ith those who are interested in young people's wellbeing, because wellbeing is not the prime concern of the health or education sectors. Inter-agency collaboration is not new, but employers have been slow to recognize the new kinds of knowledge that are needed to make collaboration across sectors, disciplines and professional boundaries work.

Professionals regularly ‘reinvent the wheel’ as they learn through practice what their professional degrees overlook.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arriers to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is the way they experience the gap between universal programs (e.g. education) and specific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address prevention (e.g. test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or disease) and treatment (e.g. therapy, counseling, medical attention).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hile there is strong support for both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renewal along the lines suggested here, older concerns continue to be important. In Australia, the young people whose wellbeing, health and outcomes from education are the most systematically compromised are those young Indigenous people and those who are living in poverty and adversity. The challenges of both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renewal include the determination to recognize and address the ways in which social exclusion, processes of marginalization; poverty and racism continue to harm young people, and to contribute to the design of new approaches that will meet the needs of all young people.

# Changes and Problems in the Youth Labor Market in Japan

Yuki Honda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 Introduction

This presentation aims to discuss the changes and problems in the youth labor market in Japan. Four points are mainly discussed. First,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working conditions of young people since the early 1990s are described. Second, the discourses about youth associated with these changes are examined. Third, the causes for the rapid change in the youth labor market in Japan are explained. Finally, some countermeasures necessary to improve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working conditions of young people are prop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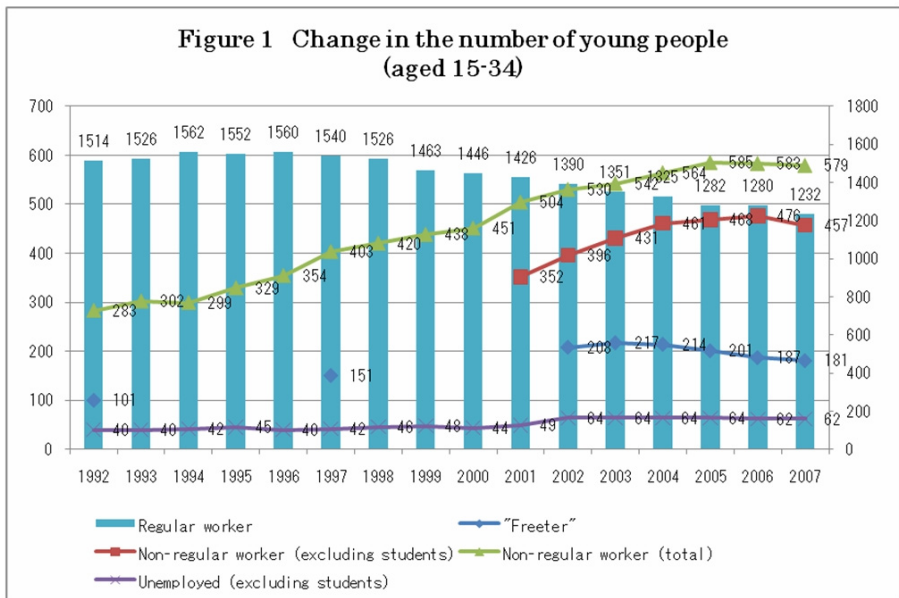
## Changes in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Working Conditions of Young People

The recent youth labor market in Japan is characterized by its strong "dualism," which refers to the great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OECD 2009). "Regular workers" imply permanent, though not necessarily lifetime, full-time workers. "Non-regular workers" consist of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contracted workers, and dispatched workers. Since the early 1990s, the number of regular workers has reduced while that of non-regular workers has remarkably increased among young people (Figure 1). In 2007, more than 30% of young workers aged 15 - 24 were in one of the various forms of non-regula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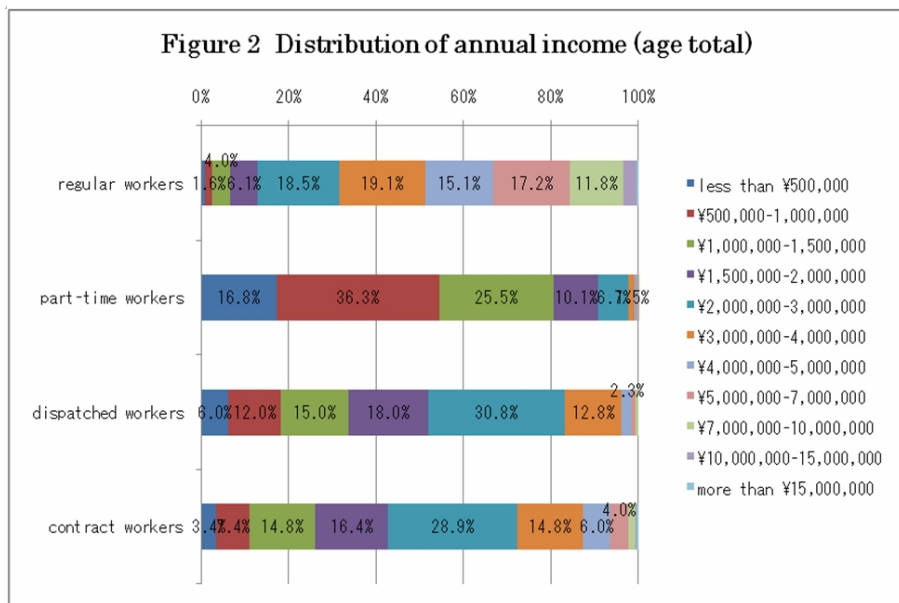
This change has brought about the result that both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re experiencing ever-deteriorating working conditions.

First, non-regular workers are subject to the obvious job insecurity and

poverty. The fact that the path leading from non-regular to regular employment opportunities is narrow has a negative effect on future prospects of young non-regular workers and increases anxiety and despair among them. Not only is their employment situation unstable, but their wage is also extremely low compared to regular workers (Figure 2), and most of them are assigned low-skill, dead-end jobs day after day. Moreover, they are constantly required to transfer from one workplace to another,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Source: Labor Force Surve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Source: 2008 White Paper,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lthough about one out of three young workers are faced with such difficult living conditions, the Japanese society as a whole seems to be rather peaceful compared to the case in France and Korea, where labor problems have led to riots. This is only because many young non-regular workers in Japan are able to rely on their parents' income and savings for the present. Seventy to eighty percent of young non-regular workers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ir parents' financial support temporarily buries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however, this situation will not prevail for long. In the next few decades, after their parents' demise, low-wage workers will no longer be able to sustain their living standards. It is estimated that a relatively large section of these workers will have no other way of earning a livelihood but to rely on public livelihood protection. The Japanese society will have to cope with this problem sooner or later. Even today, those who cannot rely on their parents due to their demise or strained relationships with them are already experiencing extreme hard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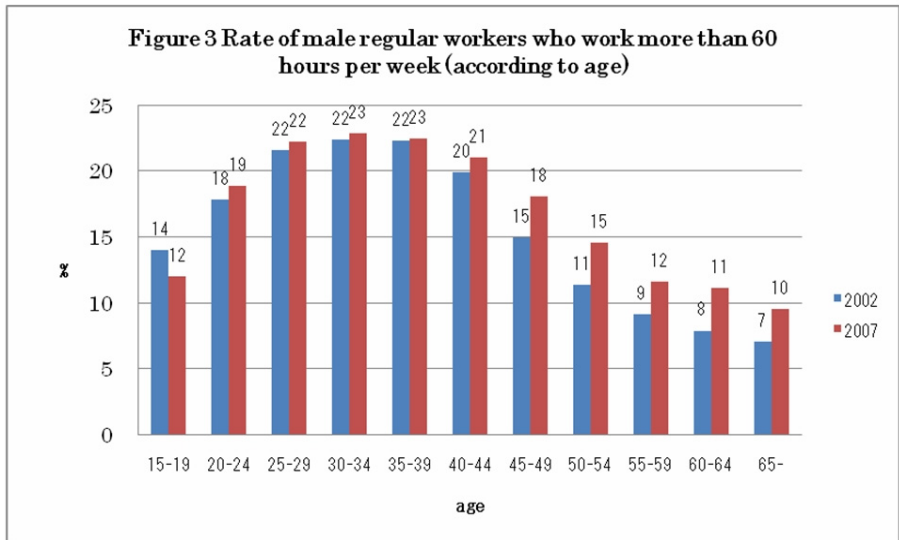
Non-regular jobs are so unstable that workers can easily lose their jobs in case they get sick and take a week's leave from work.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case of day laborers, who at any rate earn very little money their absence for just a week could lead to their inability to pay rent. Consequently, he or she will lose that residence and become a young homeless person or a "net cafe refugee" or someone who sleeps at internet cafes every night.

However, even regular workers are not as privileged as they used to be. The period 1993 - 2004 was a decade marked by severe cutbacks in the hiring of regular workers. As a result, the average workload for a regular worker has increased, and they are now required to even manage the increased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Although the working hours have increased along with the workload (Figure 3), they are no longer promised higher wages based on seniority, which is something that the previous generations had enjoyed.

Due to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the adoption of performance-based pay, the diversification of the workers' employment types in a workplace, and the reduced hiring of young people from the same age group, young regular workers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feel a sense of camaraderie among their colleagues. Instead,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ntagonistic relationships, more workers have started facing mental health issues (Figure 4). There are, of course, differences among regular workers' status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ompany size and business policies.

This dual situation, in which both regular and non-regular young workers are suffering from the contrastive severity, can be metaphorically described as "the concurrence of the white hell and the black hell." There is a paradoxical relation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 are functioning as a "buffer" that maintains the employment security of regular workers, while, at the same time, the low wages and employment insecurity of the non-regular workers are deteriorat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regular workers. Thus, the

dualism within the youth labor market itself is the cause of a vicious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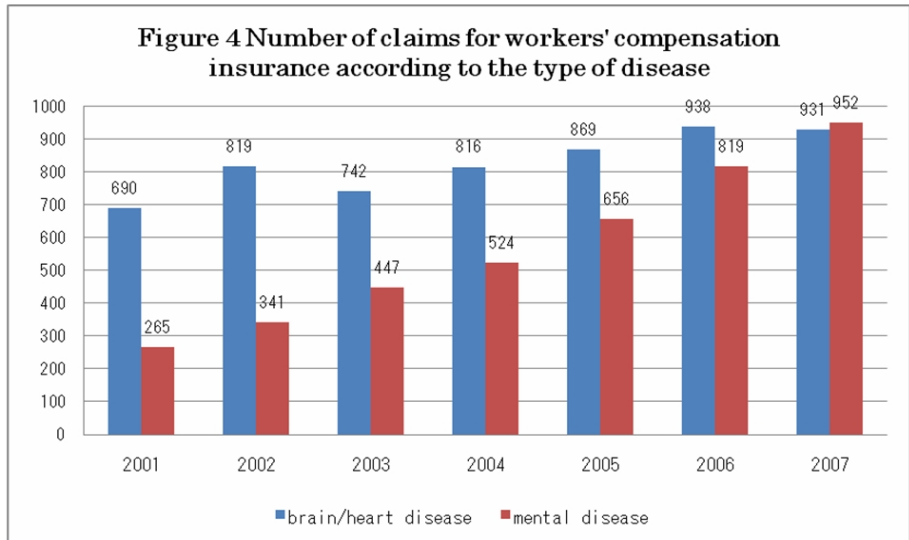


Source: 2007 Basic Survey of Employment Structur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The Changing Discourses on Young People

The second point of this presentation discusses the manner in which the discourses on young people have changed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changing trend in young workers has been described using the keyword "freeter," a term coined by an editor of job advertisement magazine, which refers to a freelance, part-time worker (Honda 2005). When the term freeter emerged in the late 1980s, it had the connotation of "a vigorous and free youth." By the late 1990s, however, freeter came to mean "a lazy and dependent youth." Moreover, in the early 2000s, the meaning of this term changed again to "a young person who is pathologically going nowhere." Because of such a changing image of the word freeter, young people were blamed for their own employment problems.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addition, the term "NEET," an acronym for young people who ar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has spread rapidly and widely throughout Japan since 2004 (Honda et al. 2006). The Japanese usage of the word NEET is different from that in Britain, where the term originated. In Japan, the official definition of NEET excluded the unemployed youth seeking a job. This provoked an image of NEET as "a young person lacking the motivation to work." The common idea that most Japanese NEET are born in middle class families instead of working class or poor families has also exacerbated such a stereotype. NEET in Japan is also defined to include a broad age group from 15 to 34, the result of which is that the estimation of the NEET population amounted to a huge number, namely, more than 800 thousand. This aggravated the gloomy view on youth around Japan.

The mass med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he diffusion of the negative image of NEET in Japan. Five characteristics can be pointed out about the representations of NEET in the Japanese mass media. First, being

NEET is regarded as a psychological problem of young people. Second, emphasis is placed on the commonality between NEET and "hikikomori," a term referring to people who stay at home without going to school or work. Third,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is often emphasized. Fourth, a NEET is stigmatized as a loser, and it has even assumed the character of a derogatory term. Last, causes and solutions to the situation are often asserted without scientific evidence.

As opposed to the negative term of NEET, "ningenryoku" or "human competence" is used to focus on the expected positive aspects of young people. From the late 1990s, human competence has been used frequently in the mass media and policy papers. The use of human competence is interconnected with the personal and emotional traits of a person,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ies. As a result, many people have come to believe that most problems of young people can be solved by nurturing their human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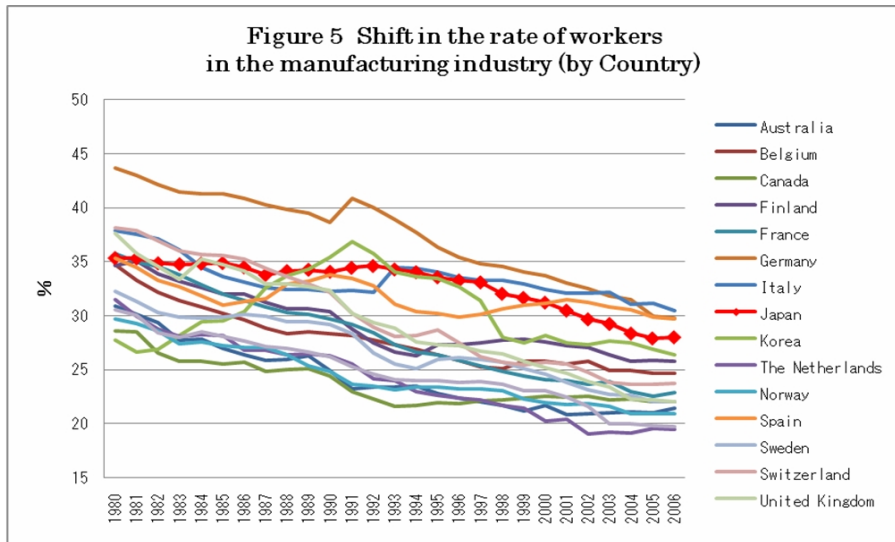
However, empirical data on NEET denies such popular understandings of young people. Data shows that the popular conception of NEET as only youths without the will to work is incorrect. Most NEETs are either willing to work or have no need to work immediately,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within or without their families. Although some NEETs are inactive, the reasons for this cannot be solely attributed to their mental problems but to social factors such as the experience of burring in schools and workplaces, experiences of school dropouts, loss of parents, etc. A major problem is that the word NEET is spreading a mistaken belief with regard to the current state of young people.

#### Causes of the Change in Youth Labor Market

The third point to be discussed in this presentation is the causes and origin of the rapid change in the Japanese youth labor market. In this regard, three causes must be discer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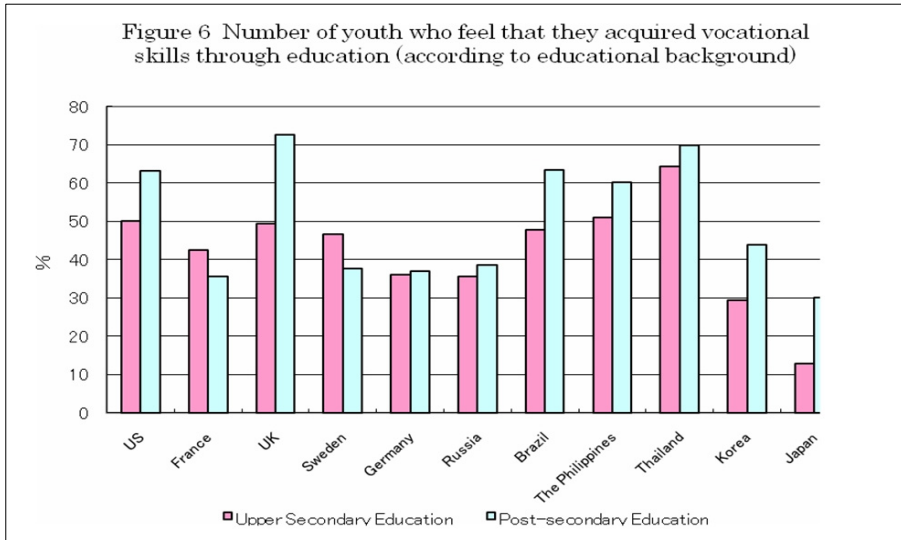
One cause is the "unfortunate coincidence" between economic fluctuation and uneven ag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Japan. There are two huge age cohorts within the Japanese population: one is the first generation of baby boomers born in the late 1940s and the other is the second generation of baby boomers born in the early 1970s. Under the "bubble economy" around 1990, Japanese companies recruited a large number of second generation baby boomers as regular workers. After the burst of the "bubble," they turned into heavy burdens for Japanese companies, who were prohibited from easy dismissals of regular workers by case laws. Moreover, during the 1990s, the first generation baby boomers were reaching their 50s and the labor costs incurred on them were peaking. These double pressures on companies made them refrain from recruiting new young regular workers and rely on non-regular workers. Today, the age imbalance of the working population is gradually improving. However,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o-called "lost generation," namely those born in the late 1970s and the 1980s, continue to be a critical issue.

Another reason for the change in working styles is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labor demands caused by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these are the "irreversible global long-term changes." In every developed country,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shifting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service industry (Figure 5).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not only shrinking in quantity but also transforming its quality from mass production to the small-lot multiple production. These industrial trends necessitate the growth of the demand for non-regular workers, which can be mobilized "just in time" with cheap labor costs. This continuously evolving transition is observed in almost all developed countries, posing a grave global challenge.



Source: OECD, Labor Force Statistics

The third factor,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work peculiar to Japan" has been functioning to make the situation worse for young workers. Japanese schools have been reluctant to make their education match occupational demands (Figure 6), and the periodic blanket recruitment of new graduates is also a custom peculiar to Japan. The lack of vocational relevance of school education deprive youth of both their market value and the power to make a bargain with employers. Because of the custom of the periodic blanket recruitment of new graduates, young people who cannot find jobs with their school or college graduation can hardly enter a favorable labor market later. I consider this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work that is peculiar to Japan" the most urgent point that must be and could be changed. This leads us to the last argument, that is, the measures we need to take to improve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working conditions of young people in Japan.



Source: The 6th World Youth Survey, 1998, Cabinet Office

## Necessary Mea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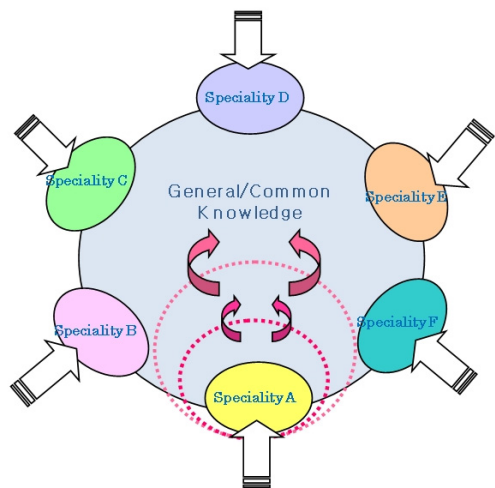
Several measures are indispensable to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work peculiar to Japan" and to improve the situation for the Japanese youth.

First, we need to make education match occupational demands from companies. In other words, the vocational relevance of the educational contents of schools and universities must be improved. In particular, the number of technical and professional high schools, which is too small in Japan,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technology and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e vocational relevance of educational contents should be designed to contain ample flexibility,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the outlines of each specialized field. The concept "flexspeciality" will be useful to depict the image of competence promoted through education (Figure 7).

Second, the convention of the periodic blanket recruitment of new graduates should be opened up to those who continue job seeking and those who become

non-regular workers after graduation. The opportunity to become a regular worker should be open to everyone who has the appropriate competence, experiences, and volition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ose who failed to get a regular job upon graduation are treated unfavorably, needs to be resolved.

Figure 7 Model of “Flexpeciality”



Third,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needs to be narrowed. The pay for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adequately impro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so that they can at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I propose that a transitional labor market, which bridge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needs to be established; this includes, for instance, regular employment with shorter working hours and non-regular employment with more stable working conditions and an upward career lad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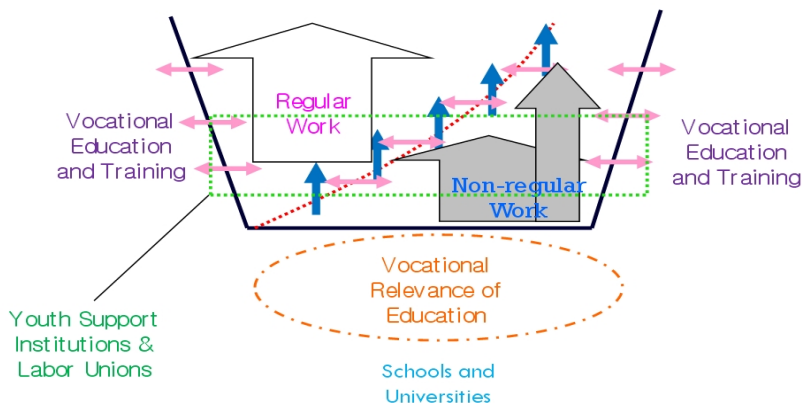
Fourth, greater opportunities for vocational training outside companies should be created. This is required because the budget for vocational training in companies is currently in decline. Even regular workers today are no longer guaranteed opportunities to improve one’s skill level. For non-regular workers, there are almost no opportunities for improving occupational skills. Therefore,

many more inexpensive public training opportunities outside companies, which are very limited in present-day Japan, should be provided, preferably with trainees' living expenses in case of unemployed people and precarious workers.

Last, vocational guidance and counseling should be available to a wider range of young people. Until now, vocational guidance has been limited to students at school. However, today, with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ers and jobless youth, opportunities of vocational guidance and counseling should be opened up to graduates as well. Youth support institutions, which provide various kinds of help and information as one-stop services, need to be increased. Labor unions are also expected to play a role in supporting and empowering young workers regardless of working styles.

Figure 8 is an envisaged model of the Japanese youth labor market. In order to tackle the problems of "dualism" within the labor market, this model seems to be the only credible solution.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reform of the labor market is not an easy task, but the fact itself adds the urgency of determined efforts. To leave the situation unattended will inflict major damage on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Figure 8 Envisaged model of youth labor market



# Adolescent's Perception on the Benefits and Negative Effects of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Youth Centers in China

Lu De-Ping (Professor, China Youth University for Political Sciences)

## 1. Introduction

Over the past decades, youth workers, researchers, school teachers, governmental officials, and even some parents, much more inclined to recognize that a sound development of school age adolescents needs a systematic support, which naturally includes school context, but ought not to invoke to school as a ubiquitous function in support to adolescent's development. As a result, the role of after-school activities in promoting adolescent development has been highlighted than ever before in many academic articles on the topic of youth development (Eccles and Gootman, 2002; Larson, 2000; Eccles and Barber, 1999; Barber et al., 2001; Mahoney et al., 2002).

Evidence from sociology, leisure studies, sports psychology, and adolescent development demonstrates the beneficial effects of extracurricular involvement. Admittedly, structur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more beneficial to adolescent's development than were those unstructured activities as revealed in most of the research findings. Organized or structured activity participation has been associated with academic outcomes including achievement, school engagement, and school satisfaction (Eccles and Barber, 1999). Other work has demonstrated a link between participation and emotional adjustment including higher self-esteem and lower depression (Barber et al., 2001; Mahoney et al., 2002). Whereas some youth development researchers have specified those features of the structured contexts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beneficial to adolescent's



positive development, such as regular participation schedules, direction by adult staff, emphasis on skill 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meaningful participation (Eccles and Gootman, 2002), some other scholars reminded us that structur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 over-scheduling extracurricular activity arrangement will be very likely to engender a lot of negative effects on adolescents as well (Coleman 1961, Mahoney et al., 2005, 2006).

This article purports to assess both benefits and negative effects of structur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dolescent's development within the Chinese context. In China, most of the cities have established youth centers initially with a purpose of extending after-school public service to school-aged adolescents, but their public image has been changed very much over the past two decades as a result of market oriented economy development. These youth centers are facing a lot of challenges in development, and the reasons behind them need to be unfolded as well. Regretfully, most of the youth workers for these centers always tended to look for the reasons in objective condition of youth centers, such as facilities, space, and budget, and thereby have to a great extent overlooked the responses from adolescents they have been serving. This paper is just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adolescent's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or their perception of the benefits and negative effects stemming from involving in the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should serv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relevant programs and even in entire operation of these youth centers.

## 2. Method

###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in a purposive sampling way from 1544 adolescents, ranging between age 9 (Grade 3rd, primary school) and age 14 (Grade 8th, junior high school) (N=299, 281, 288, 230, 307, 121, respectively for adolescents of

Grade 3rd, Grade 4th, Grade 5th, Grade 6th, Grade 7th, and Grade 8th), 1116 parents (N=460 for father, N= 656 for mother), 350 youth center instructors (N=129 and 221 respectively for full time instructor and part time instructor), and 282 administrative personnel (N=37, 101, 71, 73 respectively for youth center director, administrative staff, technician, and logistic staff). Some qualitative methods, such as semi-structured interviews, focus group discussion and participatory drawing, were utilized separately for younger adolescents, youth center staff, youth center instructors, and parents as supplement to the quantitative surveys.

### Instruments and Procedure

Four sets of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and administered in a self-report way to school adolescents, parents, youth center instructors, and youth center administrative personnel in five cities of China---Beijing (North China), Guangzhou (Southeast China), Kunming (Southwest China), Lanzhou (Northwest China) and Wuhan (Middle China, or Coast of Yangtze River), between late April and late June 2008. The five cities almost represent main areas of China geographically.

Since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outcomes of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on adolescents, the analysis has to be done in reference dominantly to the data of the survey on adolescents, and those of the survey on parent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enefi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volvement Scale”, and “Negative Effec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volvement Scale” were developed and served as the indicators for rating outcomes of adolescent’s involvement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The two scales were replicated in the survey on parents for co-reference assessment as well.

The basic situation of youth centers, particularly their advantages at implementing structur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with merits of cultural, political

and residential oriented location, governmental sponsored budget, and regular staff team, will be elaborated with descriptive data of the surveys on youth center administrative staff and instructors, including both full time and part time instructors, for explaining those contextual factors, which were perhaps affecting adolescent's getting involvement in youth center's extracurricular activities.

###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A dichotomous scale (1=male, 2=female) was employed to predict gender difference for adolescents in youth center's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and their perception of the benefits and negative effects of activity involvement.

Grade Six grades ranging from 3rd grade of primary school to 2nd grade of junior higher school were rated for representing school-age adolescents of the five cities, and served as a variable for predicting the track of adolescents extracurricular involvement and assessing difference of responses by sub-groups of school-age adolescents in their perception on the outcomes of getting involvement in tho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Types of Residential Identification This variable is dichotomized into "urban" and "migran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uality system of breaking citizen into urban residents and rural ones with legal registration. Over these past two decades, in China, as a result of economic reform, a lot of farmers migrated to cities, and their children were enrolled in the cities where they were working. A large quantity of these children were in fact born in cities, but their residential registration had to be classified into rural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duality legal system ( i.e. "migrant", as called by many urban residents). That means they could not enjoy as many opportunities of education and welfare as could their urban counterparts. This variable will be helpful to predict whether there is any radical diverg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of adolescents in getting

involv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fered in public youth centers of the cities.

Basic knowledge about youth center (4-point scale: 1=nothing known, 4=much known) This variable is rated with a 4-point scale, which may predict the extent to which adolescents have been informed about youth centers, and the correlation of such a basic knowledge with their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Typ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fered in youth centers Based on interviews with national youth center association leaders and directors of local youth centers in the five cities, we have classified diver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fered by youth centers into 7 types (“Thematic or ideological education”, “Scientific dissemination”, “Arts performance”, “Sports”, “Manual work and social practice”, “Game and entertainment”, and “Skill competition”), and such a classification got a consensus among most of the youth workers serving the youth centers throughout a pretest feedback.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 dichotomous category of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was utilized to assess the basic situation of adolescents in participating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 Dependent Variables

Benefi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volvement A scale composed of 15 items (1. “Acquiring more knowledge and skills”, 2. “Links to more peers”, 3. “Enhancing expressive capacity”, 4. “Enhanc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pacity”, 5. “Strengthening self-confidence”, 6. “Scheduling time in a more effective way”, 7. “More effective in academic performance”, 8. “Stronger team work awareness”, 9. “Stronger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10. “Alleviating academic pressure”, 11. “Raising patriotic awareness”, 12. “Enhancing capacity of social adaptation”, 13. “Stronger capacity of self-service in daily living”, 14. “Promoting aesthetic ability and arts tastes”, 15. “Strengthening sports capability and physical energy”)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with very high

reliabilities (Cronbach's Alpha=.941 for adolescents, and .970 for parents) and adequate relevancy of inter items (cf. Figure 1).

Negative effec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volvement on academic performance A scale composed of 4 items (1. "Less time for homework", 2. Less interested in school study, 3 Decreased examination scores, 4. Less concentrated on school study)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adolescents with a high reliability (Cronbach's Alpha=.821). Taking account of cultural and societal differences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China, we did not review those delinquency factors, such as drug abuse, drinking and other anti-social behaviors, which are often witnessed in most of the survey instruments developed by Western scholars (Mahoney and Stattin, 2000 ;Eccles and Barber, 1999). On contrary, most of the educational targets in China, either in school context or family sphere, are being dominantly concentrated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under the pressure of long-term National College Enrolment Test. We therefore merely assess those negative outcom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dolescent's academic performance.

### 3. Results

#### Participation

A very impressive fact is that the adolescents surveyed have a moderately lower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7 types of activities offered by youth centers (404/31.2% for "thematic or ideological education", 390/31.4% for "scientific dissemination", 462/36.2% for "arts performance", 411/32.7% for "sports", 382/30.6% for "manual work and social practice", 514/40.9% for "game and entertainment", and 345/27.6% for "skill competition"). On contrast, most of the youth centers in the five cities are of sufficient resources accessible to adolescents. First, youth centers in the five cities locate mostly in residential

areas (69.4%), culture and education concentrated areas(58.6%), and politically centered areas (34.3% at municipal level, and 36.2% at district level) , and are highly capable to offer adolescents necessary cultural and educational support. Second, most of the youth centers have moderately big space and good facilities to meet the needs of adolescents (M=3.88 for space, and M=3.87 for facilities, rated with a 5-point scale). Admittedly, the factors leading to adolescent's lower rate of participation are multifaceted, and those reasons found in youth center, are naturally combined with other causal factors. However, there are certainly some problems in youth centers, which are hampering adolescent's participation. Means comparison for eight typical reasons impeding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youth center's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s unfolded three sources of affecting factors: one is from adolescents themselves (e.g. "less time for participation"), another is from parents (e.g. "disagreement from parents"), and other reasons may be almost attributed to the youth centers (e.g. "less interested in those activities", "not well informed about the activities", "less beneficial from participation", "payment to the activities", "not skilled enough for the activities"). (cf. Figure 2)

Fairly limited budget has become the top issue (86%) facing most of the youth centers among 11 types of difficulties enumerated , which will undoubtedly impede fulfillment of their public service function. For addressing this problem, youth centers mostly resort to profit seeking projects or diverse intensive programs on academic extension of school education. As a direct result, the target of public service at the time of youth center installment has been transformed in nature into profit seeking purpose, which is almost indifferent from those pursued by many commercial entities. In addition, most of the youth centers are not so flexible and responsive to any change of market, and are thereby not much capable to compete against those academic training companies, either in activity and program planning, or in implementation process.

Additionally, most of these youth centers are facing some other problems, such as much aged and less educated managing staff and full-time instructors, unbalanced ratio of full-time instructors with part-time ones (36.6% for full-time versus 63.4% for part-time), high percentage of female teachers (72.5% for females versus 27.5% for males) in gender structure of the teacher team. Undoubtedly, all these factors have fairly weakened many adolescents' motivation or desire to getting involved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fered by youth centers. Just as reflected in Figure 2, regardless of the reason of "less time for participation", which may be attributed to the pressure of school learning task, and the reason of "disagreement from parents", which may be understood as family reason, almost other major reasons could be attributed to youth center per se ("less interested in those activities", "not well informed about the activities", "less beneficial from participation", "too far from the activity sites", "not skilled enough for the activity").

Adolesc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much more inclined than those participants to identify negative effec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 This inclination is highly likely to weaken motivation of those uninvolved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fter ANOVA test (cf. Figure 3), we found that, if compared with those getting involv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ose uninvolved adolescents generally perceived stronger negative effects stemming from most of the seven extracurricular activities types (5-point scale, 1=absolutely disagree, 5=absolutely agree), and reached to a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 even for three indicators. It might be concluded that, uninvolved adolescent's stronger perception of the negative effects, engendered by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cademic task pursuit, is buffering against their both motivation and ac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volvement. This situation has also adequately mapped the fact that academic pursuit for the overarching target of National College Entry Test has become a

major or even dominating part of the school-aged adolescent's routine daily life. Just in this sense,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s often interpreted as a conflict to this academic pursuit, and thereby tended to be refused by growing quantity of adolescents.

Residential identification type (in Chinese "Hukou") was very strongly affecting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mos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OVA test result indicated that, there was a very big gap between the sub-groups of "urban adolescents" and "migrant adolescents", for the activity involving opportunities. Except for "sports", with other 6 typ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urban adolescents were at a significant level higher than were their migrant counterparts for participation rate ( $F=24.497$  for "Thematic or ideological education",  $F=25.938$  for "Scientific dissemination",  $F=27.552$  for "Arts performance",  $F=6.213$  for "Manual work and social practice",  $F=9.200$  for "Game and entertainment", and  $F=7.178$  for "Skill competition",  $p<.05$ ). This result may be interpreted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inequality as a form of deprivation happening in vulnerable children (if we classify most of migrant children or youth into the category of vulnerable group), which is witnessed well in today's society of China. In other words, migrant children are exclusive not merely to urban formal education system (a lot of institutional obstacles to enrolment in urban school), but also to informal education, just like tho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fered by public youth centers.

### Benefits Revisited

With outcome of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cf. Figure 4), effects of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types of "arts performance" (ATI3) and "sports"(ATI4) were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to be broadest in benefits scope (as many as 14 benefi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is two kinds of activities), whereas effects of "scientific dissemination (ATI2)" and "skill competition



(ATI7)” were narrower than were other kind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addition, four kinds of benefits (“acquiring more knowledge and skills(Benefit1)”, “enhanc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pacity”(Benefit 4), “enhancing capacity of social adaptation (Benefit 12)”, and “promoting aesthetic ability and arts tastes (Benefit 14)” were taken as the benefits stemming from 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the seven typ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ctivity types evaluated highly as beneficial to adolescents, were not identical to those adolescents participated most, and also could not be interpreted as favorable most to the adolescents. Just as aforementioned, the activity type adolescents had most frequently participated is “game and entertainment” (40.9% for participation rate), but its benefits scope was merely extended to 10 kinds of benefits among total 15 benefits at a significant correlation level. This result has also posed the question of how to keep a good balance between tho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teresting to adolescents and those beneficial to them.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gender, grades and basic knowledge about youth centers, were correlated with perception of the benefits of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to different extents. After ANOVA analysis, we found that, except for the benefit of “strengthening sports capability and physical energy”, “strengthening patriotic awareness”, and “stronger team work awareness”, female adolescent have perceived benefits more strongly than have their male counterparts at a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 ( $F=7.596$  for “Acquiring more knowledge and skills”,  $F=14.129$  for “Links to more peers”,  $F=14.433$  for “Enhancing expressive capacity”,  $F=16.681$  for “Enhanc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pacity”,  $F=15.894$  for “Strengthening self-confidence”,  $F=7.585$  for “Scheduling time in a more effective way”,  $F=6.492$  for “More effective in academic performance”,  $F=10.245$  for “Stronger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F=12.548$  for “Alleviating academic pressure”,  $F=13.640$  for “Enhancing capacity

of social adaptation”,  $F=10.930$  “Stronger capacity of self-service in daily living”,  $F=46.729$  for “Promoting aesthetic ability and arts tastes”  $p<.05$ )

Differences in benefits perception for various graders have shown a very pessimistic tendency, wherein elder graders perceived most of the benefits less strongly than did those younger graders, and such a negative correlation amounts to significant level for as many as 7 kinds of benefits. (cf. Figure 5) This fact predicts that m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are less able to attract adolescents over a long term. Or in other words, during early period of adolescence, many adolescents have changed their mission or interests pursuit to academic achievement instead of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The true problem is that, such a change came too early, if we take account of the necessity that,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ought to last over all the periods of adolescence: from early adolescence to late adolescence, and even beyond.

Knowledge about youth center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the benefits perception (cf. Figure 5). Knowing more about youth centers means strongly perceiving benefits from participating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s outcome necessitates more extended and more effec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about youth centers among adolescents, which can partly explain why such a high percent of adolescents did not participate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fered by youth centers.

With regard to the perception of the benefits from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we also found an apparent divergence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Generally, ratings of the majority of participation benefits given by parents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what their children made (cf. Figure 6, 7). On contrast, parental evaluations were more positive than were the adolescent’s perceptions with those social oriented benefits (“stronger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raising patriotic awareness”, and

“enhancing capacity of social adaptation”). This result reflected that, parents in general did not interpret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as much beneficial as adolescents did, and even such an interpretation or understanding was based on some concentrated dimensions in comparing with multiple evaluative dimensions of adolescents. Since adolescent’s participation factually needs parental financial support and legal approval, this divergence in percep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benefit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is much likely to become a big obstacle to adolescent’s both motivation and behavior of involvement.

#### Evidence from Evaluation on the Programs of National Youth Center

The evaluations by adolescents and parents respectively on the items of National Youth Center Programs also adequately reflected this big discrepancy between adolescents and parents (cf. Figure 8). A comparison of rating ranks regarding the program item preference indicated that, parental item selection was of a fairly strong socially oriented style, while adolescents were more inclined to prefer those items, which may be closely related to entertainment or adventure. Some of the items most favorable to adolescents, for instance, include “forest adventure”, “space roam experiment”, “cartoon collection” among others, which generally were rated lowly by parents conversely. On contrast, those socially oriented item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nd “national situation analysis”, were rated very highly by parents. This apparent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signifies some obstacles to children’s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which would be lasting for a very long time.

#### 4.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

Although our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benefits adolescents have perceived from involv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in relation to their activity participation situation, some insights from the discussion with policy implication might be elaborated further.

First, various youth centers established with financial support from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responsibility to offer public goods service, but actually underplay of this role was often attributed by administrative staff mainly to budget scarcity. Our research result indicated that the pivotal factors of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most attracting adolescents were in the benefits and enjoyment the activities could engender. Conversely, many parents have an evaluation on these factor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adolescents. Policy maker needs to seek a rationalized balance between the needs of adolescents and those of adult stakeholders. Additionally, some ideological education activities assigned by government were in benefits and enjoyment quite contradictory to selection of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ublic goods service, youth centers ought to get good balance between policy and practice, otherwise, these youth centers could not effectively overcome the obstacles to their development.

Second, our research revealed that outcom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cademic performance of adolescents were least apparent among all the benefits we have surveyed. This finding seems to be converse to what most of western scholars, including Eccles, Fredricks, Barber, and Mahoney among others, have confirmed throughout their researches. Such a high separatenes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from academic achievement found in the Chinese cultural and social context, has posed an issue tha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beneficial to youth development, but would not be certainly beneficial to every dimension of youth development.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either in western context or in

Chinese one, adolescents got much benefit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ir sociability and peer relationship. In view of this fact, youth development policy in China should take a pathway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and the Chinese experience is also valuable to other countries for reference. In brief, what we ought to take is not the attitude of exaggerating or devaluing the outcom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dolescent development, but a rational and culture specific one.

**Figure 1**

Item - Total Statistics for the Benefits Scale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i>Acquiring more knowledge and skill</i>	54.7666	152.204	0.636	0.446	0.939	
<i>Links to more peers</i>	54.7931	150.353	0.646	0.474	0.939	
<i>Enhancing expressive capacity</i>	54.8461	148.506	0.730	0.588	0.937	
<i>Enhanc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pacity</i>	54.8432	148.162	0.734	0.600	0.937	
<i>Strengthening self-confidence</i>	54.8049	148.492	0.734	0.583	0.937	
<i>Scheduling time in a more effective way</i>	55.1031	147.387	0.718	0.557	0.937	
<i>More effective in academic performance</i>	55.1171	147.673	0.700	0.542	0.937	
<i>Stronger team work awareness</i>	54.8770	148.217	0.723	0.571	0.937	
<i>Stronger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i>	55.0052	147.516	0.733	0.591	0.937	
<i>Alleviating academic pressure</i>	55.0523	148.422	0.642	0.435	0.939	
<i>Raising patriotic awareness</i>	54.9993	147.763	0.712	0.556	0.937	
<i>Enhancing capacity of social adaptation</i>	54.9632	147.593	0.749	0.611	0.936	
<i>Stronger capacity of self-service in daily living</i>	54.9566	147.194	0.722	0.566	0.937	
<i>Promoting aesthetic ability and arts tastes</i>	54.8888	149.014	0.660	0.464	0.938	
<i>Strengthening sports capability and physical energy</i>	54.7570	150.942	0.622	0.398	0.939	

Figure 2<sup>a</sup>

Means and median for the reasons why adolescents did not participate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less interested in those activities	not well informed about the activities	less time for participation	less beneficial from participation	too far from the activity site	payment to the activities	disagreement from parents	not skilled enough for the activities
Means(SD)	2.22(1.91)	2.83(1.55)	3.09(1.48)	2.04(1.25)	2.53(1.43)	2.34(1.43)	2.14(1.42)	2.41(1.41)
Median	1.9055	2.75	3.18	1.7500	2.33	1.9900	1.75	2.15

Figure 3<sup>a</sup>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Negative Effects of Participating or Not in the 7 Typ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Youth Centers														
	Thematic or ideological education		Scientific discrimination		Art performance		Sports		Manual work and social practice		Game and entertainment		Skill competition	
	Mean (SD)	Yes No	Mean (SD)	Yes No	Mean (SD)	Yes No	Mean (SD)	Yes No	Mean (SD)	Yes No	Mean (SD)	Yes No	Mean (SD)	Yes No
Less time for homework	2.18 (1.29)	2.07 (1.2)	2.05 (1.21)	2.12 (1.23)	2.08 (1.24)	2.13 (1.23)	2.11 (1.21)	2.08 (1.21)	2.04 (1.22)	2.11 (1.22)	2.06 (1.21)	2.12 (1.23)	2.15 (1.27)	2.06 (1.20)
Less interested in school study	1.76 (1.12)	1.85 (1.13)	1.77 (1.09)	1.84 (1.14)	1.68 (1.03)	1.89 (1.16)	1.82 (1.09)	1.81 (1.13)	1.81 (1.09)	1.81 (1.12)	1.74 (1.10)	1.87 (1.14)	1.81 (1.11)	1.80 (1.12)
Decreased examination scores	1.71 (1.10)	1.77 (1.09)	1.62 (1.00)	1.8 (1.13)	1.57 (0.99)	1.83 (1.14)	1.72 (1.07)	1.74 (1.09)	1.63 (0.96)	1.77 (1.08)	1.6 (1.00)	1.84 (1.14)	1.55 (0.99)	1.79 (1.10)
Less concentration in school study	1.75 (1.10)	1.77 (1.09)	1.71 (1.05)	1.87 (1.16)	1.68 (1.04)	1.88 (1.16)	1.83 (1.13)	1.81 (1.11)	1.74 (1.06)	1.83 (1.13)	1.71 (1.05)	1.88 (1.16)	1.7 (1.06)	1.83 (1.12)
*group-betwee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05 level														
**=group-betwee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01 level														

Figure 4.

Bivariate Correlations between Extracurricular Activity Type Involved (ATI) and Its Benefits																					
	ATI 1	ATI 2	ATI 3	ATI 4	ATI 5	ATI 6	ATI 7	Benefit 1	Benefit 2	Benefit 3	Benefit 4	Benefit 5	Benefit 6	Benefit 7	Benefit 8	Benefit 9	Benefit 10	Benefit 11	Benefit 12	Benefit 13	Benefit 14
ATI 1																					
ATI 2	.452 <sup>(***)</sup>																				
ATI 3	.423 <sup>(***)</sup>	.334 <sup>(***)</sup>																			
ATI 4	.468 <sup>(***)</sup>	.391 <sup>(***)</sup>	.360 <sup>(***)</sup>																		
ATI 5	.497 <sup>(***)</sup>	.486 <sup>(***)</sup>	.416 <sup>(***)</sup>	.488 <sup>(***)</sup>																	
ATI 6	.396 <sup>(***)</sup>	.399 <sup>(***)</sup>	.428 <sup>(***)</sup>	.449 <sup>(***)</sup>	.471 <sup>(***)</sup>																
ATI 7	.412 <sup>(***)</sup>	.406 <sup>(***)</sup>	.428 <sup>(***)</sup>	.452 <sup>(***)</sup>	.485 <sup>(***)</sup>	.462 <sup>(***)</sup>															
Benefit 1	.059 <sup>(*)</sup>	.085 <sup>(***)</sup>	.084 <sup>(***)</sup>	.094 <sup>(***)</sup>	.106 <sup>(***)</sup>	.117 <sup>(***)</sup>	.079 <sup>(***)</sup>														
Benefit 2	.066 <sup>(*)</sup>	0.039	.109 <sup>(***)</sup>	.085 <sup>(***)</sup>	.086 <sup>(***)</sup>	.099 <sup>(***)</sup>	0.055	.530 <sup>(***)</sup>													
Benefit 3	0.051	0.034	.106 <sup>(***)</sup>	.113 <sup>(***)</sup>	.082 <sup>(***)</sup>	.058 <sup>(*)</sup>	0.052	.562 <sup>(***)</sup>	.571 <sup>(***)</sup>												
Benefit 4	.060 <sup>(*)</sup>	.078 <sup>(***)</sup>	.145 <sup>(***)</sup>	.103 <sup>(***)</sup>	.102 <sup>(***)</sup>	.118 <sup>(***)</sup>	.122 <sup>(***)</sup>	.501 <sup>(***)</sup>	.563 <sup>(***)</sup>	.647 <sup>(***)</sup>											
Benefit 5	0.037	0.045	.142 <sup>(***)</sup>	.092 <sup>(***)</sup>	.039 <sup>(*)</sup>	.087 <sup>(***)</sup>	.077 <sup>(***)</sup>	.523 <sup>(***)</sup>	.495 <sup>(***)</sup>	.628 <sup>(***)</sup>	.654 <sup>(***)</sup>										
Benefit 6	0.037	0.019	.091 <sup>(***)</sup>	.092 <sup>(***)</sup>	0.049	.067 <sup>(*)</sup>	0.038	.460 <sup>(***)</sup>	.470 <sup>(***)</sup>	.506 <sup>(***)</sup>	.516 <sup>(***)</sup>	.539 <sup>(***)</sup>									
Benefit 7	0.009	-0.027	.070 <sup>(*)</sup>	.068 <sup>(*)</sup>	0.028	-0.003	0.018	.448 <sup>(***)</sup>	.464 <sup>(***)</sup>	.538 <sup>(***)</sup>	.477 <sup>(***)</sup>	.509 <sup>(***)</sup>	.632 <sup>(***)</sup>								
Benefit 8	.069 <sup>(*)</sup>	0.044	.099 <sup>(***)</sup>	.111 <sup>(***)</sup>	.076 <sup>(***)</sup>	0.056	0.054	.463 <sup>(***)</sup>	.435 <sup>(***)</sup>	.492 <sup>(***)</sup>	.517 <sup>(***)</sup>	.521 <sup>(***)</sup>	.561 <sup>(***)</sup>	.564 <sup>(***)</sup>							
Benefit 9	0.034	0.027	.079 <sup>(***)</sup>	.072 <sup>(*)</sup>	.060 <sup>(*)</sup>	0.055	0.046	.446 <sup>(***)</sup>	.444 <sup>(***)</sup>	.552 <sup>(***)</sup>	.545 <sup>(***)</sup>	.540 <sup>(***)</sup>	.549 <sup>(***)</sup>	.534 <sup>(***)</sup>	.661 <sup>(***)</sup>						
Benefit 10	0.040	0.038	.083 <sup>(***)</sup>	0.022	0.056	.086 <sup>(***)</sup>	0.017	.414 <sup>(***)</sup>	.408 <sup>(***)</sup>	.437 <sup>(***)</sup>	.454 <sup>(***)</sup>	.483 <sup>(***)</sup>	.475 <sup>(***)</sup>	.521 <sup>(***)</sup>	.512 <sup>(***)</sup>	.519 <sup>(***)</sup>					
Benefit 11	0.035	0.010	0.016	.079 <sup>(***)</sup>	0.037	0.036	0.005	.430 <sup>(***)</sup>	.470 <sup>(***)</sup>	.528 <sup>(***)</sup>	.502 <sup>(***)</sup>	.494 <sup>(***)</sup>	.559 <sup>(***)</sup>	.498 <sup>(***)</sup>	.553 <sup>(***)</sup>	.608 <sup>(***)</sup>	.497 <sup>(***)</sup>				
Benefit 12	.062 <sup>(*)</sup>	.069 <sup>(*)</sup>	.108 <sup>(***)</sup>	.072 <sup>(*)</sup>	.039 <sup>(*)</sup>	.077 <sup>(***)</sup>	.058 <sup>(*)</sup>	.472 <sup>(***)</sup>	.460 <sup>(***)</sup>	.543 <sup>(***)</sup>	.596 <sup>(***)</sup>	.544 <sup>(***)</sup>	.518 <sup>(***)</sup>	.499 <sup>(***)</sup>	.550 <sup>(***)</sup>	.598 <sup>(***)</sup>	.500 <sup>(***)</sup>	.616 <sup>(***)</sup>			
Benefit 13	0.047	0.031	.114 <sup>(***)</sup>	.092 <sup>(***)</sup>	.090 <sup>(***)</sup>	0.047	0.046	.428 <sup>(***)</sup>	.442 <sup>(***)</sup>	.515 <sup>(***)</sup>	.554 <sup>(***)</sup>	.524 <sup>(***)</sup>	.539 <sup>(***)</sup>	.499 <sup>(***)</sup>	.556 <sup>(***)</sup>	.555 <sup>(***)</sup>	.461 <sup>(***)</sup>	.578 <sup>(***)</sup>	.655 <sup>(***)</sup>		
Benefit 14	.075 <sup>(***)</sup>	.070 <sup>(*)</sup>	.212 <sup>(***)</sup>	.090 <sup>(***)</sup>	.092 <sup>(***)</sup>	.135 <sup>(***)</sup>	.113 <sup>(***)</sup>	.437 <sup>(***)</sup>	.438 <sup>(***)</sup>	.486 <sup>(***)</sup>	.492 <sup>(***)</sup>	.519 <sup>(***)</sup>	.501 <sup>(***)</sup>	.480 <sup>(***)</sup>	.475 <sup>(***)</sup>	.468 <sup>(***)</sup>	.452 <sup>(***)</sup>	.454 <sup>(***)</sup>	.564 <sup>(***)</sup>	.544 <sup>(***)</sup>	
Benefit 15	.056 <sup>(*)</sup>	0.052	.057 <sup>(*)</sup>	.130 <sup>(***)</sup>	0.054	.093 <sup>(***)</sup>	0.033	.420 <sup>(***)</sup>	.454 <sup>(***)</sup>	.451 <sup>(***)</sup>	.439 <sup>(***)</sup>	.467 <sup>(***)</sup>	.476 <sup>(***)</sup>	.437 <sup>(***)</sup>	.473 <sup>(***)</sup>	.461 <sup>(***)</sup>	.421 <sup>(***)</sup>	.459 <sup>(***)</sup>	.467 <sup>(***)</sup>	.482 <sup>(***)</sup>	.458 <sup>(***)</sup>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ATI 1 = The nature or ideological education	ATI 2 = Scientific dissemination	ATI 3 = Art performance	ATI 4 = Sports	ATI 5 = Manualwork and social practice	ATI 6 = Game and entertainment	ATI 7 = Skill competition			
---	----------------------------------	-------------------------	----------------	--	--------------------------------	---------------------------	--	--	--



Figure 5

Bivariate Cor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Benefits of Extracurricular Activity Involvement																		
	Sex	Grade	ID type	K-youth center	Benefit 1	Benefit 2	Benefit 3	Benefit 4	Benefit 5	Benefit 6	Benefit 7	Benefit 8	Benefit 9	Benefit 10	Benefit 11	Benefit 12	Benefit 13	Benefit 14
Grade	0.031																	
R-ID Type	-0.038	-.123(**)																
K-youth center	.108(**)	0.024	-.147(**)															
Benefit 1	.101(**)	0.011	0.036	.179(**)														
Benefit 2	.111(**)	-0.032	0.011	.168(**)	.530(**)													
Benefit 3	.113(**)	-0.019	0.027	.145(**)	.562(**)	.571(**)												
Benefit 4	.111(**)	0.032	-0.013	.203(**)	.501(**)	.563(**)	.647(**)											
Benefit 5	.102(**)	-.053(*)	0.015	.191(**)	.523(**)	.495(**)	.628(**)	.654(**)										
Benefit 6	.084(**)	-.098(**)	0.036	.152(**)	.460(**)	.470(**)	.506(**)	.516(**)	.539(**)									
Benefit 7	.075(**)	-.134(**)	0.041	.134(**)	.448(**)	.464(**)	.538(**)	.477(**)	.509(**)	.632(**)								
Benefit 8	0.047	-0.034	0.009	.141(**)	.463(**)	.435(**)	.492(**)	.517(**)	.521(**)	.561(**)	.564(**)							
Benefit 9	.081(**)	-0.027	0.017	.120(**)	.446(**)	.444(**)	.552(**)	.545(**)	.540(**)	.549(**)	.534(**)	.661(**)						
Benefit 10	.104(**)	-.066(*)	0.023	.148(**)	.414(**)	.408(**)	.437(**)	.454(**)	.483(**)	.475(**)	.521(**)	.512(**)	.519(**)					
Benefit 11	0.038	-.090(**)	0.045	.112(**)	.430(**)	.470(**)	.528(**)	.502(**)	.494(**)	.559(**)	.498(**)	.553(**)	.608(**)	.497(**)				
Benefit 12	.102(**)	0.002	-0.018	.170(**)	.472(**)	.460(**)	.543(**)	.596(**)	.544(**)	.518(**)	.499(**)	.550(**)	.598(**)	.500(**)	.616(**)			
Benefit 13	.096(**)	-.064(*)	-0.007	.134(**)	.428(**)	.442(**)	.515(**)	.554(**)	.524(**)	.539(**)	.499(**)	.555(**)	.555(**)	.461(**)	.578(**)	.655(**)		
Benefit 14	.191(**)	-0.019	-0.046	.200(**)	.437(**)	.438(**)	.486(**)	.492(**)	.519(**)	.501(**)	.480(**)	.475(**)	.468(**)	.452(**)	.454(**)	.564(**)	.544(**)	
Benefit 15	-0.005	-.078(**)	-0.004	.152(**)	.420(**)	.454(**)	.451(**)	.439(**)	.467(**)	.476(**)	.437(**)	.473(**)	.461(**)	.421(**)	.459(**)	.467(**)	.482(**)	.458(**)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R-ID type=	identification type	Benefit 1= Acquiring more knowledge and skills			Benefit 4= Enhanc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pacity			Benefit 7= More effective in classroom learning			Benefit 10= Alleviating academic pressure			Benefit 13= Stronger self-secure capacity in daily life				
K-youth center=	knowledge about youth center	Benefit 2= Links to more peers			Benefit 5= Strengthening self-confidence			Benefit 8= Stronger teamwork awareness			Benefit 11= Raising patriotic awareness			Benefit 14= Promoting aesthetic ability and arts tastes				
		Benefit 3= Enhancing expressive capacity			Benefit 6= Scheduling time in a more effective way			Benefit 9= Stronger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Benefit 12= Enhancing capacity of social adaptation			Benefit 15= strengthening sports capability and physical energy				



Figure 7

	Stronger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Alleviating academic pressure		Raising patriotic awareness		Enhancing capacity of social adaptation		Stronger self-care capacity of in daily life		Promoting aesthetic ability and arts tastes		Strengthening sports capability and physical energy	
	A	P	A	P	A	P	A	P	A	P	A	P	A	P
Thematic or ideological education	3.86	3.87	3.83	3.76	3.87	3.88	3.88	3.88	3.92	3.88	4.02	3.93	4.16	4.04
	(1.20)	(1.13)	(1.26)	(1.19)	(1.16)	(1.15)	(1.10)	(1.15)	(1.21)	(1.15)	(1.22)	(1.18)	(1.08)	(1.12)
Scientific dissemination	3.84	3.91	3.82	3.86	3.81	3.91	3.93	3.93	3.89	3.94	4.02	3.99	4.15	4.02
	(1.17)	(1.10)	(1.30)	(1.13)	(1.16)	(1.09)	(1.13)	(1.06)	(1.22)	(1.10)	(1.21)	(1.10)	(1.12)	(1.10)
Skill competition	3.86	3.86	3.77	3.79	3.80	3.83	3.92	3.95	3.91	3.83	4.11	4.03	4.12	4.08
	(1.18)	(1.14)	(1.32)	(1.14)	(1.24)	(1.12)	(1.16)	(1.09)	(1.24)	(1.12)	(1.22)	(1.06)	(1.16)	(1.11)
Arts performance	3.92	3.94	3.88	3.83	3.83	3.92	3.98	4.01	4.02	4.00	4.25	4.12	4.14	4.08
	(1.13)	(1.14)	(1.20)	(1.16)	(1.17)	(1.12)	(1.09)	(1.10)	(1.14)	(1.10)	(1.06)	(1.08)	(1.12)	(1.11)
Sports	3.92	3.93	3.79	3.89	3.95	3.93	3.95	3.96	4.00	4.00	4.05	3.97	4.31	4.28
	(1.12)	(1.16)	1.23)	(1.11)	(1.11)	(1.11)	(1.07)	(1.11)	(1.15)	(1.08)	(1.20)	(1.10)	(1.00)	(0.99)
Manual work and social practice	3.90	4.00	3.87	3.82	3.87	3.95	3.94	3.96	4.01	3.96	4.07	3.96	4.15	4.09
	(1.11)	(1.08)	(1.18)	(1.19)	(1.14)	(1.11)	(1.07)	(1.14)	(1.11)	(1.16)	(1.15)	(1.17)	(1.07)	(1.22)
Game and entertainment	3.87	3.94	3.88	3.87	3.86	3.97	3.94	3.92	3.91	3.96	4.10	3.95	4.19	4.15
	(1.16)	(1.14)	(1.25)	(1.17)	(1.16)	(1.10)	(1.12)	(1.14)	(1.19)	(1.13)	(1.16)	(1.18)	(1.10)	(1.09)
A= adolescents			P= parents											

Figure 8

Comparison of Means Ranks for Identification with Items of National Youth Center Program		
	Means Rank by Adolescents	Means Rank by Parents
Forest adventure	1	18
Space room experiment	2	15
Summer camp	3	7
Outdoor survival training	4	5
Katong collection	5	20
Intellectual games	6	8
Electronic games	7	22
Diverse scientific experiments	8	2
Media experiencing	9	17
Composition contest	10	6
Biological samples collection	11	11
International communication	12	13
Volunteering experience	13	9
Social vocation experiencing	14	12
National security education	15	4
Scientific instrument designing	16	14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17	1
National situation analysis	18	3
Military trainingg	19	10
Poem recital	20	16
Opera singing	21	21
Dance	22	19

## The Context and Challenges of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in Western Canada

Elizabeth Saewyc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ne of the key developmental transitions for adolescents is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nd achievement of employment that will support independent living for the young person. Adequate income is one of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armot & Wilkinson, 1999), and poverty during childhood,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s linked to life-long disparities in health, including earlier death. A variety of societal and marketplace forces influence the availability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at the same time, education, specific skills training, parental support, and stable housing also play a role in the ability of young people to gain and keep employment (Gaetz & O'Grady, 2002).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Canada, youth often begin part-time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working at minimum wage jobs in retail sales, food service, cleaning, or other semi-skilled roles. In 2008 in British Columbia, the westernmost province of Canada, 41% of students age 12 through 19 years reported working at part time jobs for pay in the past year (Smith, Stewart, Peled, Poon, Saewyc,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Others will begin employment while attending post-secondary education at technical institutes, trade schools, or universities, transitioning to full-time employment after completion of their training or degree program.

Some youth, however, may not have the support of parents, stable housing, and education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Street-involved, homeless, or runaway youth may find themselves without shelter or adequate income to survive. Youth in care of the government, such as those in foster care, or those who have been in custody due to criminal activity, may not have the same

training and supports during adolescence to prepare them for employment upon reaching age 19, the age of majority in British Columbia (BC). Without adequate education or marketable skills, and already stigmatized from being in care, such youth may find themselves marginalized, and turning to the underground economy for income (Gaetz & O'Grady, 2002). They may engage in illegal activities such as drug dealing, theft, or sexual exploitation (Saewyc, MacKay, Anderson & Drozda, 2008). They may support themselves through informal work such as busking (performing music in public places for donations), squeegee work (washing car windows at intersections for donations), or panhandling, i.e., begging for spare change (Gaetz & O'Grady, 2002; Smith, Saewyc, Albert, MacKay, Northcott,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7; Saewyc, Brunanski, Bingham, Hunt, Northcott, Smith,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Estimates of the number of street-involved and homeless youth in Canada vary wide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street involvement. Street-involved youth can be defined as 1) those who have left home at some point in the past (by either running away or being kicked out, or both); 2) those who are currently homeless or precariously housed, i.e., living in short-term shelters or in abandoned buildings; or 3) those involved in "street"lifestyles, such as engaging in sex work, panhandling, or drug dealing. Of course, street-involved youth may report all of these situations. There is also a link between street involvement and placement in foster care; approximately 40% of younger street-involved youth (age 18 and under) have been in government care (Smith et al., 2007), as opposed to only 1% of similar-aged students in public schools (Smith et al., 2009). According to studies, once youth age out of care, approximately 15% will become homeless, and another 30-40% be unstably housed, during the first 2 years (Kushel, Yen, Gee & Courtney, 2007; Rutman, Hubberstey, Feduniw & Brown, 2006).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however, about the employment experiences,

employment needs, and barriers to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and homeless youth in Canada. They cannot be regularly tracked in government labor statistics, because of their transience in both housing and in the labor market. One study of 360 homeless youth in Toronto identified their diverse sources of income and both formal and informal paid work; these sources of income were differentially linked to social status, education, current housing, and exposure to physical and sexual abuse (Gaetz & O'Grady, 2002). Other surveys of street-involved youth have been conducted in cities across Canada (Lloyd-Smith, Kerr, Zhang, Montaner, & Wood, 2007; Roy, Haley, Leclerc, et al., 2001; Shields et al., 2004), but the majority of them have focused on health issues rather than employment or education. However, in British Columbia, since 2000 the McCreary Centre Society has conducted 3 different surveys of street-involved youth in several cities across the province; these surveys have included a variety of questions related to employment, education, sources of income, and need for services, in addition to questions about life and health experiences. As such, they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treet-involved youth in the context of specific housing and employment policies in western Canada.

This paper has several purposes: first, to describe the social and employment policy context in which street-involved youth in BC are working and attempting to find work since 2000 second, to document the experiences of employment among both younger and older street-involved youth in several cities across BC during the same time period; third, to identify the potential environmental and health barriers to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in BC, as well as their assessments of the need for additional supports; and finally, to provide examples of program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help street-involved youth transition to sustained employment.

### The Social and Policy Context Affecting Street-Involved Youth Employment

In 2001, the Liberal government party took control of the BC legislative assembly, and has remained in power for the past eight years. During this perio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fferent economic and policy changes that have affected the context in which street-involved youth seek employment. It has been suggested that some of these economic circumstances and policy changes have actually contributed to higher numbers of homeless and street-involved youth, greater barriers to income stability and employment for lower-income families, and higher proportions of families living in poverty in British Columbia (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Klein Griffin Cohen, Garner, Ivanova, Lee, Wallace,& Young, 2008; Snow, 2008). For example, until late 2008, the period has been one of strong economic growth in BC, with government surpluses exceeding \$2 billion since 2004 (Klein, et al., 2008). At the same time, BC had the highest rate of families with children living in poverty among the provinces from 2001 to 2006, which is the latest data available (First Call); more than 1 in 5 children and youth lived in poverty across BC.

The employment context has also included disparate circumstances and policies. For example, job availability has been strong from 2001 to 2008, with one of the lowest unemployment rates in Canada. However, the minimum wage in BC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2001, at \$8 per hour, while the Consumer Price Index has increased between 2% and 3% every year during that same time period (Klein et al., 2008).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lowered the age of employment from 15 to 12, to allow younger adolescents to work, and included a new "training wage," allowing employers to pay new hires only \$6 per hour for the first 500 hours of employment. Although this training wage was touted as an incentive for hiring new teen workers, recent analyses of labor market data have shown the majority of workers receiving the training wage are over age 25, often new immigrants, and there have been allegations of some employers ending



jobs when the 500 hours have been completed (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The ability to secure stable housing is strongly affected by stable employment, and in turn, can influence the ability of people to become employed and retain their jobs. In the most recent Homeless Count in the greater Vancouver region, conducted in 2008, 13% of homeless people living in shelters reported full-time employment, but still could not afford housing (Social Planning & Research Council of BC, 2008). Housing and rental prices in British Columbia have continued to climb since 2000; the average rental prices increased at least 22% between 2001 and 2007(Snow, 2008; Klein et al., 2008), and rental vacancies have remained among the lowest in Canada. The number of people in BC spending more than 30% of their gross income on housing, a measure of housing affordability, is the highest in Canada, with nearly 1 in 3 households spending that much (Snow). Indeed, i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sing affordability among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our Canadian cities were listed in the top 25 severely unaffordable housing markets, all of them in BC (Cox & Pavletich, 2009). Even among the severely unaffordable housing markets, Vancouver housing was considered less affordable than housing in Los Angeles, San Francisco, or New York City; London, England or Dublin, Ireland; Sydney or Melbourne, Australia; as well as Auckland or Christchurch, New Zealand.

This then, is the context in which street-involved youth must navigate the developmental transition to employment.

###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in British Columbia

Three surveys of street-involved youth in BC comprised the source of data for analyses for this paper. First, in 2000, McCreary Centre Society conducted a survey of 512 adolescents age 12 to 19 in six different cities across BC

(Murphy, Poon, & Weigel, 2001). In 2001, this was followed by a survey of 180 older street-involved youth (age 19 to 24) in the city of Vancouver (Laye & Murphy, 2002). Then in 2006, a total of 762 youth age 12 to 18 in nine communities across BC completed the next survey (Smith et al., 2007).

The three studies each used a participatory approach, engaging both experiential youth and youth workers from agencies who provided services for street-involved youth as research partners. The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and refined with the community research partners, and included between 140 and 200 questions about life experiences, health and risk behaviors, as well as employment, education, aspirations, and hopes for the future. The majority of questions were repeated in each survey, but new issues identified by youth and community partners were also added. The survey was read aloud by research team members to up to five youth at a time, to assist with literacy issues; youth filled in their own surveys anonymously. The research studies received ethics approval from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r Simon Fraser University, depending on the academic affiliation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s in each year.

Table 1 shows the variety of sources of income in the past month reported by younger street-involved youth in 2000 and in 2006, and by older youth in 2001. Nearly one in three youth in each survey reported working at a legal job in the past week or month, as well as other legitimate sources of income, such as social assistance, or support from parents. At the same time, between one in five younger street-involved youth to nearly half of older street-involved youth reported participating in the street economy by panhandling, busking, squeegee work, or the sex trade. Nearly half of youth also reported income from illegal sources, such as drug dealing or th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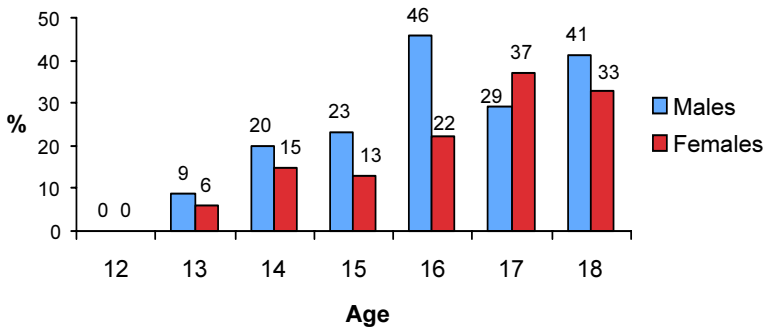
Table 1. Sources of Income in the Past Week (2000, 2001) or Past 30 Days (2006)\*

Type of Income	Street Youth 2000 12-19 years N=523	Street Youth 2001 19-24 years N=180	Street Youth 2006 12-18 years N=762
Legal Job	29%	33%	30%
Social Assistance/Child Welfare	29%	62%	21%
Parents	51%	21%	43%
Panhandling/Busking	30%	32%	20%
Squeegee (cleaning windshields at street corners for donations)	8%	12%	4%
Sex work/Trading sex for food, shelter, money, clothes	6%	18%	6%
Drug dealing	41%	40%	24%
Theft	24%	23%	14%

\*Youth could choose more than one option

Legal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in BC was more common than previously reported among other surveys of street-involved youth. In all, 83% of older street-involved youth from the 2001 survey reported ever having a legal job, and 55% had worked full-time at some point. Similarly, among the younger adolescents in 2000, 40% reported having a legal part-time or full-time job in the past 3 months; and among those younger street-involved youth in 2006 who had held a legal job in the past month, 52% worked 20 or more hours per week, another 32% worked 5 to 19 hours, and only 16% worked fewer than 5 hours a week.

**Received Income from a Legal Job in the Past M  
(Street-Involved Youth 2006)**



Age, gender, and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lay a role in employment, even for street-involved youth. Among the street-involved youth surveyed in 2006, for example, no 12-year-olds and very few 13-year-olds reported income from a legal job in the past month, while more than one in three 17- and 18-year-olds had been employed (see Chart below). Males in any age were slightly more likely to report income from a legal job (overall, males 35% vs. females, 25%,  $p < .001$ ). Youth who identified as heterosexual were more likely to report legal employment than those who identified as gay, lesbian or bisexual, or those who were unsure of their orientation (36% heterosexual, vs. 27% gay/lesbian/bisexual, vs. 10% not sure,  $p < .01$ ). Current housing status was not significantly linked to income from a legal job; youth who were currently homeless, or those in foster care, were just as likely to be employed as youth who lived in apartments or with parents in the past month.

### Barriers to Employment

There are a number of known barriers to obtaining or maintaining employment for young homeless and street-involved youth.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s housing instability. Youth who do not have safe and stable housing will have

difficulty getting a job, as you need to have an address for most employment applications, and without safe places to sleep, bathe, and wash their clothes, they may be unable to be adequately rested and present the necessary appearance to keep employment (Gaetz & O'Grady, 2002). Among younger street-involved youth in both 2000 and 2006, 71% reported living in unstable housing in the past year, including the majority that had lived in multiple settings, sometimes with parents but also on the street, in shelters, hotels, squats, tents and cars. Among older BC street-involved youth in 2001, fully 76% had lived in temporary or unstable housing in the past year, i.e., shelters, safe houses, abandoned buildings ("squats"), on the street, or couch-surfing.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m had slept on the street or stayed in shelters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87%), and 66% said they had difficulty finding a place to live in Vancouver; 46% said it was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money, 22% because the landlord would not rent to them, and 13% because of alcohol and drug problems.

In addition to housing difficulties, young people who are also parents have difficulty obtaining employment, often because safe and reliable childcare can be difficult to find, and the cost of such childcare can be higher than their wage. Among older street-involved youth in 2001, 26% reported having one or more children; among younger street-involved youth in 2000, 13% said they have a child, and among those in 2006, 16% had one or more children.

Education is another important potential barrier to adequate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Without the appropriate skills, including basic life skills such as reading, youth may be limited to the lowest paid, low-skilled labour, often of a temporary nature. Street-involved youth are far more likely than other youth to have dropped out of school, or to have problems attending regularly. Among older street-involved youth in 2001, only 25% were currently attending school, while another 29% had completed high school; however, among the

younger adolescents in 2000 and 2006, two-thirds were currently attending school or had already graduated (70% and 66%), with just over half of those going to school attending alternate education programs, and 45% attending mainstream schools.

### Young People's Assessment of Needed Support

In the most recent 2006 survey, youth were asked whether they had accessed various supportive services, if they were available in their community, how helpful those services were, and also whether their community needed more of these various services. In the earlier surveys of 2000 and 2001, youth were only asked about what services their communities needed. Among the older youth surveyed in 2001, the survey also asked about their interest in getting a job, and what support they felt was needed to help them get a job.

Among youth in 2006, employment was linked to accessing certain supportive services. Only one in three youth reported accessing job training services (33%), and 32% had accessed work experience programs; another one in ten youth said those services were not available in their community. When youth had accessed job training or work experience, the majority of them stated the service was helpful,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also supported this. Youth who had accessed job training in the past year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employed compared to youth who had not accessed job training services (42% vs. 28%  $p<.01$ ). Similarly, youth who had participated in a work experience program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39% vs. 28%,  $p<.05$ ). Employment was not linked to accessing other kinds of services, however, such as alcohol and drug counseling, drug detox, youth health clinics, shelters, or school programs.

In all three surveys, youth felt their communities needed more job training and work experience for street-involved youth. Indeed, along with safe and affordable

shelter, employment supports were consistently among the 5 most commonly recommended services in every city. Among older youth in 2001, an overwhelming majority also said they would like help getting a job (85%). When asked what type of help they would like to help them get a job, 43% said further education, 35% said work experience or job training, and 21% said help with job searching and resume writing.

Despite potent barriers to employment such as unstable housing, limited education, and lack of access to supportive services, street-involved youth were generally hopeful about the future. Among the older street-involved youth in 2001, 31% expected to complete some post-secondary education, as did 36% of younger street-involved youth in 2000. In 2006, a slightly lower percent of youth (26%) expected to complete post-secondary education, 14% from a technical college or trade school, 12% through attending university. As well, when asked what they thought they would be doing in 5 years, nearly half of the youth in 2006 expected to have a job (48%).

### Policies and Programs to Address the Barriers

Given the challenging economic and social context for adequate employment for street-involved youth in BC, the barriers youth face and the services they feel they need, what policies and programs exist to help reduce the barriers? At the provincial level, some of the policies focus on removing the barrier of safe and stable shelter for street-involved youth. For example, youth who are between 16 and 18 years of age in government care may be eligible to live in transition housing, which provides both shelter, case management, and supervised support to develop life skills, set goals, help young people reconnect to school, access mental health or substance abuse treatment services, and prepare for employment. Such transition housing programs are located in several communities across BC, but they generally can support only a limited number of youth in any location,

usually fewer than 12, and consolidation of services across the province has resulted in some transition housing programs closing in the past few years.

Alternatives to transitional housing can include placement with foster parents, but there are limited numbers of foster parents available to take in adolescents, especially adolescents with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In the 2006 survey, more than half of street-involved youth surveyed identified as Aboriginal, i.e., belonging to one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Canada—First Nations, Inuit, or Matis (Smith et al., 2007), yet agencies providing services for Aboriginal street-involved youth in most of those communities identified a grave shortage of Aboriginal families available to provide foster care (Saewyc et al., 2009). Another option for some teens at age 16 to 18 years is a Youth Agreement, which provides income support for housing and food to youth who are attending school or are working. This approach can be effective for youth who already have life skills and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with minimal supervision; however, youth with substance use problems, those who are vulnerable to sexual exploitation, or those who have lived in chaotic situations for many years, may be unsuccessful in living alone without regular adult guidance and emotional support. Further, once youth turn 19, they transition out of government care; however, a number of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youth in care may not have the preparation and skills to live independently by that age, especially when one considers the majority of youth who live with their parents continue to be supported financially, emotionally, and through help with life skills beyond age 19. A newer pilot policy in BC is offering an extended transition for some youth in care, offering ongoing financial support for those attending post-secondary education.

At the federal government level, one of the key policies designed to help youth who face barriers to employment is the Skills Link program. This program aims to help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ge 15 to 30 years) by funding



services that use individualized approaches to help youth develop skills and work experience to successfully become and stay employed. The program requires supported training, in which eligible youth are paid a wage while learning basic skills, and then receive subsidized employment placements, with ongoing mentorship during the first few months of employment. In BC, two programs that have been funded in recent years through the Skills Link federal program include BladeRunners, for street-involved youth and those transitioning out of foster care, and the Peak program, to help sexually-exploited youth exit the sex trade, stabilize their lives, attain other marketable skills, and enter the job market. These two programs set about achieving the Skills Link requirements somewhat differently, and are described below.

### The BladeRunner Program

The BladeRunner Program offers youth age 15 to 30 who are street-involved, transitioning from government care, or otherwise hard to employ an opportunity to learn construction trade skills in a supported employment process. The first part of the program involves being paid an hourly minimum wage to attend a variety of job-skills training programs, each of which ends up with certificates of completion for the completed programs, which can aid in employment. For example, youth can receive training and certificates in worksite safety, in first aid, in safe food handling, and training for operating various types of equipment. In addition, they receive training in building construction, and then are mentored as they begin employment with construction crews. The government subsidizes the construction unions to offer these opportunities to youth in partnership with the youth-serving agencies who provide the training, emotional support, and case management for youth. The BladeRunner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in seven cities across BC; according to Steven Arnett, the executive director of Nanaimo Youth Services Association, they have been running the BladeRunner

program for 14 years in their community. Recent outcome results show more than 60% of youth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re employed full time one year after the program, and half are still employed 2 years later (S. Arnett,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3, 2009).

The Peak program was designed to assist male and female sex workers and sexually exploited youth age 15 to 30 years in exiting the sex trade, by giving them similar levels of support and training in skills to move into permanent employment. In many ways, sexually exploited youth face even more barriers to employment than street-involved youth who are not also sexually exploited (Gaetz & O'Grady, 2002; Saewyc, MacKay, Anderson and Drozda, 2008). They are far more likely to have traumatic life histories that make it difficult to trust people;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have substance abuse problems, developed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ir circumstances. The circumstances of their work can place them in dangerous situations and at risk for violence (Saewyc et al., 2008), yet it can bring in much higher income than the entry-level jobs youth may otherwise be eligible for, and can usually be done while living in the most precarious housing. Their work in the sex trade is highly stigmatized, and can lead to shame and low self-esteem as well as discrimination from potential employers, yet such youth need to account for the gap in employment somehow.

In light of these potent barriers to employment, the Peak program has some unique elements to address the needs of this vulnerable sub-group of street-involved youth that are not necessarily mandated by the Skills Link funding program. For example, the staff were all experiential people (formerly sexually exploited and involved in the sex trade themselves), which was important for developing trust and rapport with participants. One of the key components was linking the youth to the variety of supportive services in the community, helping them be aware of other supports to address their other needs. Breakfast and lunch was provided as part of the program, and helped

foster connections with staff and with other trainees. At the end of the 6 month program, there was an additional \$500 performance bonus as an incentive to completion. Like the BladeRunners program,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program focused on life skills, work readiness, training and certificates, job exploration courses, and helping youth deal with emotional and health issues from sex work that could prevent successful employment (for example, helping to get alcohol and other drug treatment). The second three months included a subsidized work placement, individualized to the youth's identified interests and skills, with regular mentoring during that time for support in transitioning to employment. Although preliminary results suggested the program had positive effects, the program may have been too short in length to address the more challenging needs of some of the young people, to enable their successful transition to long-term, self-sustaining employment. Unfortunately, the program lost the funding after several years, and it is no longer available.

## Conclusion

Street-involved and marginalized youth in British Columbia face potent barriers to successfully transitioning to work, including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of stagnant minimum wage levels and severely unaffordable housing in their geographic region, even during a previous time of strong economic growth. A number of policies and programs have been offered to help address some of the barriers to successful employment, many of them focused on the types of services youth themselves felt they needed, and which appear to be successful in helping those who access them. However, the level of need in the communities is still much higher than the level of available support. Given the current worsening economy and rising unemployment rates in Canada, it is likely this gap will continue to widen.

# The Attitudes to Work and to the Measures Taken by Labor Authorities of the Finnish Young People with Persisting Temporary Unemployment

Jaana Lahteenmaa (Finnish Youth Research Network)

The generation of the young now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faces a much more insecure situation and future than the preceding generations. This applies to Europe as well as to at least some Asian countries (Bradley & van Hoof 2005; Ichiyo 2008). Opportunities to get work, and especially a permanent working place, are more and more limited for many young people. Unemployment is no longer limited to those at the bottom of socio-economic hierarchy, with low skills or those in isolated or regionally declining areas. Now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under-deployment and downward mobility are (also) affecting the managerial and professional middleclass who are experiencing substantial anxiety and insecurity. (Bradley & van Hoof 2005; Pahl 1996).

In addition, we now have a global recession at hand, hitting the entire workforce in the U.S., European countries and also many Asian countries - and in many of them, especially the young people. In Finland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rose to 24 percent this May, as the rate for the whole workforce was almost 9 percent.

My hypothesis developed in this paper is that the attitudes to, and conceptions of /gainful employment, as well as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labor authorities among the young unemployed are currently at least partly different and more diversified than during the former recessions with high youth unemployment (in Finland the former recession was in the 90's.) This situation has been accompanied by the constantly insecure situation of young people in the labor market,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a small, but very visible group of "precariat

activist" in Europe, including Finland. These activists are heavily criticizing the "activating"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 whole capitalist system.

The generation of the young now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meets the circumstances of this recession in an atmosphere full of skepticism. Many of these young people have already experienced persisting temporary unemployment, as an increasing number of the young only have had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since the former severe depression in the 90's. Although Finland's economy seemed to recover well from the former depression, with heavy economical growth since that period, especially the public sector never recovered to its earlier level, and both the state and the municipalities have started to employ people on short-term contracts only. So, certain skepticism and in some cases, bitterness, exist already towards "activating labor market policies"- and this recession really doesn't help the situation.

My paper will start by a sketch of the debate around "the precariat generation", followed by a brief summary of some features of the youth unemployment situation in Europe and especially in Finland in the former decades and recently, just before the current recession. Finally, I will try to construct an interpretation model in order to comprehend the diversity and the logic behind the different types of unemployment faced by the young. When constructing the model, I will use some empirical material I have collected with my colleagues in the ongoing research project (Work Preca project financed by the Academy of Finland; see [www. Nuorisotutkimus.fi](http://www.Nuorisotutkimus.fi) / Work-preca.). As we are still gathering the data, there is no proper analysis done so far, and the interpretations are very preliminary.

### The "Precariat Generation" Debate

The growing debate on "the precariat" (in French: la precarite) is both political and sociological by nature. The term precarite/precariat (and its many variations,

including the Finnish *prekariaatti* ) originated in Italy and has spread widely in the world. The term combines the words "precarious", referring to the insecurity of part-time and contract work, and "proletariat". It defines the precarious workers as a new social class. The activists themselves point out that the term *la prearitei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Latin word "precarious" which means praying and being at the mercy of others. (Korhonen et al. 2009, 13).

The public debate and the recently emerged sociological analysis around the "precariat" has been boosted by the anti-precarity movement which has got much visibility in the "Euro-MayDay" demonstrations around the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Finland (see Ross 2008; Hoikkala et al. 2006) and just recently also in Japan (there called "Indies MayDay demonstration, see Ichiyo 2008). This movement consists mainly of young, angry people. Sometimes the term refers to a new generation of "jobbers", working with informal or limited-duration contracts, workers who no longer have any prospect of a full-time job. In this definition a relevant point is that many of the persons involved do not want to give up their freedom and see the Fordist wage-earning labor as anything but the promise of a better life (Sergio Bologna according to Grimm and Ronneberger 2007). But elements of precarious or non-standard employment are not shared just by this "creative class" temping in high-end knowledge sectors, but also by workers in retail and low-end services (e.g., Ross 2008). Many of these people have not chosen to work precariously - they just cannot get a permanent working place.

The "creative class" - such as artists, musicians, authors - has traditionally had more or less un-stable work and salary, while now the precarious conditions have increasingly spread to people working not just in the cultural industry, but also in teaching, marketing and even nursing (Ross 2008, Precarias a la deriva-group 2009; Peltokoski et al. 2009). In many European countries, such as Finland, "the precariat" consists mainly of young people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In countries with more immigrants (including the illegal immigrants), the precariat also comprises these people (Ross 2008 ). In Finland, with relatively small immigration numbers, the precarisation of work has taken place especially in the young people's labor market, and from the gender point of view, in female labor market rather than in the male labor market (Miettinen 2007).

In Finland, the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increased heavily after the preceding depression. The phenomenon has been discussed in the Finnish public domain since the mid of 1990's, using different terms such as *patkatyöt* (a Finnish neologism combining two very Finnish words: *patka*, a very short thing, a stub or a stretch, and *työ(t)*, work in Finnish, and all its possible linguistic derivatives, such as *patka* labor markets, etc.) This word, first invented by journalists, has then found its way to the official labor market as well as to the political discourse. The word *prekariaatti* (the precariat) is not at all so commonly used, although the Finnish Precariat activists are heavily trying to introduce it to the Finnish debate.

"The precariat" is a very heterogeneous and blurring concept, and - no wonder - the public and sociological debate on it has been quite confused. In Finland the confusion also concerns the question whether these *patkatyöläiset*, meaning workers who only have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one after another, are the same thing as "the precariat". According to the very recent declaration of the Finnish precariat movement, they are not exactly the same people, although the terms are partly overlapping (Korhonen et al: "The declaration of the Precariat: from shit-work to barricades", 2009). Despite of these never-ending discursive disputes, it is relevant to note that more and more young people get, if they find work in the first place, frequently only work that is precarious, based on a fixed-term contract, if any contract at all. Some young people like it, some do not (Sell 2007; Korhonen et al. 2009). Nobody really know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work precariously voluntarily, not least

because this question is also a topic of political argumentation, at least in Finland (see Miettinen 2007).

### Youth Unemployment and the Current Recession

Not just precarisation, but also the relatively high rate of youth unemployment has been a problem in many European countries for several years, already before the current economical recession: in Italy, Spain, France, and also in Finland (van Hoof & Bradley 2005). In Finland, youth unemployment has remained at a fairly high level from the former economical recession that took place the early 1990's. That very heavy depression was a "Finnish specialty", caused by many factors, not least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ur neighboring country that was extremely important for our foreign trade (for further information, see "early 1990s recession"/WIKIPEDIA).

Although Finland's economy recovered from the depression towards the end of the 1990's, and was rapidly growing until these days, young people's unemployment rates remained relatively high in Finland, much higher than in most other European countries, during several years. The situation was slightly recover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2000's, but now the problem is again there: once again, the new recession is especially heavy on the young people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Now 24% of young people are unemployed, compared to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of 9% (27 May 09)

### Towards an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There are at least two factors influencing the atmosphere and the thoughts/feelings of young people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in today's recession, making the situation different from the times of the former recession in Finland. There is, in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Finnish people, the experience of the former depression, just about 15 years ago: at that time,



practically everybody in Finland had at least one unemployed person among their friends or in their family. The young adults now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were living their childhood in the misery, or at least the shadow of that depression (see Lämsä2009). How will this affect the "climate" of the current recession, and the emotional competences of these young people to meet the new backlash? Nobody knows, yet - but we might guess that in some way it will.

Already before the beginning of this recession the young Finnish people have been conscious of the fact that finding a steady job is extremely difficult, especially for young people. The precarisation discourse has been so visible in Finland during the past few years that young people in general are very aware about the problems one typically has when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This constantly prevailing situation where there does not seem to be enough work for all, at least all the time, might erode the unquestionable idea of the value of work.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the protestant idea of "good life containing hard work" would be eroding in this situation.

Then again, there may be others who increasingly appreciate finding a good working place as the competition for especially permanent working places gets heavier by the day. The latter ones are ready to fight for the few good permanent jobs; these young people make an increasing investment in their schooling. "Burnouts" among Finnish high-school girls as a result of too hard work is the most recent phenomenon telling a story about extremely heavy pressures. (It is worth noting that in Finland girls do better in school than boys, and it is self-evident for women to try to enter the labor market side by side with men. The housewife institution has never flourished in the Finnish culture). It is quite obvious that these new circumstances create new divisions among the young people in their relationship to work.

## Earlier research

Young Finnish people's attitudes to work were investigated broadly during the last economical recession, both quantitatively (e.g., Julkunen-Malmberg-Heinonen 1996) and qualitatively (Helvet et al. 1997, Paju 1999). Certain surveys, targeted at the young, including the theme of work orientation etc. have also been done in between these recessions (e.g., Myllyniemi 2007). Young people's work orientation has been studied also in Finland's neighboring countries.

The welfare states in the Nordic countries have traditionally had a high level of work orientation. The labor participation rate among both men and women has been very high, although in the mid-1990's there were fewer young, especially teenagers, in Finland working than in other Nordic countries. This could be explained by extended education and the high unemployment among the youth in Finland (Julkunen & Malmberg-Heinonen 1998, 98-99).

It was speculated already in the 1990's that societal development, new opportunities and flexibility lead to circumstances where classical virtues such as duty, the work ethic and obedience lose their dominance among the young (Sernhede 1996). Some research results from Nordic countries also seem to support these arguments. For example, a Swedish study on three generations' attitudes towards work showed (in the end of the 1990's) that work was less salient for the youngest generation (born in 1960) (Almås 1997 according to Julkunen and Malmberg-Heinonen 1998). Certain Finnish qualitative studies have indicated that work still is important for young people, but it is no longer the sole arena of their only life value, as it was in Finland for older generations (e.g., Kortteinen 1992.) A study made in the 1990's showed that over 90 percent of young people in the Nordic countries thought it were important to have a job, even if a smaller percentage thought that work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ir lives. (Julkunen and Malmberg-Heinonen 1998, 99)

In recent qualitative research about people's work orientations in Finl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so-called Protestant ethic where diligence is an unquestionable virtue, has begun to erode. This is something new in Finnish culture: former generations, not least the post-war generation, were extremely work-oriented (Siltala 1992; Kortteinen & Tuomikoski 1998). Younger generations have begun to be more selective: some of them respect and are only prepared to engage in work they consider meaningful for themselves (Sell 2007). Connected with this, in certain sub-cultures it is not considered shameful at all to be unemployed (ibid.).

In this opinion climate it would be surprising if being unemployed led to uniform coping strategies among the young generation. The coping strategies of the unemployed young people in Europe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opposite categories: "withdrawing" and "those desperately seeking for a job"(see, e.g., de Goede et al. 1996). My hypothesis developed in this paper is that there is more diversity among the young unemployed today.

Associated with this phenomenon, I think that the good-meaning activating measures of labor authorities today also inspire thoughts and feelings, maybe also practices among the young, other than just the affirmative and "happily accepted" ones. Finnish labor market policies have, since the former depression, adapted more and more characteristics from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Kildal, 2001). This includes a trend of reforms towards active measures rather than passive actions, sanctions rather than incentives, duties rather than rights. (ibid.)

In Finland, "sticks and carrots" are used in order to activate people, and especially young people, to either work or to study. The latter strategy has gone so far in Finland that the under-25-year-old unemployed are forced to apply for a study place if they do not already have a second-level education (this means: no education after the basic school which is typically finished at 16). If they do not apply, and the authorities can check whether they have or have not, they

lose their status as unemployed, first partly and then totally - and all the subsidies that go with the unemployed status. This law is a fruit of Finland's former depression - with the idea of "activating young people to study", and also to clean up the bad-looking statistics on youth unemployment.

Based on these elements I construct the following questions:

-Are there signs of new kinds of coping strategies among the young unemployed people (compared to the times of Finland's former depression in the 90's)?

-How are they connected to attitudes to work and the idea of working as a virtue, and to the labor policy and the respective measures directed at the young unemployed?

### Methodology and the Data

I am involved in empirical research on the young, permanently temporarily unemployed in Finland, in the framework of a research project financed by Academy of Finland ("Work-preca" project, see [www.nuorisotutkimus/work-preca](http://www.nuorisotutkimus/work-preca)). The research project started in 2008, and both the gathering and analyzing of the empirical data is still going on. The aim of the ongoing research project is to increase 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young generation (aged from 17 to 29 years) in different areas of Finland, trying to enter the labor market and facing the insecure and unpredictable situation there - and now also the economical recession. It flooded into Finland when we had just begun our research. That forced us to partly revise our research questions.

Empirical material is gathered from the capital area as well as peripheries of Finland. My colleagues have already gathered qualitative interview data, mainly in the capital area. Later, I also will make qualitative interviews in the peripheries of Finland. To date I have conducted a survey with a

non-representative sample (N = 810; of whom 716 belonging to the original target group, those over 16 but under 30 years). The survey was made between the 7th and 25th of May this year as an on-line survey.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n online questionnaire, having been directed to the page through the web pages of the Finnish Ministry of Labor (the address of the site is [www.mol.fi](http://www.mol.fi)), where people most typically go to look for vacancies and sometimes also for information about the subsidies and other benefits offered to the unemployed. The web-pages are visited by thousands of visitors every week.

The questions in the survey focus on the respondents' thoughts, dreams and fears about employment and unemployment, their education and the easiness versus difficulties, as well as experiences of finding work fitting to their education, their feelings and practices when unemployed, their readiness to move after work to another part of their home country or abroad, etc. Naturally, the normal background questions were also asked. There were two open-ended questions (which produce qualitative data) while the other questions were structured.

As I have just finished the gathering of the data (25 May 2009), I have only been able to check the frequencies of a few variables, most relevant to the topic of this paper. I have read quickly through some of the qualitative answers but a systematic analysis is not possible in a couple of days. However, I give you some impressions of that material to illustrate my case.

### Some Preliminary Findings of our Research Project

The coping strategies and life styles of the young unemployed people seem to be connected with their attitude to work, and their way to see hard work as a virtue and laziness merely as a sin or shame - or the lack of this attitude. Both attitudes can be found among today's young unemployed, as also reflected by our research material. The young people's attitude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labor authorities also varies: from eagerness to follow all the rules and suggestions of these authorities to cynical or even aggressive attitude to them.

The respondents to my web-based survey are 2/3 females and 1/3 males. The sample consists of people between 16 and 29 years of age; the majority are between 21 and 29. The respondents come from all five big provinces of Finland.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varies from the lowest possible level to vocational training, polytechnic education and university degree (MA level). On the basis of the qualitative answers I got an impression that there are quite many, especially among the academic graduates, who have finished their university only to enter the current recession and unemployment. However, there seem to be also the *patkatyalaiset*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eriods before this recession. I here present the results to only five attitude-statement questions, as they are the most relevant ones in the light of my research question. 40% of the respondents consider the permanency of the working place a very important thing - thus, 60% do not. It shows that among this generation there are really at least two kinds of attitudes to the question of the permanency versus temporariness of the work. This does not make any easier to analyze the precariat and their position in the society! The attitudes concerning the terribleness of being unemployed also vary. 42% think that "it is not bad to be unemployed if you anyway have the basic income". The majority disagrees but it is a majority of 58%, not more. Very parallel is the distribution in the reaction to the statement "I would rather take even non-permanent work than unemployment subsidies if the sum of money to be got would be exactly the same." 39% disagree, 61% agree.

It seems that among the young who persist to be temporarily unemployed, or who are the first time unemployed, there are two kinds of opposing attitudes towards the virtue of working and, as its inversed image, towards being unemployed. The virtue of working ethos seems to be a bit stronger, but not

overwhelmingly.

From these elements, and also leaning on the findings made by my colleagues in our research projec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typology. It resembles Merton's classical typology constructed originally to interpret "anomie" and deviance (Merton 1938). I have constructed a modification of Merton's classification. As this idea - my classification - is novel, I am testing its relevance in this paper - not stating that it is the best possible way to interpret the phenomenon. Anyhow, with this classification I try to make a coherent and logical typology of different kinds of groups of young unemployed -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attitude to working as a virtue, or work as a goal and their means to reach or reject it.

Compared to the classical typology of Merton, I have replaced the original culturally defined goal ("common success goals", as defined by Merton) with "work for pay." I have formulated the structurally defined means (to reach the goal) to be "officially accepted means to try to find work and/or maintain one's employability". This latter might include going to job training programs and re-training schemes, studying for a completely new field if one does not find work which fits one's former training, acting according to all the rules given by the labor authorities, etc.

From these elements I have built a new typology; the structure and the basic terms and "reaction-types" come from Merton's classical typology, but the substance is new: connected directly with the topic of the work.

Culturally defined goal /structurally defined means / role behavior  
 = work for pay / = trying to get work, obeying the rules of the labor  
 authorities

+	+	Conformist
+	-	Innovator
-	+	Ritualist
-	-	Retreatist
- /+	-/+	Rebel

- = rejection + = acceptance

-/+ = rejection of structurally defined goals and means and their  
 replacement with new ones

"CONFORMIST" - she/he accepts the culturally defined goal, also set by the authorities, to actively look for work all the time, and take care of one's employability by going to re-training courses, getting more education - maybe even in a totally new field, learning new languages - and this all in order to keep or cultivate oneself to be as employable as possible in the rapidly changing labor market. In my survey data the majority seems to belong to this group. In the open-ended answers there are descriptions of active, even desperate people looking for work, sending hundreds of applications, etc. In addition, they also report about re-training courses taken, new studies in a totally new field (with a promise of workforce needs in near future), developing one's employability in language and other courses. - It is no wonder that the survey data consist mainly of these people, as the material is gathered through the link situated in the web-pages of the Ministry of Labor, web-pages used by people to look for work or re-training programs.



"INNOVATOR" - an unemployed young person seeking work projects, from which she/he would also get a material reward and/or all the time involved in some project and/or art, but without any pay. She/he may have entrepreneurial spirit but the most relevant thing is that the person is ready to work just with and for things which she/he finds very meaningful on a very personal level. Typically, this meaningfulness comes from the possibility to "express oneself" or "being creative"(see Sell 2007). So, these young people consider the measures and sanctions of the labor authorities as an "inevitable evil". They may also try circumventing these rules and norms. However, they have at least a dream to live on their creative work - so, it would be totally wrong to interpret them as aversive to work; they just strictly want to choose the work they do. In the Work-Preca research project Anna Sell is studying this ethos among the culturally oriented young who persist to be temporarily unemployed. She made qualitative interviews with these young people in the Helsinki metropolitan area (see also Sell 2007). In my survey material there seem to be a couple of such persons, underlining their serious orientation towards expressing themselves by arts - whether getting paid or not.

"RITUALIST" - the ritualist, in this context, could also be described as "a drifter" / "a floater". She/he accepts the measures of the labor authorities, goes to the re-training courses offered, but with a passive, even resigned attitude. This group does not have any passion for work: neither as concerns the work to which they are training during the courses or traineeships, nor any work in general. Some of them may feel passionate about their more or less creative hobby and a fairly vague or diffuse vision that maybe some day they might find work connected to this hobby. However, they do not put too much effort to make that dream come true. In our research project, Marjaana Kojo (see Kojo & Sell 2009) has made qualitative interviews among these young people. She

encountered the phenomenon when going to the training workshops organized by the labor authorities before the recession had invaded Finland, and the youth unemployment was not yet a problem in the capital area. Then, in economically good times, the young who were the object of these "labor measures" were mainly those who had difficulties in employability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to do with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Some of them had a very difficult childhood, depression or other similar problems. They did not have optimistic, if any, visions concerning their future. In my survey material there might be also such persons, but as the analysis is just beginning, I cannot judge this for sure.

"RETREATIST" rejects both the goal of getting a working place and the means, even the "forced" means imposed by the labor authorities, to get one. The retreatist withdraws from society and has typically heavy addiction problems with alcohol, drugs or gambling. As she/he does not obey the rules set by the labor authorities, the unemployment benefits are no longer paid to him/her. However, they may receive some income support from the social services for food and basic necessities. Of course she/he can also commit crimes, work in the grey market or similar. It is quite understandable that these people are not involved in my survey. Yet, in their open-ended answers in the survey som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are worried about their life management, feeling that they are drifting away when unemployment continues, and they have started to drink more and more, and - in a few cases - smoke hash daily, or play online games so that nothing else seems to be interesting anymore. It is clear that if this recession persists, with such high youth unemployment rates, we will have more and more of these retreatists with heavy addiction problems - this "development" also took place in the course of Finland's former depression (see for ex. Paju & Vehviläinen 1999).

"REBELS" belong to that section of the precariat who want to lead an alternative life where work for pay is not an aim at all. Expressing or finding oneself - whether one gets money from it or not - is the guiding star in their life-planning. Sometimes this is associated to a very critical attitude towards consumer culture, and just accepting, or even appreciating a very low living-standard. In this group the rules and orders of the labor authorities are also questioned - and circumvented in all possible ways. In our research project Anna Sell(2007) has interviewed young people who can be identified with this attitude. In this typology, this type is very similar to the "innovator".

## Discuss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ich seems to persist, with no future guarantees provided, a world where there will probably not be enough work for all, where education does not guarantee a job in the future, certain "activating labor market strategies" may become even a problem rather than a solution. Increasing criticism may emerge among the young generation, with resentment felt against the labor market authorities, or even against the whole state as an institution - although the opposite is the aim. This may lead to a broadening and deepening legitimacy crisis of the entire society. It would cause more and more anomie (to use the classical sociological definition, originally from Emile Durkheim) among the young generation.

The radical precariat activism originating in Italy has already begun to "feed" this anomie, encouraging people not to obey the jointly accepted rules of society. The activists suggest that it is not just acceptable to steal, to travel in public transportation without tickets, etc. but they even encourage "the precarious" to do so. According to their argumentation this is right because the system is so unequal and has betrayed them. Unfortunately there is some logic to this, although the ideas are not acceptable.

Even in my survey data, where most of the respondents seem to be law-abiding conformists (at least at the first glance of the material), there are some signs of the emerging anomie.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understand and accept that an unemployed person "moonlights" if she/he does not get another kind of work. Moonlight work is not a serious crime but it is still against the Finnish law. I believe that we will be faced with more and more law-breaking attitudes and practices and with a deepening crisis of legitimacy of work and other state authorities if the situation continues like this. The "activating labor politics", with its sticks and carrots, of which sticks are overwhelmingly used, seems to be based increasingly on myths - myths about the power of good education guaranteeing a job, and "the upcoming shortage of labor" which seems to escape from us to a remote future. Young unemployed people cannot be fooled for ever. It is not a researcher's task to tell what should be done; it is the problem of politicians. The task is not easy at all.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언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혜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진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홍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인 쇄 2009년 12월 28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 786-299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785-7(93330)